

연구보고서 2017-25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정경희 · 오영희 · 황남희 · 오미애 · 이선희 · 김정석

【책임연구자】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 저서】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리서치, 2016(공저)

【공동연구진】

- 오영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김정석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구보고서 2017-25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발행일 2017년 12월
 저자 정경희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다원기획
 가격 8,000원

발간사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의 삶의 질이 한국 사회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 통계청은 최근 인구추계에 기반하여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738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했다. 더불어 노인인구는 2025년에는 1,050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내부의 다양성 확대에 따라서 노인의 제 특성별 삶의 질 차이를 파악하고 그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 역시 증대하고 있다. 이에 삶의 질의 변화 추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측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개발하였으며, 한국은 통계청을 중심으로 하여 국민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통계지표를 생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인의 삶의 질을 종합하여 수치화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다. 즉, 현재까지 노인에게 특화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표 틀에 대한 정기적인 적용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노년기를 초점으로 한 다양한 사회지표 개발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일회성 작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노인의 관점을 반영한 개별지표의 개발과 통계원 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까지의 노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려는 시도들은 기술적(descriptive)으로 이루어져 수치화를 통한 계량화 작업은 부족하였

다. 이는 자료원의 부족뿐만 아니라 지수화 작업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이 어렵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노년기 삶의 조건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삶의 질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종합적으로 지수화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제 비교와 지속적인 수정·보완 및 지표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 기반 구축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현황을 영역별로 측정하고, 이를 노인의 하위 집단별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역별로 균형 있는 삶을 구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책적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는 계량적 자료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본 보고서는 정경희 선임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의 오영희 연구위원, 황남희 부연구위원, 오미애 연구위원, 이선희 연구원, 원외의 김정석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검독해 주신 본원의 이윤경 연구위원과 소중한 검토의견을 주신 모선희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진은 전문가 조사에 응해 주신 전문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기본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13
제1절 기본 개념 검토	1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1
제3장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	65
제1절 지표체계 개발 과정	67
제2절 노인의 삶의 질 지표 개요	81
제3절 개별지표의 정의 및 산식	84
제4장 노인의 삶의 질 시산을 위한 기초 검토	109
제1절 개별지표별 자료원 검토	111
제2절 지수화 방법	119
제5장 노인의 삶의 질 수준	127
제1절 노인의 삶의 질 국제 비교	129
제2절 인구집단별 노인의 삶의 질 현황	140

제3절 노인의 삶의 질 변화 추이	150
제6장 결론	161
제1절 주요 결과 종합	163
제2절 정책적 함의	165
제3절 지속적인 지표체계의 보완	169
제4절 데이터베이스 구축	174
참고문헌	181
부 록	189
부록 1. 제1차 전문가 조사 조사표	189
부록 2. 제2차 전문가 조사 조사표	198
부록 3. 전문가 리스트	208
부록 4. 개별지표의 지역별 현황	209
부록 5. 지표별 국내외 관련 분석 문항	216
부록 6. 개별지표의 국가별(한국, 영국, 스페인, 스웨덴, 독일) 현황	222
부록 7. 개별지표 관련 연도별, 성·연령별 통계	228

표 목차

〈표 2-1〉 더 나은 삶 지수(BLI) 개요	23
〈표 2-2〉 활기찬 노후 지수(Active Ageing Index) 개요	25
〈표 2-3〉 글로벌 에이지워치 지수(Global AgeWatch Index) 개요	27
〈표 2-4〉 일본의 국민 웰빙 지표(Measuring National Well-being)의 영역별 지표	29
〈표 2-5〉 캐나다 웰빙 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개요	35
〈표 2-6〉 영국 웰빙에 관한 국가 계정(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 개요	40
〈표 2-7〉 호주 유니티 웰빙 지수(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 개요	42
〈표 2-8〉 해외의 삶의 질 지표체계 특성 비교	43
〈표 2-9〉 해외의 삶의 질 지표체계 작성의 주체	44
〈표 2-10〉 국민 전체의 삶의 질 지표체계 관련 연구	47
〈표 2-11〉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관련 연구	48
〈표 2-12〉 삶의 질 지수화 관련 선행연구	50
〈표 3-1〉 단계별 영역 구성의 변화	72
〈표 3-2〉 단계별 개별지표의 변화	74
〈표 3-3〉 개별지표의 특징	83
〈표 4-1〉 개별지표별 자료원 현황	115
〈표 4-2〉 자료원의 특징	118
〈표 4-3〉 영역별 절대평가 및 우선순위	120
〈표 4-4〉 소득 영역 개별지표 절대평가 및 우선순위	120
〈표 4-5〉 건강 영역 개별지표 절대평가 및 우선순위	121
〈표 4-6〉 교육 및 여가 영역 개별지표 절대평가 및 우선순위	121
〈표 4-7〉 가족 및 공동체 영역 개별지표 절대평가 및 우선순위	122
〈표 4-8〉 시민참여 영역 개별지표 절대평가 및 우선순위	122
〈표 4-9〉 안전 및 환경 영역 개별지표 절대평가 및 우선순위	123
〈표 4-10〉 전문가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항목별 가중치 환산 과정	124
〈표 4-11〉 항목별 가중치 적용 과정	125

〈표 4-12〉 전문가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영역별 가중치 환산 과정	125
〈표 5-1〉 한국과 주요 국가의 소득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2014년)	130
〈표 5-2〉 한국과 주요 국가의 건강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2014년)	132
〈표 5-3〉 한국과 주요 국가의 교육 및 여가 영역 지표값과 지수값(2014년)	134
〈표 5-4〉 한국과 주요 국가의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2014년)	135
〈표 5-5〉 한국과 주요 국가의 시민참여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2014년)	136
〈표 5-6〉 한국과 주요 국가의 안전 및 환경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2014년)	138
〈표 5-7〉 한국과 주요 국가의 영역 및 통합지수값(2014년)	139
〈표 5-8〉 성과 연령별 소득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 값(2014년)	141
〈표 5-9〉 성과 연령별 건강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 값(2014년)	142
〈표 5-10〉 성과 연령별 교육 및 여가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 값(2014년)	143
〈표 5-11〉 성과 연령별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 값(2014년)	144
〈표 5-12〉 성과 연령별 시민참여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 값(2014년)	145
〈표 5-13〉 성과 연령별 안전 및 환경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 값(2014년)	147
〈표 5-14〉 성과 연령별 영역 및 통합지수값(2014년): 항목별 및 영역별 가중치 부여 ..	148
〈표 5-15〉 성과 연령별 영역 및 통합지수값(2014년): 동일 가중치 부여	149
〈표 5-16〉 소득 영역의 지표값 및 지수값 변화(2004~2014년)	151
〈표 5-17〉 건강 영역의 지표값 및 지수값 변화(2004~2014년)	152
〈표 5-18〉 교육 및 여가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 변화(2004~2014년)	153
〈표 5-19〉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 변화(2004~2014년)	154
〈표 5-20〉 시민참여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 변화(2004~2014년)	155
〈표 5-21〉 안전 및 환경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 변화(2004~2014년)	157
〈표 5-22〉 영역 지수 값과 통합지수값 변화(2004~2014년): 항목별 및 영역별 가중치 부여 ..	158
〈표 5-23〉 영역 지수 값과 통합지수값 변화(2004~2014년): 동일 가중치 부여	159
〈표 6-1〉 한국과 주요 국가의 영역 및 통합지수값(2014년)	170
〈표 6-2〉 안전 및 환경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값(2014년)	170
〈표 6-3〉 영역 및 통합지수값(2014년): 항목별 및 영역별 가중치 부여	171
〈표 6-4〉 영역 및 통합지수값(2014년): 동일 가중치 부여	171

〈표 6-5〉 노인의 삶의 질 지수 DB 세부 지표 구축 틀 예시	177
〈부표 4-1〉 지역별 분석 : 소득 영역(공적연금 수급률/경제상태 만족률)	210
〈부표 4-2〉 지역별 분석 : 건강 영역	211
〈부표 4-3〉 지역별 분석 : 교육 및 여가 영역	212
〈부표 4-4〉 지역별 분석 : 가족 및 공동체 영역	213
〈부표 4-5〉 지역별 분석 : 시민참여 영역	214
〈부표 4-6〉 지역별 분석 : 안전 및 환경 영역	215
〈부표 5-1〉 지표별 국내외 관련 분석 문항	216
〈부표 6-1〉 개별지표의 국가별 현황 : 소득 영역	222
〈부표 6-2〉 개별지표의 국가별 현황 : 건강 영역	223
〈부표 6-3〉 개별지표의 국가별 현황 : 교육 및 여가 영역	224
〈부표 6-4〉 개별지표의 국가별 현황 : 가족 및 공동체 영역	225
〈부표 6-5〉 개별지표의 국가별 현황 : 시민참여 영역	226
〈부표 6-6〉 개별지표의 국가별 현황 : 안전 및 환경 영역	227
〈부표 7-1〉 소득 영역 : 상대빈곤율	228
〈부표 7-2〉 소득 영역 : 경제적 박탈 경험률	229
〈부표 7-3〉 소득 영역 : 공적연금 수급률	230
〈부표 7-4〉 소득 영역 : 경제상태 만족률	231
〈부표 7-5〉 건강 영역 : 운동실천율	232
〈부표 7-6〉 건강 영역 :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233
〈부표 7-7〉 건강 영역 : 건강기간 비율	234
〈부표 7-8〉 건강 영역 : 주관적 건강인지율	235
〈부표 7-9〉 교육 및 여가 영역 : 고등교육 이수율	236
〈부표 7-10〉 교육 및 여가 영역 : 평생교육 참여율	237
〈부표 7-11〉 교육 및 여가 영역 : 여가활동 참여율	238
〈부표 7-12〉 가족 및 공동체 영역 : 유배우율	239
〈부표 7-13〉 가족 및 공동체 영역 : 가족관계 만족률	240

〈부표 7-14〉 가족 및 공동체 영역 :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비율	241
〈부표 7-15〉 가족 및 공동체 영역 :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	242
〈부표 7-16〉 시민참여 영역 : 사회단체 참여율	243
〈부표 7-17〉 시민참여 영역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244
〈부표 7-18〉 시민참여 영역 : 정치적 자기역량인식	245
〈부표 7-19〉 안전 및 환경 영역 :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246
〈부표 7-20〉 안전 및 환경 영역 : 노인자살률	247
〈부표 7-21〉 안전 및 환경 영역 : 주거환경 만족률	248
〈부표 7-22〉 안전 및 환경 영역 : 사회안전에 대한 만족률	249

그림 목차

[그림 1- 1] 연구 진행도	12
[그림 2- 1] 개인의 다양한 욕구 및 사회적 지향성	20
[그림 2- 2] 일본의의 국민 웰빙 지표(Measuring National Well-being) 개념틀	28
[그림 2- 3] 캐나다 웰빙 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구성틀	37
[그림 2- 4] 캐나다 웰빙 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영역별 변화(1994~2014년) 37	
[그림 2- 5] 영국 웰빙에 관한 국가 계정(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의 구성틀	39
[그림 2- 6] 글로벌 에이지워치 지수(Global AgeWatch Index) 영역과 지표	53
[그림 2- 7] 2015년 글로벌 에이지워치 지수(Global AgeWatch Index) 순위	54
[그림 2- 8] 국제 순위 지도(Global rankings map) 시각화 사례	54
[그림 2- 9] 에이지워치 보고 키워드(AgeWatch report card) 시각화 사례	55
[그림 2-10] 캐나다 웰빙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시각화 사례	57
[그림 2-11] 호주의 유니티 웰빙 지수(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의 시각화 사례 ..	59
[그림 2-12]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 영역 구분	60
[그림 2-13]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 종합상황표(일부)	61
[그림 2-14]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 시각화(상대적 빈곤율)	62
[그림 2-15]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 시계열 조화 시각화	63
[그림 3- 1] 개발 과정 및 단계별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요	70
[그림 3- 2]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82
[그림 5- 1] 한국과 주요 국가의 영역별 통합지수(2014년)	139
[그림 5- 2] 성과 연령별 영역 및 통합지수값(2014년): 항목별 및 영역별 가중치 부여	148
[그림 5- 3] 영역 및 통합지수의 변화(2004~2014년): 항목별 및 영역별 가중치 부여 ..	159
[그림 6- 1] 노인의 삶의 질 지수 DB 구축을 위한 다차원 개념	174
[그림 6- 2] 노인의 삶의 질 지수 DB section	175
[그림 6- 3] 노인의 삶의 질 지수 DB 구축 틀 예시(안)	176
[그림 6- 4] 노인의 삶의 질 지수 세부 지표 구축 틀 시각화 예시(안)	176
[그림 6- 5] 노인의 삶의 질 지수 DB 세부 지표 국제 비교 구축 틀 예시	177
[그림 6- 6] 노인의 삶의 질 지수 DB 세부 지표 국제 비교 map 구축 틀 예시	178

Abstract <<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Quality of Life Indicator System for Older Persons

Project Head · Chung, Kyunghye

As the Korean population ages at a rapid pace, the impact of older persons' quality of life of the whole population is growing. Also, because of the limited ability of GDP to capture the multi-dimensional aspects of life, not onl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t also individual countries such as Korea have attempted to develop and apply social indicators to measure quality of life. However, there has been no study conducted to develop indicators exclusively to measure the quality of life of older Koreans.

This study consists of four parts. The first part reviews basic concepts and previous research on quality of life. The second part presents a quality of life indicator system for older persons that is composed of 6 dimensions and 22 indicators based on theoretical reviews and expert survey. In the third part, based on these indicators, the actual quality of life scores of older Koreans are reviewed in comparison with their counterparts in Sweden, Germany, the UK, and Spain. Also, gender and age-group comparisons were conducted and time series changes were examined for older Koreans' quality of life. The last part makes policy recommend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Co-Researchers: Oh, Younghee · Hwang, Namhui · Oh, Miae · Lee, Sunhee · Kim, Cheongseok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의 삶의 질이 한국 사회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노인에게 특화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일회성 작업에 그치고 있어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하였으며
 - 노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려는 현재까지의 시도들은 기술적인 (descriptive) 접근에 머물고 있어 지수화를 통한 계량화 작업이 부족함.
- 이에 노인의 삶의 질의 변화 추세를 영역별로 정확히 파악하고 노인의 하위 집단별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하고자 함.

□ 연구 목적

- 노년기 삶의 조건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삶의 질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지수화하고자 함.
 - 더불어 국제 비교와 지속적인 수정·보완 및 지표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4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2. 주요 연구 결과

□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주: *는 주관적 지표를 의미함.

- 1) 자료원의 제한으로 인하여 국제비교시 지수화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2) 국제비교와 국내의 인구집단별 및 시계열 추이관련 지수화 작업시 다양한 방법(미포함, 시나리오별 시산)을 적용하였음.

□ 노인의 삶의 질 지수화 결과

- 한국 노인의 삶의 질은 스웨덴과 영국, 스페인 등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한국 노인의 삶의 질의 하위 집단별 및 시계열 비교를 실시한 결

과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수치를 살펴보면,

- 영역별 삶의 질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안전 및 환경’ 영역 60.8점, ‘건강’ 영역 59.6점, ‘가족 및 공동체’ 영역 53.7점, ‘소득’ 영역 48.2점, ‘시민참여’ 영역 33.3점, ‘교육 및 여가’ 영역 15.2점.

○ 노인의 성과 연령에 따른 삶의 질 수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남자의 점수가 51.3점으로 여성의 42.9점보다 높음.
- 모든 영역에서 남자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남.
- 연령군별로 비교해 보면 전기노인(65~79세)은 48.7점으로 후기노인(80세 이상)의 39.6점에 비하여 높으며, 이러한 연령 군별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발견됨.

○ 노인의 삶의 질은 큰 폭은 아니지만 지난 10년간 높아져 왔음.

- 2004년의 삶의 질 점수는 40.4점이었으나 2014년에는 46.7점으로 약 6점 증가함.
- 이러한 증가 추이의 구체적인 양상은 영역별로 상이함.
- ‘소득’ 영역의 경우는 상향 추이가 분명하며, ‘건강’ 영역의 경우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발견됨.
- ‘교육 및 여가’ 영역의 경우는 최근 들어와 급속히 높아지는 경향임.
- ‘가족 및 공동체’와 ‘안전 및 환경’ 영역의 경우 상승세였으나 최근에 들어와 하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함.
- ‘시민참여’ 영역은 정체 상태로 보임.

3. 정책적 함의 및 과제

- 지표체계의 지속적인 개발 및 지수화 작업의 지속가능성 담보 방안 모색.
 - 더불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각화를 통한 활용도 제고.

- 지표체계 보완 방향 제시
 -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거시지표 개발.
 - 노인의 특성 및 사회적 변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개별지표 개발.
 - 영역별 개선 난이도를 고려한 지수화 방안 모색.
 - 개별지표의 선정과 지수화에 노인의 관점을 반영하려는 시도.

- 정책적 함의
 - 노인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노인자살률 저하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 필요.
 - 절대 수준이 매우 낮은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독려.
 - 최근 하향 추세인 가족 및 공동체 연대의식을 강화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삶의 질에 있어 성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경주.

*주요 용어: 삶의 질, 사회지표, 지표체계, 지수화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의 삶의 질이 한국 사회 전반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 통계청은 최근 인구추계에 기반하여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738만 1,000명이 되어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했다. 더불어 노인인구는 2025년에는 1,050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인복지정책 진단 결과 정책 영역별로 충분성과 적절성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정경희·강은나이·윤경·황남희·양찬미, 2016), 이러한 현상이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노인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노인 내부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어 노인의 제 특성별 삶의 질 차이를 파악하고, 그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 역시 증대하고 있다(강소량, 문상호, 2011; 오영희, 석재은, 권중돈, 김정석, 박영란, 임정기, 2005; 정경희, 염주희, 황남희, 김정석, 이금룡, 오신휘, 2013). 이에 노인의 삶의 질 변화 추세를 영역별로 정확히 파악하고 노인의 하위 집단별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체계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표체계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현황과 변화 추이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생활의 특정 측면과 발생하고 있는 변화를 측정 및 보고하고자 하는 사회보고적 기능을 ‘노인’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구현하고자 하는 것

이다(Biderman, 1966; Land, 1983; OECD, 1982).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반적인 정책의 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GDP를 넘어서는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측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OECD는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이하 BLI)’를 개발하였으며, 한국은 통계청을 중심으로 국민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통계지표를 생산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인의 삶의 질을 종합하여 지수화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까지 노인에게 특화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지표 틀에 대한 적용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박보미, 2012).

현재 노년기를 초점으로 한 다양한 사회지표 개발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일회성 작업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노인의 관점을 반영한 개별지표의 개발과 통계원 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더불어 노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려는 시도들은 현재까지 기술적인(descriptive) 접근에 머물고 있어 지수화를 통한 계량화 작업은 부족하였다.

이에는 자료원의 부족뿐만 아니라 지수화 작업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이 어렵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수화 작업은 한 번에 완성된다기보다는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하여 확립된다는 점에서 시작하는 시도 자체가 의미 있다고 하겠다.

노인을 중심으로 한 지수화 작업은 외국에서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진 편이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활기찬 노화 지수(Active Ageing Index, 이하 AAI)나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의 글로벌 에이지워치 지수(Global AgeWatch Index, 이하 GAI)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면 국가 수준에서 고령화 대응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지수화 작업의 사례로는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개발한 고령화 대응 준비지수(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이하 GAPI)와 정홍원·남상호·이윤경·정경화·박보마·김세진 등(2012)의 고령화 대응지수가 있다. 전자는 활기찬 노후에 초점을 둔 지수화 작업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으며, 후자는 거시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그러한 사회적 대응이 노인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노년기 삶의 조건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삶의 질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종합적으로 지수화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제 비교와 지속적인 수정·보완 및 지표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 기반 구축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현황을 영역별로 측정하며, 그 수치를 노인의 하위 집단별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역별로 균형 있는 삶을 구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계량적 자료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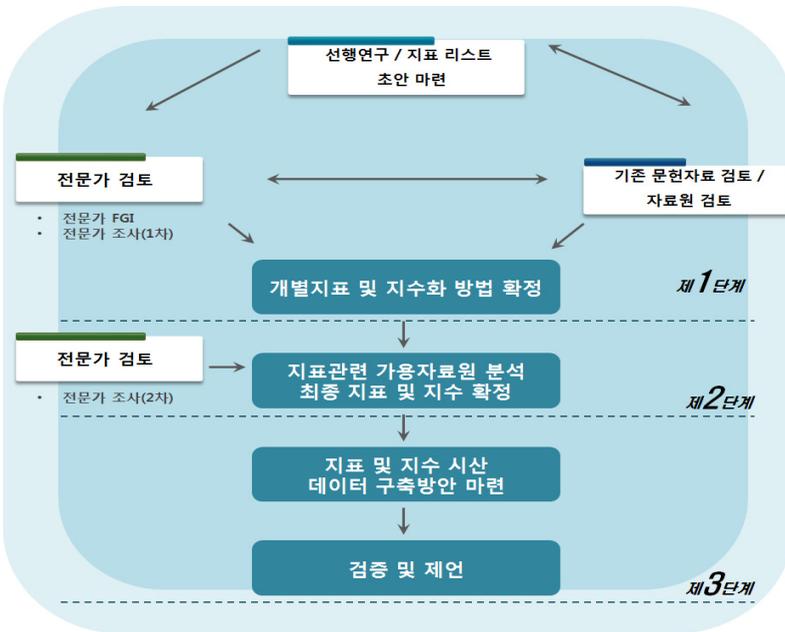
연구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그림 1-1 참조).

첫째, 개별지표를 개발하기에 앞서 관련 기본 개념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노인의 삶의 지향성에 대한 논의와 노인 또는 고령화에 초점을 둔 지표체계 개발 및 지수화 작업을 검토하여 본 연구가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 인구를 대상으로 지수화를 실시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지수화 작업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

12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였다. 관련 작업의 확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구축 사례 또한 검토하였다. 둘째, 연구진 회의를 거쳐 도출된 안을 기반으로 하여 자문회의와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다. 이는 지표 개발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판단에 기초한 타당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와 더불어 활용 가능한 자료원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지표체계와 개별지표를 확정하였다. 셋째, 확정된 지표체계에 기초하여 지수를 시산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작업이었다. 마지막으로 시산 결과 도출된 최종 영역별 삶의 질 수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삶의 질 수준, 노인의 다양한 특성별 삶의 질 수준, 노인 삶의 질의 시계열적인 변화 추이 검토에 기초하여 도출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고, 지수화 작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향후 과제도 제안하였다.

[그림 1-1] 연구 진행도



제 2 장

기본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기본 개념 검토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

기본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

본 장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에 앞서 관련된 기본 개념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 결과는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에 있어 방향성과 범위를 확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제1절 기본 개념 검토

1. 노인의 정의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노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용이하지 않다. 노인에 대한 정의는 개인에 따라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노화의 과정이 생물학적 노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노화와 사회적 노화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변화이며 각 노화의 변화 속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이다(정경희, 김경래, 오영희, 이윤경, 황남희, 이선희, 2015). 따라서 각 개인이 경험하는 노화의 양상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노인 집단 내 다양성이 존재하게 된다. 더불어 개인이 생활하는 사회에서 노인의 위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개인이 자신을 자연스럽게 노인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는 영향을 받는다. 즉 개인이 경험하는 객관적인 노화의 양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자신을 노인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이 중첩되어 작동한다는 것이다.

한편 노인에 대한 사회적 정의도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 한 사회는 각

각의 연령 규범에 기반하여 연령에 따른 사회적 역할을 표준화하고 정책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통하여 제도화하고 있다(Kohli, 2007). 이러한 현상을 Kohli(1988)는 생애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life course)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의 연령에 따른 사회적 역할이 표준화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제도별 선정 기준에 일반화된 연령이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노인복지 정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연령은 65세이다.¹⁾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65세 이상 중 소득하위자 70%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자 중 기능 상태에 대한 등급판정에 의하여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65세라는 점은 현재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노인을 65세로 정의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양한 통계자료에서도 노인은 65세로 정의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구추계에 의하면 인구는 크게 14세 이하까지는 유소년인구, 15~64세는 생산가능인구, 65세 이상을 고령인구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를 산출하고 있다.²⁾ 또한 이러한 지표는 국제 비교의 기준이 되고 있다.³⁾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조작적 정의를 65세 이상의 구성원으로 하고자 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노인의 삶의 질 지표는

1) 개별정책 선정 기준은 정경희, 김경래, 오영희, 이윤경, 황남희, 이선희(2015)에 정리되어 있음.

2)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할 고령인구로 정의되며 2015년 기준 17.5명이며 2025년에는 29.4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노령화지수는 유소년 100명당 고령인구수로 2015년 기준 93.1명에서 2017년에 100명을 넘어서고 2025년에는 165.6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통계청, 2016).

3) 유엔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통계청과 동일한 연령 구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회원국을 고려하여 60세 이상 인구, 80세 이상 인구에 대한 비율도 제시하고 있음(정경희, 김경래, 오영희, 이윤경, 황남희, 이선희, 2015).

65세 이상의 삶에 초점을 두어, 통계 또한 65세 이상에 대하여 산출하고자 한다.

2. 삶의 질 개념

산업화, 전문화 등을 통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삶의 대한 만족 수준이 그러한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의 저하, 고령화의 급속화, 높은 자살률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등장으로 관심이 고조되었는데,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삶의 질은 이를 구성하는 차원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삶의 만족도, 생활 만족도, 심리적 복지감 등의 용어로 정의된다. 용어 자체의 포괄적이며 함축적인 특성과 함께, 삶의 질을 이루는 요인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한형수, 2008; Eurostat, 2015).

삶의 질은 초기에는 소득수준, 생활 여건 등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한 협의의 개념으로 논의되었다. 삶의 질의 주된 의미를 재산, 지식 등의 통제할 수 있는 조건 및 기회로 정의한 것이다(석현호, 우천식, 이재열, 윤순진, 홍기석, 김태종 등, 2013). 또한 상대적으로 측정이 수월하며, 비교를 통하여 우위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객관적 기준이 반드시 높은 삶의 질 수준을 담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최아름, 정홍주, 2013; 한형수, 2008; Berg, Hassing, McClearn, Johanson., 2006)과 개개인의 생활양식 등의 주관적 평가 요인 등이 배제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후 주관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가세되었으며, 특히 미국의 삶의 질

연구자인 Campbell(Campbell, 1981; Campbell & Converse, 1972)을 기점으로 하여 개인의 주관적 인식, 가치 등이 삶의 질의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석현호·우천식·이재열·윤순진·홍기석·김태종 등, 2013). 현재까지의 논의에서 주관적인 삶의 질은 행복감, 삶의 만족도와 혼용되고 있다. 행복감이 비교적 단기간에 나타나는 감정적 측면이라면,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내린 전반적 평가(Helliwell & Putnam, 2004)라 할 수 있다. 주관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은 이와 같이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논의되던 객관적 삶의 조건들은 건강, 경제, 대인관계 등 각 영역별 만족도 등의 개념을 통해 측정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다(석현호 등, 2013).

종합할 때 삶의 질은 객관적 조건하에서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구성하고자 하며, 개별지표에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여 삶의 질 수준이라는 결과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1세기 이후 GDP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중심의 삶의 질 측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사회지표체계를 개발하고 그에 상응하는 통계자료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11년에 삶의 질에 대한 기본틀 및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2017년부터 삶의 질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공공기관과 민간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지수화 작업 및 정책적 제언 등을 펼치고 있다.

3. 노년기 삶의 지향성

노년기의 삶의 질은 한 인간이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욕구의 충족 수준에 영향을 받게 되며,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지향성이 구현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와 관련해서는 Maslow(1970)의 욕구 5단계 이론이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다. 이 모델에서는 인간의 다섯 가지 욕구 수준을 생리적 욕구, 안전적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자기존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⁴⁾

한편 사회문화·정책적 지향성으로는 2002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 고령화 회의에서 채택된 유엔의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이하 MIPAA)과 세계보건기구(WHO)의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 a Public Policy Framework)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MIPAA의 주제)⁵⁾중

4) 초기에는 이러한 욕구 충족의 엄격한 위계성이 강조되었지만 Maslow 자신도 이러한 위계질서는 엄격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욕구의 동시성과 문화적 환경 및 연령에 따른 각 욕구의 구성과 위계성의 차이가 지적되고 있음 (Goebel & Brown, 1981; Kenrick, 2010; Kenrick, Griskevicius, Neuberg, Schaller,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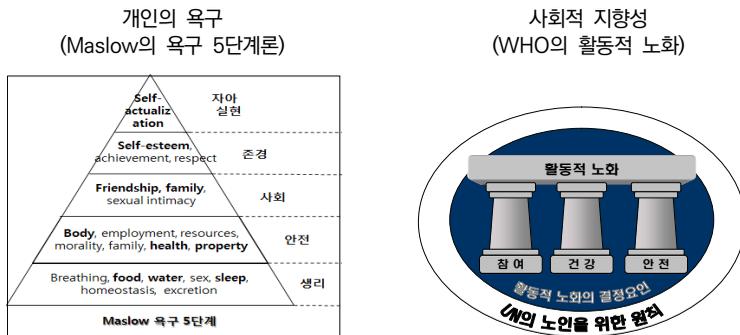
5) 핵심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전략에 관한 내용은 정경희, 이윤경, 이소정, 이은진, 조혜현(2008)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음.

- ① 모든 사람의 인권과 모든 노인의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
- ② 노년기의 빈곤 해소라는 목표 및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 대한 재확인을 통해 노후 안정성 확보
- ③ 노인들이 소득활동과 봉사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정치·사회적 생활에 충분하고도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의 역량 강화
- ④ 노인들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평생교육 및 지역사회참여 등을 통해 노후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친 자기계발, 자아실현 및 복지의 기회 제공
- ⑤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향유와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의 철폐

20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특히 노인 개개인의 삶과 밀접한 주요 지향성으로는 모든 노인이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성차별 포함)을 경험하지 않아야 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의 확보, 다양한 경제·정치·사회적 생활에의 충분한 참여, 평생에 걸친 자기개발, 자아실현 및 복지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생활하는 것이다. 또한 WHO는 고령화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참여, 안전이 중요한 3대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⁶⁾

[그림 2-1] 개인의 다양한 욕구 및 사회적 지향성



자료: 1) 정경희, 이윤경, 김경래, 최혜지, 김주현, 이주연 등(2017), 고령화 시대의 노인의 역할 모색, p. 56(그림 3-8) 재구성.

2) WHO. (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 ⑥ 성차별의 철폐를 통한 노년기의 성평등 달성
 - ⑦ 사회개발에 있어서의 가족, 세대 간 상호의존성, 연대와 호혜주의의 중요성 인식
 - ⑧ 예방 및 재활 관련 보건지료를 포함한 노인을 위한 보건지료, 지원, 사회적 보호의 제공
 - ⑨ MIPAA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전환함에 있어 정부, 시민사회, 민간영역, 노인 간의 협력 관계 촉진
 - ⑩ 개도국의 과학적 연구와 전문적 지식을 강화하고, 특히 고령화가 개인, 사회, 건강 분야에 갖는 영향력에 초점을 둔 기술적 잠재력 구현
 - ⑪ 노화 과정에 있는 노인 고유 상황과 노인들의 특수한 환경,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노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 모색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6)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9개의 행동강령과 52개의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있음(정경희 등, 2008).

이같은 개인의 다양한 욕구 및 사회적 지향성에 관한 논의에 기초해 볼 때, 빈곤과 질병을 최소한으로 경험하며 다양한 경제·정치·사회적 생활에 충분히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하는 삶이 비로소 높은 삶의 질을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아 삶의 안정성과 사회적 통합이 확보될 때 노인의 삶의 질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본 절에서는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삶의 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는 관련 지표체계에 있어서도 이어진다. 본 절에서는 이 중 삶의 질의 본질적 개념을 다루거나 노인을 중심으로 한 지표에 국한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지수화 작업을 수행한 연구도 살펴볼 예정이다.

1. 삶의 질 지표체계 관련 선행연구

삶의 질 지표체계에 대한 논의는 국가 및 작성 주체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한다. 지표를 통해 살펴볼 대상의 범주, 대상 시점(현재·미래), 범주(미시적·거시적) 및 성격(객관성·주관성) 등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지표체계는 다양화된 모습으로 관찰된다. 이 중 국제기구 및 개별국가, 주요 학자를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해외 사례

1) 국제기구

가)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OECD는 회원국을 중심으로 Better Life Initiative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매년 BLI를 발표하고 있다. 기존 36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2016년 기준 2개국(이탈리아, 터키)이 추가되어 총 38개 국가의 삶의 질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BLI는 삶의 질과 관련하여 총 11개의 영역, 2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11개 영역은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점수의 국가별 분포를 통하여 국가별 웰빙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BLI 홈페이지(www.oecdbetterlifeindex.org)를 통하여 각국 홈페이지 이용자들은 11개 영역에 대해 각자가 판단하는 가중치(중요도)를 부여하여 국가별 웰빙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28위로 나타났다.

한편 11개 영역은 주거, 소득, 직업 등의 객관적 특성을 지닌 영역과 공동체, 삶의 만족 등 주관적 특성을 지닌 영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영역별로 포함된 지표수는 상이하다. 구체적인 특성은 <표 2-1>과 같다.

(표 2-1) 더 나은 삶 지수(BLI) 개요

영역	지표	정의
주거	주거 관련 지출	-주거 관련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및 수선유지비용의 합이 가계의 순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본 시설이 있는 가구	-단독으로 사용하는 실내 수세식 화장실 보유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
	개인당 방 수	-주택의 방 수를 거주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
소득	가계금융자산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계 기준 가계 보유 금융자산
	가계 순가처분소득	-직접세, 사회보장부담금,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가계의 임금, 재산 및 이료, 소득 등 순가처분 소득
직업	직업안정성	-전년도 고용된 사람 중 다음 연도 실업자가 된 사람의 전년도 고용자 수 대비 비율
	개인소득	-정규노동자의 연평균 소득
	고용률	-근로가능인구(15~64세)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에서 고용(1시간 이상)된 인구 비율
	장기실업률	-노동인력에서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
공동체	관계망의 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교육	기대교육기간	-5세 어린이가 39세까지 공식교육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되는 평균기간
	학생들의 역량	-독해, 수학 및 과학에 관한 PISA 평가 점수
	교육성취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을 보유한 성인(15~64세)의 비율
환경	수질	-살고 있는 지역의 수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
	대기오염	-인구 10만 명 이상 대도시의 m ² 당 미세먼지 농도
시민참여	규칙 제정예의 참여	-법과 하위 규정 도입 시 이해당사자의 공식적 참여 수준
	투표 참여율	-선거에 참여한 인구 비율
건강	자기보고 건강상태	-전반적인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한 비율
	기대수명	-현재 사망률에 근거한 평균적 기대수명
삶의 만족	삶의 만족도	-전반적 삶의 만족도(0: 매우 불만족~10: 매우 만족) 평가에 대한 평균
	안전	살인율
일과 삶의 균형	야간보행 안전도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통상적인 날에 여가 및 개인적 돌봄(수면, 식사 포함)에 사용한 시간
	장시간 근로자	-주 50시간 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 비율(자영업자 제외)

자료: 1) 외교부 주오이스디대표부. (2016). 2016년 OECD Better Life Index 주요 내용.

2) BLI 홈페이지, www.oecdbetterlifeindex.org에서 2017. 3. 27. 인출.

나) 활기찬 노화 지수(Active Ageing Index)

AAI는 각기 다른 삶의 영역에서 노인들의 기여 및 잠재력을 인정하는 생산적 노화를 지향한다. 궁극적으로 정책입안자들의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설계되었다. 노인의 독립적 생활, 노동시장 참여, 사회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4개의 영역 및 총 2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영역은 고용, 사회참여, 독립적이고 건강하며 안전한 생활, 생산적 노화를 위한 수용성 및 제반 환경의 4개로 구성된다. 개별지표는 영역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영역별 지표수는 4~8개 사이이다.

지표 선정은 6개의 원칙으로 이루어졌으며, 현 세대의 노인을 초점으로 하는가(단, 그들의 평생 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반영), 성과 측정이 가능한가, 객관성이 담보되는가, 시계열적 지속성이 담보되는가, 국가별 적용시 유동적인가, 마지막으로 다양한 하위 집단별(국가별, 성별 등) 비교가 가능한가 여부이다. 구체적인 개요는 <표 2-2>와 같다.

(표 2-2) 활기찬 노후 지수(Active Ageing Index) 개요

영역	지표		정의
고용	55~59세 고용률		-좌동
	60~64세 고용률		-좌동
	65~69세 고용률		-좌동
	70~74세 고용률		-좌동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		-55세 이상 인구 중 기관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에 최소 주 1회 이상 참여한 비율
	자녀, 손자녀 등 돌봄		-55세 이상 인구 중 자녀/손자녀를 최소 주 1회 이상 돌본 비율
	노인(장애인) 돌봄		-55세 이상 인구 중 노인 또는 장애를 가진 친인척을 최소 주 1회 이상 돌본 비율
	정치참여		-55세 이상 인구 중 다양한 형태로 정치활동에 참여한 비율
독립적,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신체활동		-55세 이상 인구 중 거의 매일 신체활동 혹은 스포츠 활동을 수행한 비율
	의원 및 치과 등 접근성		-55세 이상 인구 중 의료, 치과 미치료율
	독립적 생활형태		-75세 이상 인구 중 독거 혹은 부부가구 비율
	경제적 안정성	중위소득	-65세 미만 가처분 중위소득 65세 이상 가처분 중위 소득 비율
		빈곤위험 부재	-65세 이상 빈곤위험에 처하지 않은 비율
		물질적 박탈 부재	-65세 이상 물질적 박탈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
	신체적 안전		-55세 이상 인구의 야간보행 안전도
평생학습		-55~74세 인구 중 4주간 교육 혹은 훈련을 받은 비율	
생산적 노화를 위한 수용성 및 제반환경	55세 시 기대수명		-좌동
	55세 시 건강수명		-좌동
	정신건강		-55세 이상 인구의 정신적 건강
	정보통신기술(ICT)이용		-55~74세 중 주 1회 이상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율
	사회적 관계		-55세 이상 인구 중 월 1회 이상 친구, 이웃 등을 만난 비율
	교육기회		-55~74세 중 고등교육 이상을 수료한 비율

자료: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014). Active Ageing Index 2014 Analytic Report. p. 15.

다)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의 글로벌 에이지워치 지수 (Global AgeWatch Index)

GAI는 유엔 경제사회국(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세계은행(the World Bank),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네스코(UNESCO) 및 갤럽(Gallup World Poll)에서 생산한 국제 데이터로부터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에 의해 개발되고 구축된 지수이다. 이 지수는 노령화, 건강, 사회 보장 및 환경에 관한 4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 자문 패널의 도움을 받아 구축되었다. GAI는 96개국 노인의 사회 및 경제적 삶의 현황을 살펴보고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책 및 실천의 영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AI는 소득 안정성, 건강상태, 능력(capability), 환경(enabling environment)의 4가지 영역(13개 지표)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 안정성은 4개의 개별지표 - 연금 소득대체율, 노년기 빈곤율, 노인의 상대적인 복지 및 생활수준, 1인당 GNI - 로 구성된다. 건강 상태는 60세의 기대수명, 60세의 건강수명, 심리적 건강상태의 3개 지표로 구성되며, 능력과 관련해서는 노인의 사회적 자원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률과 교육기회의 2개 지표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환경 영역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 물리적 안전, 시민적 자유,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같은 대인적 혹은 물리적 환경 요소의 4개 지표로 구성된다. 환경 영역의 지표들은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자율성을 지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라 볼 수 있다. 최근 발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96개국 중 60위로 나타났다.

(표 2-3) 글로벌 에이지워치 지수(Global AgeWatch Index) 개요

영역	지표	정의
소득 안정성	연금 소득대체율	-65세 이상 연금수급자의 연금 소득대체율
	노인 빈곤율	-60세 이상 가구 중 중위소득 50% 미만에 속하는 비율
	상대적 복지 수준	-60세 이상 인구의 평균 소득/소비 대비 전체 인구의 평균 소득/소비
	1인당 GNI	-1인당 GNI
건강 상태	60세의 기대수명	-좌동
	60세의 건강수명	-좌동
	심리적 건강상태	-‘인생에 중요한 목적이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50세 이상 비율 대비 35~49세 비율
능력	고용률	-55~64세의 노동시장 참여율
	교육기회	-60세 이상 인구의 고등교육 이상 이수율
환경	사회적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등이 있다고 응답한 50세 이상의 비율
	물리적 안전	-50세 이상의 야간보행 안전도
	시민적 자유	-‘각자의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에 대해 만족한 50세 이상의 비율
	대중교통 접근성	-50세 이상의 대중교통 만족도

자료: HelpAge International. (2015). Global AgeWatch Index 2015 - Methodology update-.

2) 개별 국가

가) 일본의 국민 웰빙 지표(Measuring National Well-being)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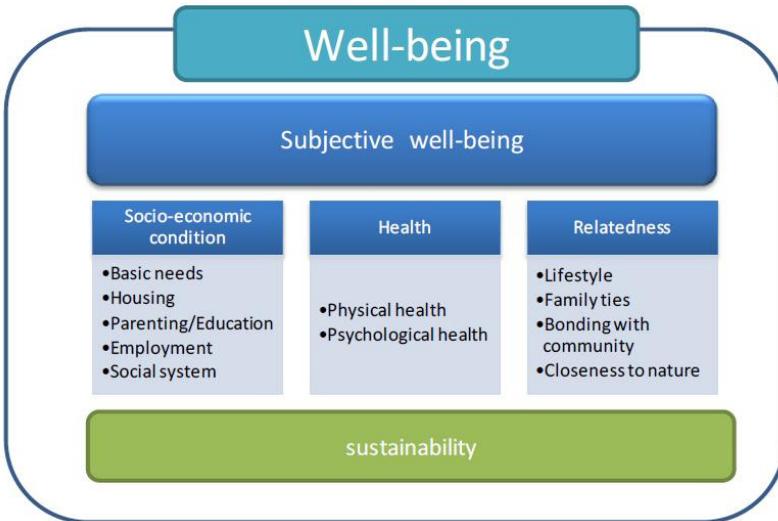
일본의 국민 웰빙 지표(Measuring National Well-being, 이하 MNW)는 내각부 웰빙측정위원회가 2010년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개인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개선되는 것은 무엇이고 악화되는 것은 무엇인지 관찰하여, 국민들이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구축되었다(석현호 등, 2013).

일본의 MNW는 주관적 웰빙, 사회경제적 조건, 건강, 관계성, 지속가능성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역별 하위 영역 구성은 다음과 같다.

7) 일본의 행복지표 관련 내용은 석현호 등(2013, p. 37), 이희길 등(2013, p. 13) 두 자료 원을 활용하여 작성함.

사회경제적 조건은 기본적 욕구, 주거, 육아와 교육, 고용, 사회적 시스템 등 5개의 하위 영역, 건강은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 신체 및 심리적 건강 등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관계성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은 모두 4개로 라이프스타일, 가족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친화도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은 현재의 웰빙에는 결정적인 영향력이 없지만 미래의 웰빙에는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지표들이 포함되었다.

[그림 2-2] 일본의 국민 웰빙 지표(Measuring National Well-being) 개념틀



자료: 석현호 등. (2013). p. 37에서 재인용.(원자료: The Commission on Measuring Well-being, Japan(2011). Measuring National Well-being-Proposed Well-Being Indicators.)

영역별 세부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4>와 같다. 대영역별 하위 영역별로 지표 수는 상이하며, 개별지표에 대한 대상층과 고려 사항을 등을 요약하였다.

<표 2-4> 일본의 국민 웰빙 지표(Measuring National Well-being)의 영역별 지표

대영역	하위 영역	지표명	대상층		고려사항
주관적 웰빙 (6)	주관적 웰빙 (6)	현재 주관적 행복 단계(level)	개인	전 연령	-삶의 만족도/확장된 삶의 만족도 지표로 보완 가능
		이상적인 행복의 단계(level)	개인	전 연령	-
		미래 기대하는 행복의 단계(level)	개인	전 연령	-미래(기간)에 대한 정의 고려 필요
		상호의존성(relativeness)	개인	전 연령	-
		정서적 경험(affective experience)	개인	전 연령	-부탄에서 활용되는 지표가 유용
		가구 내 행복격차(happiness gap within the household)	가구	전 연령	-전체 가구의 행복 상태에 대한 데이터 확보 필요
사회 경제적 조건 (57)	기본적 욕구 (14)	절대빈곤율	개인	전 연령	-절대빈곤선 설정방법 논의 필요
		물질적 박탈 비율	개인	전 연령	-
		상대적 빈곤율	개인	전 연령	-공표된 결과 부재
		식품안전성	개인	전 연령	-
		상대빈곤율	가구	전 연령	-동등한 가치분 소득 계산에 대한 논의 필요
		임대료, 대출, 공공요금 등을 지불할 수 없는 가구 비율	가구	전 연령	-공공요금에 대한 정의 합의 필요
		소비자 사기(사기금액, 상법에 대한 불법행위 보고 사례, 상담 건수)	(지역)사회	전 연령	-대형 조사를 통한 자료원 확보 필요
		물질적 부에 대한 주관적 평가	(지역)사회	전 연령	-
		아동빈곤율	개인	아동	-
		파산율(100만 명당)	개인	성인	-인구사회학적 환경에 따라 파산율 상이
		자살률	개인	노인	-
고독사율	개인	노인	-고독사에 대한 정의 불분명		

30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대영역	하위 영역	지표명	대상층		고려사항
주거 (9)		고독사를 두려워하는 비율	개인	노인	-고독사에 대한 정의 불분명
		미래 생활비 지출에 대한 두려움	개인	노인	-국가의 공식조사 자료 부재
		노숙자 수	개인	전 연령	-노숙인에 대한 국가별 정의 상이
		임대료/주택담보대출에 부담을 갖는 가구	가구	전 연령	-
		주거만족도	가구	전 연령	-
		박탈된 주택지표(소음, 밀도, 채광 등)	가구	전 연령	-충분한 공간에 대한 기준 설정 논의 필요
		지역사회 쾌적성	(지역)사회	전 연령	-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지역)사회	전 연령	-방사선 수준에 대한 불안도 포함 필요
		지역사회 안전성	(지역)사회	전 연령	-
		편의시설 근접성	(지역)사회	전 연령	-
	육아와 교육 (14)	방과 후 홀로 있는 아동 수	개인	아동	-
		교육기회	개인	전 연령	-의무교육 수준에 대한 합의된 정의 부재, 세대 간 격차 존재
		(산)부인과의 지역 간 격차	(지역)사회	전 연령	-
		생활기술의 습득 (의사소통, 타인과의 갈등 해결, 도움 제공 등)	개인	아동	-
교육환경에 대한 아동 만족도		개인	아동	-	
아동-부모 간 친밀한 의사소통 여부		개인	아동	-	
	보고된 따돌림 수	개인	아동	-가용 자료원 미확보	
	고등학교 중퇴율	개인	아동	-가용 자료원 미확보	
	양육 만족도	개인	성인	-민간단체를 통한 조사 자료원만 존재	
	결혼 만족도	개인	성인	-민간단체를 통한 조사 자료원만 존재	
	배우자(남)의 육아 참여	개인	성인	-	
	간호학교(유치원)의 대기자 어린이 수	가구	성인	-가용 자료원 미확보	
	경제적 이유로 고등학교(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젊은 인구 수	가구	성인	-응답 대상(부모/아동) 고려 필요	
	양육지원 만족도	(지역)사회	성인	-	
	육아휴직 비율	개인	성인	-출산 전 퇴직한 여자 비율 고려 부재	

대영역	하위 영역	지표명	대상층		고려사항	
고용 (15)	고용	비랍직하지 않은 (undesired) 계약직 비율	개인	전 연령	- '비랍직하지 않은'에 대한 정의 부재	
		실업자 가구 수	가구	전 연령	-	
		여성근로자 고용 기업체 수	(지역)사회	전 연령	-	-가용 자료원 미확보
		연구 관련 근로자 수	(지역)사회	전 연령	-	-
		니트(NEET)족 수	개인	청년	-	-
		청년실업률	개인	청년	-	-
		청년기업가 수	개인	청년	-	-
		창업희망 청년 수	개인	청년	-	-가용 자료원 미확보
		직업만족도(보상 측면)	개인	성인	-	-
		지원자 중 유효구인율	개인	성인	-	-
		과로사에 대한 두려움	개인	성인	-	-
		직장 내 성희롱 고소율	개인	성인	-	-현 재직 중 경험만 포함
		장기실업자 수	개인	성인	-	-
	근로희망자 중 실업자 수	개인	성인	-	-	
	사회참여율(80세 이하)	개인	노인	-	-취업은 사회참여에 포함	
	사회적 시스템 (5)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개인	전 연령	-	-정부에 대한 신뢰로 측정 가능
		공적연금, 건강보험 미가입 인구 수	개인	전 연령	-	-
		공공안전에 대한 인지	개인	전 연령	-	-가용 자료원 미확보
		대중의견 수렴 시스템에 대한 인지	개인	전 연령	-	-가용 자료원 한계 (단년도 조사)
	유권자 투표율	(지역)사회	전 연령	-	-투표 참여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건강 (21)	신체적 건강 (5)	장기요양 비율	개인	전 연령	- '장기(기간)', '포함되는 질환'에 대한 논의 필요
영유아 사망률			개인	아동	-신생아·유아사망률 구분 필요	
아동 질병유병률			개인	아동	-	
ADL 제한율			개인	노인	-	
허약노인 수			개인	노인	-	-가용 자료원 한계
심리적 건강 (9)		자살자 수	개인	전 연령	-	
		스트레스 정도	개인	전 연령	-	
		자살기도 수	개인	전 연령	-	
		상담 만족도	(지역)사회	전 연령	-	
		보고된 아동학대 수	개인	아동	-	
		아동보호기관(상담자) 수	(지역)사회	아동	-	
		발달장애아동 수	개인	아동	-	-지표활용에 대한 찬반
		우울증이 있는 부모 수	개인	성인	-	-
		치매유병률	개인	노인	-	-공적 장기요양보호율로 대체(안)

32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대영역	하위 영역	지표명	대상층		고려사항
	신체 및 심리적 건강 (7)	평균수명	개인	전 연령	-
		의료서비스 만족도	(지역)사회	전 연령	-
		환자와 부양가족의 소진	(지역)사회	전 연령	-
		간병 관련 외부지원의 만족도	(지역)사회	전 연령	-
		보고된 가정폭력 수	개인	성인	-
		임산부 사망률	개인	성인	-
		주관적 건강평가	개인	노인	-
	라이프스타일 (7)	여가시간	개인	전 연령	-
		시간활용(분배) 만족도	개인	전 연령	-
		공익근로 희망자 수	개인	전 연령	-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성	사회	전 연령	-
		아동의 시간관리	개인	아동	-
		유급휴가의 실제 활용	개인	성인	-가용 자료원 한계
		IADL 제한율	개인	노인	-
관계성 (33)	가족관계 (8)	가족, 친구와의 친밀도	개인	전 연령	-
		1인가구 수	개인	전 연령	-
		고립감	개인	전 연령	-고립감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 다양
		위기상황 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 유무	개인	전 연령	-도움 제공/수혜 측면 다양
		가족생활 만족도	가구	전 연령	-
		고립감을 느끼는 아동 및 성인 수	개인	아동	-
		독거노인 수	개인	노인	-
	공동체와의 관계 (13)	비동거 가구원 수	가구	성인	-
		스스로 인식한 사회 내 유용성	개인	전 연령	-민간단체를 통한 조사자료원만 존재
		일반적 신뢰	개인	전 연령	-일반적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 양측 고려 필요
		문제가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인구 수	개인	전 연령	-
		지역사회 내 세대 간 의사소통	개인	전 연령	-
		지역사회 참여	가구	전 연령	-
	인터넷 기반 커뮤니티 형성	사회	전 연령	-지표 포함 여부 논의 필요	
	현 거주지에서 지속 거주하고 싶은 인구 수	(지역)사회	전 연령	-	
	애타주의	개인	전 연령	-	

대영역	하위 영역	지표명	대상층		고려사항
지속 가능성 (16)		은둔형 외톨이 비율	개인	아동	-
		소외감	개인	아동	-
		여가장소	개인	아동	-
		지역사회 보호	개인	아동	-
		NPO, NGO 등 참여 빈도	개인	성인	-
	자연친화도 (5)	자연경외의 정도	개인	전 연령	-
		지역자연 및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	개인	전 연령	-
		현지화(localtradition)에 대한 인지 정도	개인	전 연령	-
		환경이슈에 대한 이해 정도	개인	전 연령	-
		재해지역 대피율	(지역)사회	전 연령	-
	지구온난화(1)	온실가스 배출량	-	-	-
	자원 재활용 (3)	자원생산성	-	-	-
		주기적 사용률	-	-	-
		최종 처분량(액)	-	-	-
	대기환경 (2)	대기오염에 대한 표준 기준 달성률	-	-	-
열대야		-	-	-	
수질환경 (3)	공공용수의 환경품질 기준 유지 상태	-	-	-	
	지하수의 환경품질 기준 유지 상태	-	-	-	
	수입된 가상용수의 양	-	-	-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위험(1)	화학물질 배출량	-	-	-	
생물다양성 (2)	멸종위기종의 비율	-	-	-	
	멸종위기종의 보존 관련 전반적 지표	-	-	-	
생태발자국(1) (ecological footprint)	생태발자국	-	-	-	
소비자 행동 (2)	환경친화적 주거	-	-	-	
	공정거래물품 소비	-	-	-	
기업의 사회적 책임(1)	사회적 공헌 기업 수	-	-	-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개별지표의 수를 의미함.

자료: The Commission on Measuring Well-being, Japan. (2011). Measuring National Well-being-Proposed Well-Being Indicators.

나) 캐나다의 웰빙 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⁸⁾

캐나다의 웰빙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이하 CIW)는 ‘캐나다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진보의 의미’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한 범 국가적 지표 사업으로 1999년 캐나다의 지도자, 전문가, 대중 등 각계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다.

현재 워털루대학의 응용보건학부를 중심으로 한 CIW 네트워크 그룹이 이를 담당하며, 외부 위원으로 CIW 고문위원회(CIW Advisory Board), 국외전문가그룹 (International Advisory Network), 연구자문위원회 (Canadian Research Advisory Group), 학내그룹(Waterloo Development Communication) 등이 참여한다(석현호 등, 2013; p.27).

2011년에 CIW 사업이 워털루대학으로 이관되면서 처음으로 영역별 삶의 질 지수와 종합지수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17년 기준 총 8개 영역(생활수준, 건강인구, 공동체 활력, 민주적 참여, 여가 및 문화, 시간이용, 교육, 환경) 및 64개 지표(대영역당 8개 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현재 64개 지표를 통합하여 1개의 CIW 지수가 발표되고 있다.

워털루대학의 보고서(2016)에 따르면, 1994~2014년 사이, 캐나다의 GDP는 38.0% 증가하였으나, 웰빙수준(CIW)은 동 기간 9.9%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 영역별로는 교육 영역의 삶의 질이 동기간 32.8%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가 및 문화는 9.3% 감소한 것으로 보고된다.

8) 캐나다의 삶의 질 지표는 다음 두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① 석현호 등(2013, p. 37). ② 워털루대학 홈페이지 <http://uwaterloo.ca/>(2017. 6. 23. 인출)

(표 2-5) 캐나다 웰빙 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개요

대영역	소영역	세부영역	지표
생활 수준	-	평균 및 중위소득	경제적 가정(economic family)의 세후 중위소득
		소득과 부의 분배	지니계수(소득격차)
		경제보호	캐나다 최저생계비 기준(LICO) 이하의 저소득층 비율
			적정(혹은 심각한) 수준으로 식량이 부족한 가구 비율
			노동력
장기실업률			
고용의 질(CIBI index)			
SCAR(Shelter Consumption Affordability Ratio)에 근거한 주택구입능력			
건강 인구	-	개인적 웰빙	스스로 (매우)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신체적 건강	자가보고 당뇨병 환자 비율
		기대수명/사망	기대수명
		정신건강	스스로 정신이 (매우)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기능적 건강	건강하거나 일상생활 제한이 없는 비율
		생활양식 및 행위	12~19세 청소년 중 매일(혹은 가끔) 흡연하는 비율
		공공보건	지난 한 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건강관리	단골의사가 있는 비율		
공동체 활력	사회적 관계	사회 참여	지역사회에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비율 그룹 또는 단체를 통한 공식적 자원봉사 참여 비율
		사회적 지원	5명 이상의 친한 친구가 있는 비율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비율
		지역사회 안전	밤에 혼자 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 범죄 기증 지수
	사회적 규범 및 가치	타인 및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지난 5년간 인종·문화적 특성으로 차별을 경험한 비율 대부분(많은)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비율
	민주적 참여	-	참여
-			
-		리더십	연방의회 여성 비율
			캐나다의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상당히) 만족하는 비율 연방의회에 매우(상당히) 신뢰하는 비율
여가 및 문화	-	참여	전날, 사회여가활동에 참여한 비율
			전날, 예술과 문화활동에 보낸 평균 시간
			15분이상 지속되는 신체활동에 참여한 월평균 빈도
			작년 한 해, 예술공연 관람 횟수
		문화여가단체에서 자원봉사한 평균 시간	
집에서 최소 80km 떨어진 휴양지로의 평균 휴가 일수			
총 가계지출 중 여가 및 문화활동에 지출하는 비율			
기회	모든 국립공원(사적지) 평균 방문 횟수		

36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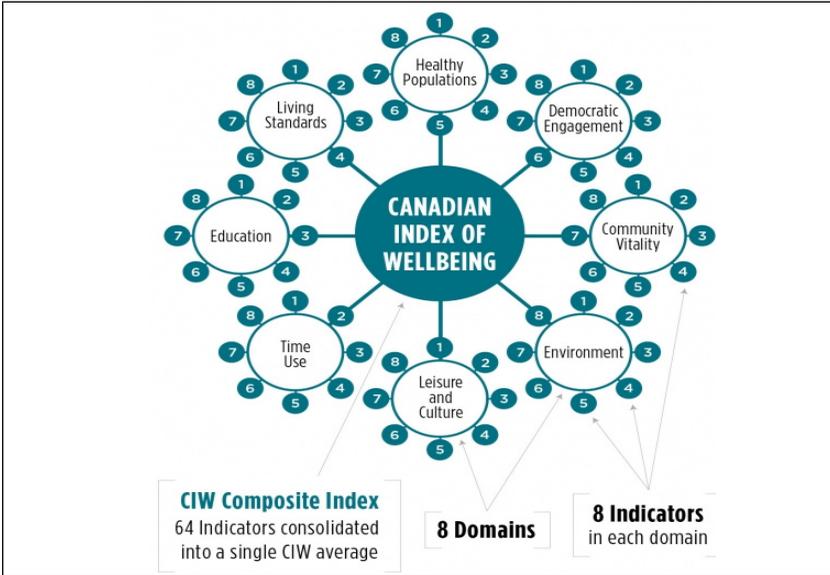
대영역	소영역	세부영역	지표
시간 이용	-	시간	주된 직장에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25~64세 비율
			일일 평균 친구와 보내는 시간
		시기(timing)	비정기적으로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비율
			임금을 받고 일하는 개인의 평균 근무시간
속도(tempo)	탄력근무제를 이용하는 비율		
			정규 평일 근무시간 활용 비율
		시간성(temporality)	시간압박이 높다고 말하는 근로연령기 성인(15~64세)의 비율
			양질의 수면시간(7~9시간)을 보고하는 비율
교육	-	사회 및 정서적 역량	0~14세 어린이와 대화 기반 활동에 소비한 시간
		기본적	아동 보호구역의 0~5세 아동의 비율
		교육지식과 기술	공립학교 교육자 비율
		전반적 학업성취, 달성 및 참여	공립학교 학생당 평균지출
			교육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25세 이상 인구 비율
	연간 캐나다 학부 평균 수업료		
	고등학교를 마친 20~24세의 노동인구 비율		
		학사학위를 가진 25~64세 비율	
환경	-	공기	지표면 오존량
			온실가스 배출지수
		에너지	1차 에너지 생산
			주거용 에너지 사용량 (1000가구당 petajoules)
		담수	캐나다 남부의 물의 양
비재생 물질	금속 보존 지수		
생물자원	전체 농토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²⁾	

주: 1) 석현호 등(2013)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원자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최근 내용으로 보완함.
 2)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의 생산과 폐기에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지수.

자료: 1) 석현호 등, 2013, p. 171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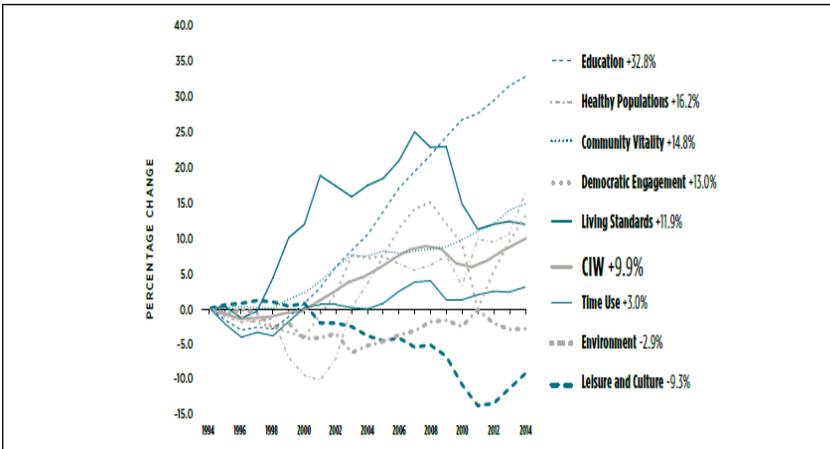
2) 워털루대학교 삶의 질 홈페이지, <http://uwaterloo.ca/canadian-index-wellbeing>에서 2017. 3. 23. 인출.

[그림 2-3] 캐나다 웰빙 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구성틀



자료: 워털루대학교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 <http://uwaterloo.ca/canadian-index-wellbeing> 에서 2017. 3. 23. 인출.

[그림 2-4] 캐나다 웰빙 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영역별 변화(1994~2014년)



자료: University of Waterloo. (2016). How are Canadians really doing? p. 8.

다) 영국의 웰빙에 관한 국가 계정(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

영국 정부의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은 영국지방정부법을 통해 지방당국이 해당 지역의 사회, 경제 및 환경, 복지 증진을 위한 권한이 부여되면서 고조되었다. 다양한 주체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통계청 중심의 삶의 질 측정뿐 아니라 민간기관을 통한 관심도 높아져 웰빙에 관한 국가 계정(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은 비정부기구인 새경제재단(The New Economics Foundation)이 추진하고 있다.

웰빙에 관한 국가 계정(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은 웰빙의 심리적 차원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개인적 차원의 웰빙뿐 아니라 대인적, 사회적 차원의 웰빙 측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2007년 처음으로 유럽 전역의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개인적 웰빙과 사회적 웰빙을 최상위 차원으로 하여 구성 요소 및 하위 구성요소의 계층적 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프레임워크 내 구성 요소 및 하위 구성 요소는 단일 항목의 하위 구성 요소를 제외하고, 여러 질문에 대한 응답을 결합하여 구성된다. 개인적 - 사회적 차원의 웰빙 점수는 하위 구성 요소 및 구성 요소의 값을 집계하여 산출된다. 이를 위해 원 설문조사(European Social Survey) 응답값을 표준화한 후 (하위) 구성 요소별 응답값 집계, 마지막으로 그 결과에 대해 10점 척도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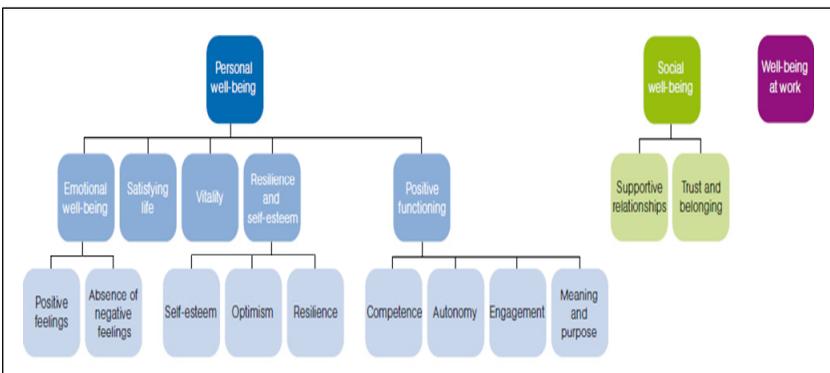
개인적 웰빙은 감정적 웰빙, 삶의 만족도, 활력(vitality), 회복 탄력성 및 자존감, 긍정적 기능(positive functioning)의 5개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며, 사회적 웰빙은 지지 관계 및 신뢰와 소속감의 2개 주요 영역으로

구성된다. 주요 영역 내 하위 구성 요소는 영역에 따라 그 수준을 달리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웰빙 내 감정적 웰빙은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의 빈도와 정도에 대한 균형을 기반으로 하며, 긍정적 경험의 빈도, 부정적 경험의 빈도와 그 정도를 세부 구성 요소로 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관련된 4가지 질문을 통해 본인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와 관련되며, 활력은 에너지, 휴식 및 건강, 신체적 활동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회복 탄력성 및 자존감은 개인의 심리적 차원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존감, 낙관주의, 회복 탄력성을 세부 요소로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기능은 자율성, 능숙도, 참여(개입),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의 세부 항목에 대해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집계한 것이다. 사회적 웰빙은 앞서 언급한 2개의 주요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 개인 및 사회적 웰빙을 넘어서 직장 내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직업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 직장에서의 감정적 경험, 근무환경 등을 구성 요소로 이를 파악하고 있다.

[그림 2-5] 영국 웰빙에 관한 국가 계정(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의 구성틀



자료: The New Economics Foundation. (2016). 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 bringing real wealth onto the balance sheet. p. 21.

40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표 2-6〉 영국 웰빙에 관한 국가 계정(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 개요

영역	구성 요소	하위 구성 요소	원 설문내용
개인적 웰빙	감정적 웰빙 (5)	긍정적 감정 빈도/정도(3)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주간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셨습니다? -지난 1주간 당신의 삶을 얼마나 즐겼습니까?
		부정적 감정 빈도/정도(2)	-지난 1주간 당신은 얼마나 우울했습니까? -지난 1주간 당신은 얼마나 슬펐습니까?
	삶의 만족도 (4)	-	-최근 당신의 삶은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당신의 현재 삶의 수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바라는 바와 (일치/불일치)한다
	활력 (8)	-	-지난 1주간 당신은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지난 1주간 당신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 1주간 당신은 얼마나 걱정하지 않고 지냈습니까? -지난 1주간 당신은 충분히 휴식하였습니까? -지난 1주간 당신은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지난 1주간 당신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충분히 휴식했다고 느끼셨습니까? -당신의 전반적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는 활발한 신체적 활동을 한다(동의-비동의)
	회복 탄력성 및 자존감 (4)	자존감(2)	-일반적으로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동의-비동의) -때때로 스스로를 실패자로 느낀다(동의-비동의)
		낙관주의(1)	-나는 나의 미래를 늘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동의-비동의)
		회복탄력성(1)	-나의 삶이 잘못되었을 때, 돌이키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동의-비동의)
	긍정적 기능	자율성(2)	-일상생활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여 줄 기회가 거의 없다(동의-비동의) -요즘 스스로가 하는 일에 성취감을 느낀다(동의-비동의)
		능숙도(2)	-일상생활에서 나는 정말로 즐거운 일을 할 시간이 없다(동의-비동의)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느낀다(동의-비동의)
		참여(개입)(3)	-지난 1주간 얼마나 지루하다고 느꼈습니까? -지난 1주간 스스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까? -새로운 것들을 배울 기회가 있습니까?
삶의 대한 가치와 의미(2)		-스스로 하는 일에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고 있다고 느낍니까? -스스로의 삶이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한다(동의-비동의)	
사회적 웰빙	지지 관계 (6)	-	-당신의 직계가족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까?

영역	구성 요소	하위 구성 요소	원 설문내용
			-당신의 직계가죽과 보내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당신의 친구, 친척, 동료 등을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나를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동의-비동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 1주간 얼마나 자주 외로웠습니까?
	신뢰와 소속감 (5)	-	-지역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느끼십니까? -지역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를 존중(대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사회 사람들과 친밀하다고 느낀다(동의-비동의) -지역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대한다고 느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주: 괄호 안은 (하위)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원 설문문의 개수임.

자료: The New Economics Foundation. (2016). 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 bringing real wealth onto the balance sheet. pp. 62-64.

라) 호주 유니티 웰빙 지수(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⁹⁾

호주 유니티 웰빙 지수(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는 호주 유니티(Australian Unity)와 디킨대학교 삶의 질 센터(Deakin University)가 2000년부터 주관하여 작성하고 있는 지표이다(석현호 등, 2013). 호주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역에 대해 조사하여 이를 지수화하고 있다. 공식기관 등을 통해 발표되는 삶의 질 지수와 달리, 본 지표는 호주 국민들이 각자의 삶에 대해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식하는가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매년 2~3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각 영역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점수가 평균으로 산출되며(석현호 등, 2013), 첫 번째 조사는 2001년 4월에 호주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2016년 현재 33차 조사가 수행되었다. 조사 영역은 크게 개인 웰빙과 국가 웰빙 영역으로 나뉘는데,

9) The Australian Unity Wellbeing Research Team(2016)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42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개인 웰빙 영역(Personal Well-being Index)에는 생활수준, 건강, 성취도, 대인관계, 안전, 지역공동체와의 연계, 미래의 안전 등이 포함되며, 국가 웰빙 영역(National Well-being Index)에는 경제 현황, 환경, 사회환경, 정부, 기업, 국가안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두 영역에 동일한 핵심 지수를 질문하는데, 개인과 국가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satisfaction with life as a whole; satisfaction with life in Australia)에 대한 질문이 이에 해당한다. 개별지표는 0~10점의 척도로 구성되며, 영역별로 이 값을 더하여 하나의 지수(0~100)로 도출된다.

당해 연도의 특별한 이슈가 있을 경우 별도 영역으로 조사 문항이 추가되기도 한다. 조사 결과는 영역별로 시계열 추이와 인구사회학적 요인, 하위 집단별 특성 등의 분석을 거쳐 제시되며, 디킨대학교(Deakin University)의 삶의 질 홈페이지(Quality of Life website) 혹은 호주 유니티 홈페이지(Australian Unity website)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평균 삶의 만족도는 76.7점으로 2000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표 2-7〉 호주 유니티 웰빙 지수(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 개요

구분	지표	
개인 웰빙 (Personal Wellbeing Index)	-건강 -성취도 -대인관계	-안전 -지역공동체와의 연계 -미래의 안전
국가 웰빙 (National Wellbeing Index)	-경제현황 -환경 -사회환경	-정부 -기업 -국가안보

자료: 1) The Australian Unity Wellbeing Research Team. (2016). 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 Survey 33.0. p. 9.

2) <https://www.australianunity.com.au/>에서 2017. 6. 23. 인출.

현재까지 논의된 해외의 국제기구 및 개별국가의 삶의 질 지표체계를 요약하면 <표 2-8>과 같다. 또한 지표체계의 개발과 작성 주체의 성격에 주목하여 정리한 <표 2-9>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된다. 국제기구가 개발한 지표체계의 경우는 해당 국제기구가 지표 개발과 결과 발표를 책임지고 있으며, 국가 단위의 경우는 위원회, 민간기관, 대학 내 연구센터와 같이 정부보다는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개발 및 결과발표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2-8> 해외의 삶의 질 지표체계 특성 비교

국가/국제기구	지표명	구성	측정 구분	작성 주체	작성 주기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	-11개 영역 -24개 지표	-객관적/ 주관적	-OECD	-매년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활기찬 노화 지수(AAI)	-4개 영역 -22개 지표	-객관적/ 주관적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격년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	글로벌 에이지 위치 지수(GAI)	-4개 영역 -13개 지표	-객관적/ 주관적	-HelpaAge	-매년
일본	국민 웰빙 지표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Index)	-5개 영역 -133개 지표	-객관적/ 주관적	-내각부 웰빙 측정위원회	-2011. 12. 입시 지표 공표
캐나다	웰빙 지수(CIW)	-8개 영역 -64개 지표	-객관적/ 주관적	-위털루대학	-매년
영국	웰빙에 관한 국가 계정(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	-2개 영역 -13개 지표	-객관적/ 주관적	-The New Economics Foundations	-매년
호주	유니티 웰빙 지수(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	-2개 영역 -12개 지표	-객관적/ 주관적	-Australian Unity & Deakin University	-매년

44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표 2-9〉 해외의 삶의 질 지표체계 작성의 주체

국가/국제기구	지표명	작성 주체	조직 위상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	-OECD	-국제기구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활기찬 노화 지수(AAI)	-UN Economic commi- -ssion for Europe	-국제기구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	글로벌 에이지 위치 지수(GAI)	-HelpAge	-국제기구
일본	국민 웰빙 지표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Index)	-내각부 웰빙측정위원회	-위원회 -정부 내각부 주관으로 2010년 12월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 영입 -정부가 채택한 '새로운 성장 전 략' 일환으로 새로운 성장 및 복 지에 대한 연구 및 관련 지표에 대한 통계 개발 및 개선을 위해 조직된 기구
캐나다	웰빙 지수(CIW)	-위털루대학 CIW 네트워크	-민간기관 -2011년 캐나다 위털루대학 내 설립 -캐나다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를 위해 전문가 영입. 타 연구원과 협력하여 다양한 연구 수행 -2015년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요소 및 문제, 파급효과 등 을 분석하는 연구기관(research associates)으로 공식화
영국	웰빙에 관한 국가 계정(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	-The New Economics Foundations	-민간기관 -1986년 설립되었으며, 영국의 사 회, 경제, 환경 정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싱크탱크
호주	유니티 웰빙 지수(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	-Australian Unity & D eakin University	-민간기관(대학 내 연구센터) -대학 내 삶의 질 연구센터

나. 국내 사례

1) 국민의 삶의 질

최근 삶의 질 등을 측정하고자 한 연구에서는 객관적 지표로만 측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해, 주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한 포괄적인 지표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진 삶의 질과 행복 증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분석 단위에 있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지역 혹은 특정 대상으로 국한된 연구로 구분되며, 지표체계 개발을 통한 지수 산출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김승권 등(2008)의 연구는 국민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하여 객관적 및 주관적 지표를 활용하였다. 심리적 안정이나 개인적 관계, 일상생활 등 주로 개인적 차원을 중심으로 지표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총 9개 영역과 21개의 지표체계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을 이루는 개념적 다양성에 따라 개인적 차원으로만 국한될 경우, 환경과의 역동을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가 나타났다.

통계청은 기존 삶의 질 측정에 대한 한계 인식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관련된 기본틀과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 사회적 관계, 환경 차원에서 영역과 지표를 구성한다. 미시적, 거시적 차원의 삶의 질을 모두 고려하며, 총 12개 영역, 80개의 지표체계를 제시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남주하, 김상봉(2016)의 연구 역시 개인적 차원에서 나아가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이라는 대영역하에, 20개의

중영역과 34개의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특정 지역 혹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살펴본 연구 역시 지표체계에 있어 거시적 차원의 연구와 비슷한 구성을 보인다. 다만 국한된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영역이나 지표를 강조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박대식, 마상진(2007)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역 간 차이를 살피기 위해, 개인적 차원보다 환경적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소득이나 노동 등의 영역 이외 서비스 여건 조성, 제반 환경의 마련 차원에서 주거, 문화여가, 환경 등의 영역을 더 배치하여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6)의 행복도 지표 역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정과 관련된 영역을 배치하고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2)의 서울시 여성을 위한 행복지표 개발 연구에서도 지역 및 성별에 따른 행복감 측정을 위해 생활 밀착형 지표를 배치하는 등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 해당 연구는 서울시 여성들이 느끼는 행복도를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전체 9개 영역 중 8개 영역을 객관적 삶의 질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논한 지표체계 연구는 <표 2-10>과 같다.

〈표 2-10〉 국민 전체의 삶의 질 지표체계 관련 연구

구분	주요 개념	분석 단위	지표 구성		영역 내용
			영역	지표	
김승권 등 (2008)	행복감	국민 전체	9	21	-심리적 안정, 가족/결혼, 개인적 관계, 지역사회, 일상생활, 경제적 안정, 일, 건강, 주거
남주하 등 (2016)	행복감	국민 전체	3(20) ¹⁾	34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통계청	삶의 질	국민 전체	12	80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 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서울 연구원 (2006) ²⁾	행복감	서울시민	9	21	-경제, 문화/교육, 복지, 사회안전, 생태환경, 생활환경, 시민시정, 공동체적 삶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2)	행복감	서울여성	9	23	-돌봄, 경제력, 나이들, 여가, 안전, 건강, 참여, 공생, 주관적 만족도
박대식 등 (2007)	삶의 질	도시/농촌	13	19	-소득소비, 노동, 보건의료, 안전, 주거, 정보화, 통신, 환경, 교육, 복지, 사회, 문화여가
이세형 등 (2011)	삶의 질	수도권	5	19	-지역경제, 주거환경, 교육문화, 사회복지, 공공안전

주: 1) 영역 구성은 대영역(중영역)으로 표기함. 영역 내용은 대영역을 중심으로 기술함.

2) 황명진, 심수진(2007)을 참고하여 작성함.

자료: 1) 김승권, 장영식, 조홍식, 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남주하, 김상봉. (2016). 한국의 국민행복지수 산출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시장경제연구, 45(3), 119-143.

3) 박대식, 마상진. (2007).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 농촌경제, 30(4), 31-55.

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시민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5)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2). 서울여성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

6) 이세형, 장훈, 노진아. (2011). 수도권 삶의 질 지수 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측량학회지, 29(1), 29-37.

7) 통계청 홈페이지, <http://qol.kostat.go.kr>에서 2017. 3. 9. 인출.

8) 황명진, 심수진. (2007). 행복지수의 개발. 통계개발원.

2) 노인의 삶의 질

2000년대부터 노인 또는 예비 노인을 포함한 대상의 삶의 질 파악을 목표로 한 다양한 시도(이가옥, 이현송, 김정석, 2000; 정경희, 김미혜, 정순돌, 2002;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박보미, 2012; 정경희, 염주희, 황남희, 김정석, 이금룡, 오신휘, 2013; 최수정, 2002)들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들은 노인의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삶의 질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소득, 건강, 사회적 관계 등의 영역 배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표 2-11〉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관련 연구

주체	지표 구성		영역 내용	측정 구분
	영역 ¹⁾	지표		
이가옥 등 (2000)	7(14)	148	-건강, 물리적 복지, 경제활동, 가족관계, 주거, 교육 및 여가활동	-객관적/주관적
최수정 (2002)	4	32	-생활안정, 자원 활용의 편이성, 건강 및 가족 내 영향력, 지지 기반의 확립	-객관적/주관적
정경희 등 (2002)	5(15)	117	-배경, 기본생활,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연계, 사회적 배려	-객관적/주관적
정경희 등 (2012)	7(21)	146	-인구사회적 배경, 사회심리적 안정, 개인자원 및 가족사회관계, 물리적 안전, 경제상태, 건강, 사회참여	-객관적/주관적
정경희 등 (2013)	4	4	-가족사회관계, 경제상태, 건강상태, 사회참여	-객관적/주관적

주: 1) 영역 구성은 대영역(중영역)으로 표기함. 영역 내용은 대영역을 중심으로 기술함.

자료: 1) 이가옥, 이현송, 김정석. (2000). 노년기의 삶의 질: 지표개발과 평가. 성공회대학교, 유한길 별리.

2) 최수정. (2002). 한국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측정도구 개발. 성인간호학회지, 14(3), 401-410.

3) 정경희, 김미혜, 정순돌. (2002). 한국의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박보미. (2012).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정경희, 염주희, 황남희, 김정석, 이금룡, 오신휘. (2013).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지수화 관련 선행연구

최근 지수화를 통하여 종합수치로 사회적 현상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표체계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지수화 작업을 통해 삶의 질을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지표체계 개발에서와 같이 분석 단위를 국가 또는 지역으로 하는 거시적 차원의 연구, 특정지역이나 대상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차원의 연구 등 다양한 주제로 세분화된다.

대표적인 지수화 관련 연구는 정책 수립, 지역(국가) 간 비교 등을 위해 시도되었다. 지수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지표는 지표 간 중복 배제, 포괄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내외가 활용되고 있다. 부문별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종합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수화 작업은 크게 표준화 작업과 가중치 부여 작업 여부로 구분되는데, 표준화 작업은 지표 간 측정방식 및 자료원 확보 시점의 상이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대체로 100점 환산 등을 통한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남주하, 김상봉, 2016; 심재현, 성주인, 노승철, 송미령, 김광선, 권인혜, 2014; 이세형, 장훈, 노진아, 2011), 가중치 부여를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가중치 부여 방식은 전문가 조사 등의 방식을 대다수가 활용하고 있으며, 영역 및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이를 가중치로 산출하고 있다(박대식, 마상진, 2007; 김승권, 장영식, 조흥식, 차명숙, 2008; 하정화, 김정란, 이혜주, 2011; 심재현, 성주인, 노승철, 송미령, 김광선, 권인혜, 2014; 남주하, 김상봉, 2016; UN, 2015).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그 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는 영역 혹은 지표의 고유성을 담보하기 위해 절대적 중요도를 함께 고려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한편 가중치 부여에 있어

50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영역과 지표 모두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지표에만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 등 연구 목적 및 분석 단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UNECE의 AAI는 영역 간에는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되, 개별지표 간에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상이한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OECD의 BLI 역시 실제 공표되는 자료에는 영역 간 동일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를 활용하고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자가 판단하는 가중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표 2-12〉 삶의 질 지수화 관련 선행연구

구분	주제	지수화 과정																																																																					
김승권 등 (2008)	한국의 행복 결정요인 및 행복지수 측정	행복을 결정하는 10개의 영역(21개의 행복결정요인(행복지표))의 우선순위에 대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최종 우선순위 산정 후 가중치를 적용한 값의 합산에 대한 평균값으로 행복 수준 파악, 가중치 선정에 위해 델파이 조사 실시																																																																					
		<table border="1"> <thead> <tr> <th>중요도</th> <th>행복결정요인(행복지표)</th> <th>가중치</th> </tr> </thead> <tbody> <tr><td>1</td><td>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td><td>0.058</td></tr> <tr><td>2</td><td>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 정도</td><td>0.057</td></tr> <tr><td>3</td><td>가족의 건강 수준</td><td>0.057</td></tr> <tr><td>4</td><td>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td><td>0.056</td></tr> <tr><td>5</td><td>자신의 주관적 건강 수준</td><td>0.055</td></tr> <tr><td>6</td><td>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td><td>0.054</td></tr> <tr><td>7</td><td>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td><td>0.054</td></tr> <tr><td>8</td><td>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td><td>0.050</td></tr> <tr><td>9</td><td>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td><td>0.050</td></tr> <tr><td>10</td><td>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td><td>0.049</td></tr> <tr><td>11</td><td>친구 및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td><td>0.047</td></tr> <tr><td>12</td><td>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td><td>0.047</td></tr> <tr><td>13</td><td>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td><td>0.047</td></tr> <tr><td>14</td><td>규칙적인 운동 여부</td><td>0.046</td></tr> <tr><td>15</td><td>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td><td>0.045</td></tr> <tr><td>16</td><td>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td><td>0.044</td></tr> <tr><td>17</td><td>원하는 것을 언제나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td><td>0.044</td></tr> <tr><td>18</td><td>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td><td>0.041</td></tr> <tr><td>19</td><td>만족스러운 수면(양, 질)</td><td>0.039</td></tr> <tr><td>20</td><td>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td><td>0.034</td></tr> <tr><td>21</td><td>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td><td>0.026</td></tr> <tr><td></td><td>계</td><td>1.000</td></tr> </tbody> </table>	중요도	행복결정요인(행복지표)	가중치	1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0.058	2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 정도	0.057	3	가족의 건강 수준	0.057	4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	0.056	5	자신의 주관적 건강 수준	0.055	6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0.054	7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0.054	8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0.050	9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0.050	10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0.049	11	친구 및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0.047	12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0.047	13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0.047	14	규칙적인 운동 여부	0.046	15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0.045	16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0.044	17	원하는 것을 언제나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0.044	18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0.041	19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0.039	20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0.034	21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0.026		계	1.000
		중요도	행복결정요인(행복지표)	가중치																																																																			
		1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0.058																																																																			
		2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 정도	0.057																																																																			
		3	가족의 건강 수준	0.057																																																																			
		4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	0.056																																																																			
		5	자신의 주관적 건강 수준	0.055																																																																			
		6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0.054																																																																			
		7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0.054																																																																			
		8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0.050																																																																			
		9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0.050																																																																			
		10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0.049																																																																			
		11	친구 및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0.047																																																																			
		12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0.047																																																																			
		13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0.047																																																																			
		14	규칙적인 운동 여부	0.046																																																																			
		15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0.045																																																																			
		16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0.044																																																																			
		17	원하는 것을 언제나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0.044																																																																			
		18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0.041																																																																			
19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0.039																																																																					
20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0.034																																																																					
21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0.026																																																																					
	계	1.000																																																																					
남주하 등 (2016)	한국의 국민행 복지수 산출 및 정책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항목에 대한 지수화 : 소항목, 중항목, 대항목을 지수화한 후, 각 소항목들의 가중치를 이용한 가중합으로 산출 - (소항목지수) 소항목 값을 가중평균하여 -100~0, 0~100 사이의 값으로 산출 / 측정 단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표준화를 이용해 표준화 실시 - (중항목지수) -100~0 또는 0~100의 소항목지수 * AHP(계층분석) 가중치 적용 																																																																					

구분	주제	지수화 과정
박대식 등 (2007)	-농촌의 삶의 질 지수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 절대적 중요도 측정 -가중치 부여 : 삶의 질 지표별 전문가들의 절대적 평가치와 상대적 평가치를 곱한 값의 합을 삶의 질 지표수(19)개로 나누어 부여 -삶의 질 지표 지수화: 삶의 질 만족도 조사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점수에 각 지표 가중치를 곱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을 곱하여 산출
심재현 등 (2014)	-지역발전지수(RDI)를 통해 농어촌 삶의 질 실태 분석	-지역발전지수(RDI)는 아래 4가지 부문별 지수의 합으로 정의 · 생활서비스 지수 + 지역경제력지수 + 삶의 여유공간 지수 + 주민활력 지수 -객관적 통계자료만을 기반으로 각 부문별 지수를 구성, 총 20개 세부변수 활용 · 변수의 값은 선형 표준화를 수행, 전문가 조사를 통해 부문별 지수의 가중치 반영하여 종합지수 도출 · 선형 변환방법은 크게 값이 증가할수록 좋은 지표를 나타내는 변수에 적용하는 최대값 표준화(1), 값이 증가할수록 나쁜 지표를 나타내는 변수에 적용하는 최대값 표준화(2) 방식 등이 있음(정도채, 심재현, 유은영, 2016). -최종 지역발전지수(RDI) = 0.359*생활서비스지수 + 0.246*지역경제력지수 + 0.179*삶의 여유공간지수 + 0.217*주민활력지수
이세형 등 (2011)	-수도권 65개 시·군·구의 삶의 질 지수 산정	-개별변수는 모두 지자체별 인구수로 표준화 -개별변수 요인분석 → 각 요인별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해, 각 세부변수가 각 요인에 미치는 기여도(W1) 파악 -각 변수값에 추출된 기여도를 곱한 값들을 합하여 요인별 삶의 질 지수 산정 -산정된 요인별 삶의 질 지수를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 재실시, 요인별 기여도(W2) 산출 -수도권 지역별 통합 삶의 질 지수 도출
하정화 등 (2011)	-부산지역 아동 청소년 행복지표 개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표준화(*단, 주관적 지표에 대해서만 종합행복지수 산출(객관적 지표 한계)) -요인분석을 통한 가중치 산출 -원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으로 개별 행복지수 산출 -100점 환산 점수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영역별 행복지수 산출 -영역별 행복지수에 영역별 가중치를 곱하여 종합행복지수 산출
Better Life Index (2016)	-OECD 회원국 대상 삶의 질 관련 11개 영역에 대한 순위 도출	-각 영역에 대해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지수)으로 국가별 순위 도출
Active Ageing Index (2014)	-활동적 노화 관련 지표 및 지수 산출	-생산적 노화 관련 다양한 지표들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통한 가중치 산출 -총 4개 영역(22개 지표). 1개 영역당 총점 100점 부여, 영역 내 개별지표 간 가중치 상이 -각 영역당 동일 가중치(100점) 부여하여 최종 지수 산출

52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구분	주제	지수화 과정			
		영역	영역별 가중치	지표	지표가중치
	고용	35	55~59세 고용률	25	
			60~64세 고용률	25	
			65~69세 고용률	25	
			70~74세 고용률	25	
	100				
	사회참여	35	자원봉사활동	25	
			자녀, 손자녀 등 돌봄	25	
			노인 돌봄	30	
			정치참여	20	
	100				
	독립적이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10	신체활동	10	
			의원 및 치과 등 접근성	20	
독립적인 생활			20		
중위소득			10		
빈곤위험 부재			10		
물질적 박탈 부재			10		
100					
생산적 노화를 위한 수용성 및 제반 환경	20	50~55세 시 기대수명	33		
		55세 시 건강수명	23		
		정신건강	17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7		
		사회적 관계	13		
100					
총합		10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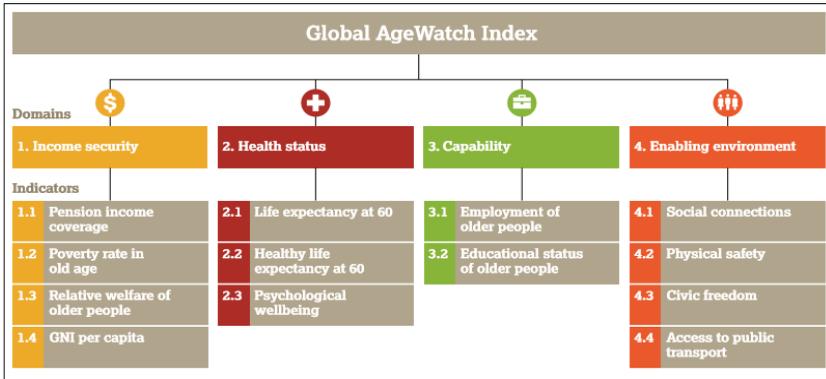
- 자료: 1) 김승권, 장영식, 조홍식, 차명수. (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 남주하, 김상봉. (2016). 한국의 국민행복지수 산출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시장경제연구, 45(3), 119-143.
- 3) 박대식, 마상진. (2007).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 농촌경제, 30(4), 31-55.
- 4) 심재현, 성주인, 노승철, 송미령, 김광선, 권인혜. (2014). 2014 지역발전지수(RDI)를 통해서 본 농어촌 삶의 질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5) 외교부 주오이시디대표부. (2016). 2016년 OECD Better Life Index 주요 내용.
- 6) 이세형, 장훈·노진아. (2011). 수도권 삶의 질 지수 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측량학회지, 29(1), 29-37.
- 7) 정도채, 심재현, 유은영(2016).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8) 하정화, 김정란, 이혜주. (2010). 부산 아동청소년 행복지표 개발 연구 II.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9)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015). Active Ageing Index 2014 Analytical Report.

3. 데이터 구축 관련 사례 검토

가. 국제기구: 글로벌 에이지워치 지수(GAI)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례

GAI는 소득 보장, 건강 상태, 역량 및 환경의 네 가지 핵심 영역에 대해 1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6] 글로벌 에이지워치 지수(Global AgeWatch Index) 영역과 지표



자료: Global AgeWatch. (2015). Global AgeWatch Index 2015 Insight report. p. 7.

GAI는 96개 국가를 비교하기 때문에 지표 수가 많지 않다. 하지만 다양한 시각화 방법으로 세부 지표별·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다. 2015년 전체 GAI 순위가 높으면 녹색, 낮으면 빨간색으로 표현함으로써 색상으로 각 국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글지도에 국가별로 순위에 맞는 색깔로 표현하여 공간정보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국가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그 국가에 대한 순위와 각 영역별 순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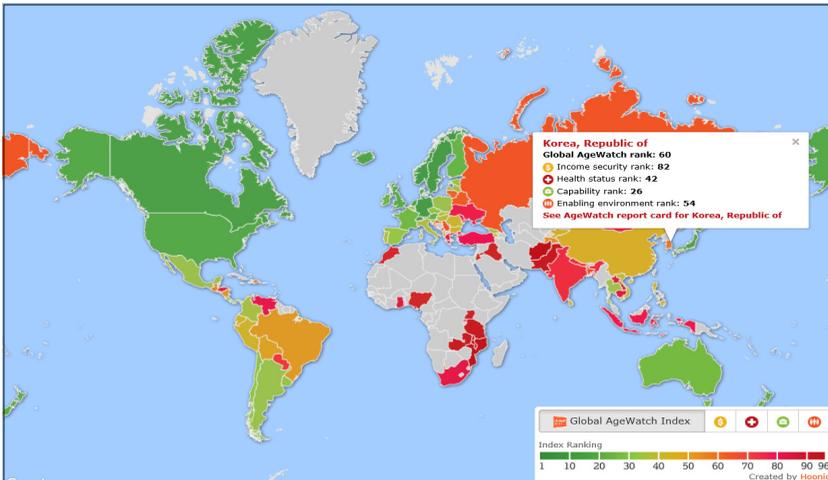
54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그림 2-7] 2015년 글로벌 에이지워치 지수(Global AgeWatch Index) 순위

1. Switzerland	21. Chile	41. Vietnam	61. Croatia	81. Ghana
2. Norway	22. Czech Republic	42. Mauritius	62. Dominican Republic	82. Honduras
3. Sweden	23. Estonia	43. Armenia	63. Lithuania	83. Lao PDR
4. Germany	24. Belgium	44. Ecuador	64. Belarus	84. Morocco
5. Canada	25. Spain	45. Romania	65. Russia	85. Jordan
6. Netherlands	26. Slovenia	46. Sri Lanka	66. Serbia	86. Nigeria
7. Iceland	27. Uruguay	47. Malta	67. Bangladesh	87. Iraq
8. Japan	28. Costa Rica	48. Peru	68. Montenegro	88. Uganda
9. USA	29. Georgia	49. Bulgaria	69. Paraguay	89. Rwanda
10. United Kingdom	30. Cyprus	50. Philippines	70. Nepal	90. Zambia
11. Denmark	31. Argentina	51. Kyrgyzstan	71. India	91. Tanzania
12. New Zealand	32. Poland	52. China	72. Mongolia	92. Pakistan
13. Austria	33. Mexico	53. Albania	73. Ukraine	93. West Bank & Gaza
14. Finland	34. Thailand	54. El Salvador	74. Indonesia	94. Mozambique
15. Ireland	35. Latvia	55. Bolivia	75. Turkey	95. Malawi
16. France	36. Colombia	56. Brazil	76. Venezuela	96. Afghanistan
17. Australia	37. Italy	57. Nicaragua	77. Moldova	
18. Israel	38. Portugal	58. Tajikistan	78. South Africa	
19. Luxembourg	39. Hungary	59. Guatemala	79. Greece	
20. Panama	40. Slovakia	60. South Korea	80. Cambodia	

자료: Global AgeWatch. (2015). Global AgeWatch Index 2015 Insight report. 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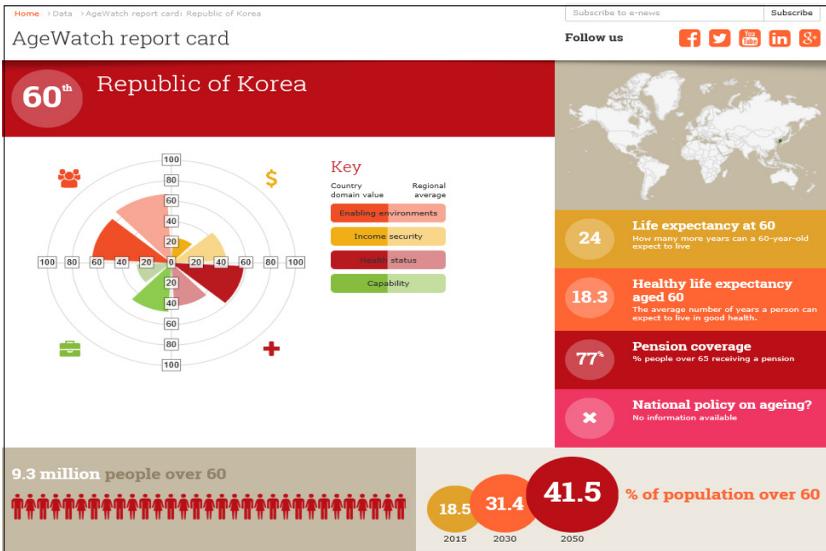
[그림 2-8] 국제 순위 지도(Global rankings map) 시각화 사례



자료: 헬프페이지 홈페이지, <http://www.helpage.org/global-agewatch/population-ageing-data/global-rankings-map/>에서 2017. 8. 31. 인출.

웹페이지에서 제공해 주는 구글 지도에서 관심 있는 국가의 에이지워치 보고 키워드(AgeWatch report card)를 클릭하면 왼편에 그 나라의 영역별 점수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국가의 노인의 현황 및 욕구 특성들을 다양한 색깔과 수치로 표현하여 독자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그림 2-9] 에이지워치 보고 키워드(AgeWatch report card) 시각화 사례



자료: 헬프페이지 홈페이지, (<http://www.helpage.org/global-agewatch/population-ageing-data/global-rankings-map/>)에서 2017. 8. 31. 인출.

나. 주요국의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 구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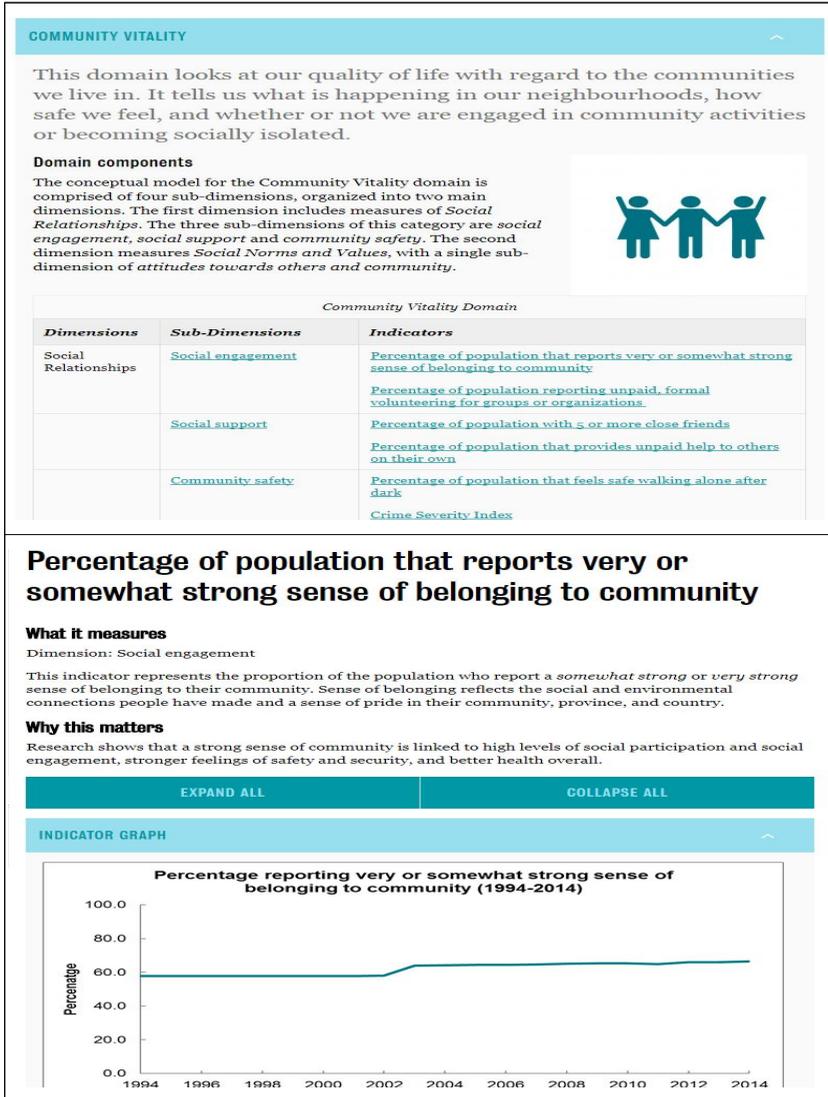
1) 캐나다¹⁰⁾

캐나다의 CIW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워털루대학 내 CIW 네트워크를 통해 산출되며, 캐나다인의 전반적인 웰빙지수를 제공한다. 2017년 기준 생활수준, 건강인구, 공동체 활력, 민주적 참여, 여가 및 문화, 시간 이용, 교육, 환경의 8개 영역(64개 지표)에 대해 CIW 종합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프레임워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으며, 그간의 시계열적 변화도 시각화하여 제공함에 따라 추이를 확인하기에 용이하다. 홈페이지에서 해당 영역을 선택하게 되면, 영역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 세부 지표가 제시된다. 하위 영역 및 세부 지표 역시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시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별지표의 경우 지표의 정의 및 선정 이유, 시계열적 변화 추이와 자료원 등의 정보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이 매우 높다.

10) 해당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34~37쪽을 참고하기 바람.

[그림 2-10] 캐나다 웰빙 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시각화 사례



자료: 워털루대학교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 <http://uwaterloo.ca/canadian-index-wellbeing>에서 2017. 3. 23. 인출.

2) 호주¹¹⁾

호주 유니티 웰빙 지수(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는 매해 2~3회 실시되는 개인 및 국가 웰빙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수화된다. 조사 결과는 디킨대학교(Deakin University)의 삶의 질 홈페이지(Quality of Life website) 혹은 호주 연합 홈페이지(Australian Unity website)를 통해 게시된다. 앞서 캐나다의 사례와 차이가 있다면, 호주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보다는 관련된 원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홈페이지에 접근하게 되면, 지표측정의 개요 뿐 아니라 조사 측정 항목, 횡·종단 조사 자료 등에 대해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매해 지수화 정보에 대한 보고서가 등록되어, 최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특히 원자료가 조사 항목별, 시점별로 제공되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11) 해당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41~42쪽을 참고하기 바람.

[그림 2-11] 호주 유니티 웰빙 지수(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의 시각화 사례

 Australian Centre on Quality of Life	
Home Core team and members Members Instruments Survey reports with raw data Multiple cross sectional 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 (2001 to 2013) Macau Quality of Life Reports (2007 to 2012) Single cross sectional Belgium: De Maeyer (2013) Longitudinal 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 (2002 to 2013) International Wellbeing Group Membership Personal Wellbeing Index Translations Publications PPT Presentations Norms and psychometrics Projects Completed theses Conferences	 <p>Quality of life is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Each of these two axes comprises several domains which, together, define the total construct. Objective domains are measured through culturally relevant indices of objective well-being. Subjective domains are measured through questions of satisfaction.</p> <p>About Quality of Life Quality of life is emerging as a central construct within many disciplines, such as those comprising the social sciences, economics, and medicine. Its attraction, in part, is that it offers an alternative to some traditional disciplinary views about how to measure success. First, it directs attention onto the positive aspects of people's lives, thus running counter to the deficit orientation of these disciplines. Second, it extends the traditional objective measures of health, wealth, and social functioning to include subjective perceptions of wellbeing.</p> <p>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 Promoting greater public and political awareness of the factors underpinning wellbeing, as well as enhancing scientific understanding of subjective wellbeing.</p> <p>International Wellbeing Group An international collaborative network with the aim of developing the Personal Wellbeing Index into a standard, cross-cultural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p> <p>Our mission The Australian Centre on Quality of Life has the following miss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facilitate research into quality of life. • To serve as a resource for both researchers and students. • To gather knowledge and expertise related to both theoretical and applied areas. • To facilitate research links with industry, government and the

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 (2001 to 2017)

The western world-view is dominated by notions of progress. Progress is about making life better. That is,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Indicators are crucial to such progress because we cannot know, as a society, whether quality of life is improving unless we can monitor and measure how it is changing. Policies, for example, are judged on how they affect relevant indicators.

Quality of life is subjective as well as objective, a matter of how people feel about life as well as the material conditions in which they live. Interestingly, however, these two kinds of measurement are normally poorly related. So we need both. There are a plethora of objective measures that relate to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There is, however, a lack of subjective measures that are rigorous,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The 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 is designed to fill this niche. It has the aim of promoting greater public and political awareness of the social factors underpinning wellbeing, as well as enhancing scientific understanding of subjective wellbeing.

The Australian Unity Project

The origin of this project occurred early in 2001 when a contract was signed between Australian Unity, a financial services and healthcare company based in Melbourne, and the Australian Centre on Quality of Life at Deakin University. This contract established a partnership with the aim of creating an index of perceived wellbeing for the Australian population.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general population surveys are conducted from one to four times each year. Each survey comprises 2,000 new respondents, selected randomly on a demographically proportional basis. Data are collected by telephone using a call centre.

Under the terms of the contract, both parties own all data and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ir use for scientific purposes. In addition, Australian Unity supports the Index being used and developed as a scientific tool. In this spirit they encourage investigations into the usefulness of the index in other countries. The generic name for the index outside Australia is the International Wellbeing Index which involves two scales. A seven item Personal Wellbeing Index and a six item National Wellbeing Index. All items utilize a 0 - 10 end-defined scale of satisfaction.

Survey re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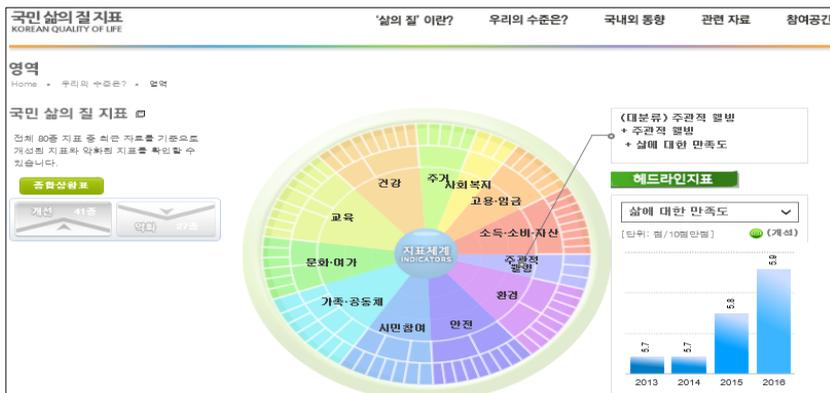
- Survey 1
 - [Report 1, June 2001 \(pdf 1.2 MB\)](#)
 - [Survey 1 data dictionary \(doc 49 KB\)](#)
 - [Survey 1 data file \(xls 1.1 MB\)](#)

캐나다의 CIW가 홈페이지에 지표체계와 관련하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시화 하였다면, 호주 유니티 웰빙지수(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는 시각화보다는 원자료의 개방화에 보다 방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국내: 통계청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사례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삶의 질 지표 체계는 물질적 영역인 소득·소비·자산, 사회복지, 고용·임금, 주거, 비물질적 영역인 건강, 주관적 웰빙, 환경, 안전, 시민참여, 가족·공동체, 문화·여가, 교육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대분류 영역별로 헤드라인 지표를 두어서 영역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헤드라인 지표의 시계열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강의 경우 헤드라인 지표는 기대수명이고, 주관적 웰빙의 경우 헤드라인 지표는 삶의 만족도이다. 시민참여 영역의 경우 3가지 중분류인 정치참여, 시민적 의무와 권리, 신뢰로 나누어지는 것을 시민참여 영역의 하부 파트로 보여지도록 시각화하였다. 또한 전체 80개 지표의 해석 방향을 고려하여 개선된 지표와 악화된 지표를 나타내는 종합상향표를 제시하여 어떤 지표가 개선되었고 악화되었는지를 이모티콘 표시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 하여금 친근감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관련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12]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영역 구분



자료: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 <https://qol.kostat.go.kr/blife/result-main.do>에서 2017. 8. 31. 인출.

삶의 질 지표 메인 페이지에 영역별 대분류와 헤드라인 지표, 종합상황표 시각화를 구성해 놓은 것은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도록 디자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13]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종합상황표(일부)

2017년 3월 31일 기준						
부문	영역	지표명	최근증감	영역	지표명	최근증감
물품적영역	소득·소비·자산	1인당 GNP	▲	고용·임금	고용률	▲
		공동화 중위소득	▲		실업률	●
		공동화 중위소비	●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
		가구평균 순자산	▲		근로시간	●
		지니계수	▲		저임금 근로자 비율	▲
		상대적 빈곤율	▲		일자리 만족도*	●
		소득만족도*	●		1인당 주거면적	▲
		소비생활만족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사회복지	공적연금 가입률	▲	주거	통근/통학 소요시간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주거비용	▲
		개인부담 의료비 비율	●		주거환경 만족도*	●

자료: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 <https://qol.kostat.go.kr/blife/result-main.do>에서 2017. 8. 31. 인출

삶의 질 지표의 소득·소비·자산 영역에서 세부 지표인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왼편에는 연도별 시계열 변화 추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오른편에는 지표 정의, 측정 방법, 긍정 방향, 작성 주기, 출처, 지표 의의 등 지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세부 지표 관련 엑셀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단에는 각 세부 지표명과 단위, 분석 연도를 수치화하여 보여 주고 긍정 방향과 최근 증감을 제시하여 지표 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62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그림 2-14]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시각화(상대적 빈곤율)



자료: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 <https://qol.kostat.go.kr/blife/result-main.do>에서 2017. 8. 31. 인출.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소개 밑에 시계열 조회를 클릭하면 분석 연도를 적용하고 이를 인쇄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이 열리는데, 이 부분은 사용자가 관심 있는 특정 연도를 지정하여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2-15]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시계열 조회 시각화

지표명	단위	분석년도									경향방향	최근동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인당 GNI	만원	2,408	2,563	2,586	2,645	2,731	2,812	2,984			↗	😊
균등화 중위소득	천원	1,519	1,569	1,602	1,667	1,702	1,723	1,762			↗	😊
균등화 중위소비	천원	1,092	1,142	1,173	1,171	1,164	1,189	1,184			↗	😐
가구평균 순자산	만원		23,066	23,615	25,287	24,920	25,209	25,558			↗	😊
자산-소비-소득	계수	0.314	0.310	0.311	0.307	0.302	0.302	0.295			↘	😊
상대적 빈곤율	%	15.3	14.9	15.2	14.6	14.6	14.4	13.8			↘	😊
소득만족도	%	14.0	-	11.7	-	12.1	-	11.4			↗	😡
소비경향 만족도	%	13.3	-	12.7	-	13.6	-	13.9			↗	😐

* '-' 표시는 실측값이 없는 연도임

자료: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 <https://qol.kostat.go.kr/blife/result-main.do>에서 2017. 9. 21. 인출.

제 3 장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

제1절 지표체계 개발 과정

제2절 노인의 삶의 질 지표 개요

제3절 개별지표의 정의 및 산식

3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 <<

본 장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체계의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논점들을 살펴본 후, 확정된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기본 방향과 주요 구성 내용을 서술하고, 각 개별지표의 정의 및 산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지표체계 개발 과정

1. 기본 방향 설정

노인의 삶의 질을 수치화하여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인의 삶의 질 관련 기본 개념의 검토와 선행연구 고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설정하였다. 첫째, 지표 선정과 관련해서는 한국 노인의 삶의 질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지표를 선정한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에 관한 지표체계와 더불어 노인이 빈곤, 질병, 무위, 고독과 같은 4고(苦)를 경험하고 있고 연령 분리적 특징이 강한 한국 노인의 삶의 현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노년기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지표체계와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노인과의 비교는 실시하지 않고자 한다. 개발된 지표들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노인에게 주목하고 있기 때

문이다. 또한 개별지표들이 속해 있는 영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배치함으로써 개별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와 더불어 개별지표 측정에서의 타당성, 적절성, 방향성, 자료가용성, 비교 가능성을 준수하고자 하였다. 개별지표는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반영하는 측정 항목이어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측정 방법과 정의를 제시해야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삶의 질 수준과 관련한 '방향성'이 분명한 지표를 선정함으로써 지수화 결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본 지표의 수준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가 분명해야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시한 측정 항목을 보여 줄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자료의 가용성과 제시한 측정 항목의 시계열 및 국제 비교, 하위 집단별 비교 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개발된 지표체계가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지표체계의 간결성(parsimonious)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개별지표를 20~25개 범위에서 확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이러한 범위의 개별지표가 포함되었고 이는 지수화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 달성의 한 방법이었다.

2. 개발 과정

최종 지표체계를 확정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 단계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에 기초하여 연구진이 1차 안을 도출하였다. 1차 안은 노년기의 4고(苦)에 상응하는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별로 개인과 환경이라는 하위 영역 아래 38개 개별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수차례 연구진 회의를 진행하였다.

1차 안을 기반으로 하여 4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실시한 후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회의는 영역별 전문가 회의(소득, 건강, 참여)와 지수화 작업 관련 전문가 회의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고 수차례의 연구진 회의를 거쳐 2차 안을 마련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2차 안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였다. 2차 안은 개인,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이라는 구성틀에 기반하여 6개 영역과 44개 개별지표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조사는 영역별 전문가 회의에 참여하거나 제의를 받았던 노인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7년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총11일) 실시되었다. 전문가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조사로 실시되었고, 조사 내용은 지표체계 구성틀, 영역 및 하위 영역 구성의 적절성, 개별지표의 적절성, 지수화 방법 등이다(부록 1 참조). 조사 대상자 20명 중 17명이 응답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6개 영역과 총 30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된 3차 지표체계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지표체계에 포함된 각 영역과 하위 지표의 가중치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개별지표와 관련된 제안을 파악하였다(부록 2 참조). 조사 대상자는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전문가 50명이었고, 이 중 36명이 응답하였다.

네 번째로 2차 전문가 조사 결과에 대한 연구진 검토를 거쳐 6개 영역의 22개 개별지표를 최종 지표체제로 확정하였다.

[그림 3-1] 개발 과정 및 단계별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요

	주요 연구방법	지표체계(안) 개요
1단계	-이론적 검토 -연구진 회의 -전문가 회의	-1차안(4개 영역, 38개 지표)
2단계	-1차 전문가 조사(20명 대상, 17명 응답) -연구진 회의	-2차안(6개 영역, 44개 지표)
3단계	-연구진 회의 -2차 전문가 조사(50명 대상, 36명 응답)	-3차안(6개 영역, 30개 지표)
4단계	-연구진 회의	-4차안(6개 영역, 22개 지표)

가. 단계별 영역 구성

연구진이 제시한 1차 안과 2차 안의 가장 큰 차이는 4고(苦)라는 틀 대신 통계청의 삶의 질의 기본틀인 개인,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이라는 구성틀을 접목하였다는 점이다. 자문회의에서 노년기의 4고(苦)를 영역으로 설정하여 지표체계를 구성한 연구진 안에 대하여 너무 제한적인 틀이라는 지적과 통계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국인의 삶의 질을 근간으로 하여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전반적인 삶의 질 논의의 맥락에서 노인의 특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문가 조사(1차) 결과 4고(苦)라는 영역 구성의 논리 폐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동일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 및 경험, 인식과 같이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상황을 하위 영역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 또한 수정안인 3차 안에 반영하였다.

더불어 개인,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이라는 큰 구분은 1차 전문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삭제하였다. 연구진이 마련한 2차 안은 개인

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하여 역량 있는 개인인가 여부, 사회적 관계는 소속감, 안정감, 활동적 노화 등을 살펴보고, 환경적 조건을 통해서 안전을 포함한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을 포괄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가 전체적인 영역 구성과 관련하여 개인,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이라는 단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했다. 즉 사회적 관계는 영역 구성의 다각화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경적 조건은 조건 자체보다는 노인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통하여 파악하는 것이 본 지표체계의 목적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개인,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의 수위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 의견에 기반하여 구체화된 3차 안은 노인의 삶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 건강, 교육 및 여가, 가족 및 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및 환경이라는 6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개별지표를 개발함에 있어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각각의 필요성과 균형을 간과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특히 사회로부터의 배제와 소외 등과 같은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별지표를 포함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표 3-1 참조).

〈표 3-1〉 단계별 영역 구성의 변화

1차 안 (자문회의 검토용)		2차 안 (1차 전문가 조사용)		3차 안 및 최종 (2차 전문가 조사용)	
영역 (개념)	하위 영역	영역	중영역	영역	
경제상태 (빈곤)	개인	개인	소득 및 주거	소득	소득
	환경			주거	
건강			건강 행태	건강 결과	
	사회적 지원	건강			
	교육 및 문화여가		교육		
건강상태 (질병)	개인	사회적 관계	가족 공동체	문화 여가	
	환경			가족	교육 및 여가
사회참여 활동 (무위)	개인	환경적 조건	시민참여	공동체	
	환경			참여 인식	가족 및 공동체
가족사회적 관계 (고독)	개인	6개 영역	안전	경험 인식	
	환경			13개 중영역	안전 및 환경
4개 영역	8개 하위 영역				

나. 개별지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별지표는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된 1차 안을 기초로 하여, 두 번에 걸쳐 실시된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검토되고 수정·보완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검토된 개별지표는 59개이며, 영역별로 고려했던 지표를 중심으로 각 개별지표가 삭제 또는 보완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영역의 경우 총 14개의 개별지표가 논의되었고 이 중 4개의 개별지표가 선정되었다. ‘평균빈곤값’이 노인빈곤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지만, 다른 지표와의 일부 중복 가능성으로 인하여 제외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이유로 ‘노년기 소득불평등(지니

계수) 또한 삭제되었다. 전체 인구의 소득불평등에 비하여 노년기의 특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지적 또한 삭제 결정의 이유이기도 하다. 더불어 ‘평균빈곤갭’의 삭제에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표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또한 ‘개인소득 중 사적이전소득의 비중’ 지표는 삶의 질 전반을 다루기에는 영향력이 작다고 판단되며, 공적연금 지급률을 통해 연관된 이면인 사적이전소득에 대해 대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자문에 기초하여 삭제하였다.

한편, 경제상태를 검토하는 데 있어 자산과 소비를 고려하기 위하여 초기 단계에서는 ‘가구균등화 자산’, ‘자산대비 부채비중’, ‘가구지출액’, ‘소비지출 구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경제상태에 있어 소득이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므로 자산과 소비를 포함하지 않아도 노인의 경제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였다.

더불어 ‘최저주거기준 충족률’과 ‘소비지출 대비 주거관리비 비율’ 등이 고려되었지만, 주거의 수준은 경제상태와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주거기준 충족률’은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 영역에서 삭제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비지출 대비 주거관리비 비율’ 또한 자문회의에서 제안되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비를 포함하지 않아도 노인의 경제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였다.

또한 ‘고용률’은 초기에 검토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삭제되었다. 생계유지를 위해 강요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이 많은 상황에서, 노인의 높은 고용률이 높은 삶의 질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본 지표의 대안으로 ‘안정적인 고용률’을 고려하였지만, 이 또한 안정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74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합의를 도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삶의 질 수준과 관련한 '방향성'이 분명한 지표를 선정한다고 하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표 3-2〉 단계별 개별지표의 변화

	논의된 개별지표	1차 안 (자문회의 검토용)	2차 안 (1차전문가 조사용)	3차 안 (2차전문가 조사용)	최종안
소득	상대빈곤율	○	○	○	●
	개인소득 중 사적이전소득의 비중	○	×	×	×
	평균빈곤갭	×	○	○	×
	경제적 박탈 경험률	×	○	○	●
	공적연금 수급률	○	○	○	●
	노년기 소득불평등(지니계수)	○	○	×	×
	가구균등화 자산	○	○	×	×
	자산 대비 부채비중	○	×	×	×
	가구지출액	○	×	×	×
	소비지출 구성	○	×	×	×
	고용률/안정적 고용률	○	○	×	×
	경제상대 만족률	○	○	○	●
	최저주거 기준 충족률	○	○	×	×
	소비지출 대비 주거관리비 비율	×	○	×	×
건강	운동실천율	○	○	○	●
	영양관리 부족률	○	○	×	×
	건강검진 수검률/암검진 수검률	○	×	○	×
	ADL(기본적 일상활동) 제한율	○	○	×	×
	만성복합질환 유병률	○	○	×	×
	우울증 경험률	○	×	×	×
	치매 유병률	×	○	×	×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	○	○	●
	미치료율	○	○	○	×
	의료서비스 만족도	○	×	×	×
	건강기간 비율(건강수명과 평균수명 간 비율)	○	○	○	●
	주관적 건강인지율	○	○	○	●
	고등교육 이수율	×	○	○	●
	평생교육 참여율	○	○	○	●
여가	여가활동 참여율	○	○	○	●
	여가참여시간	○	×	×	×
	문화여가활동 만족률	○	○	○	×
가족 및 공동체	유배우율	×	○	○	●
	가족관계 만족률²⁾	×	○	○	●
	자녀와의 유대가 약한 노인	×	○	×	×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	○	×	×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비율³⁾	○	○	○	●
친구·지역사회 만족도	○	○	×	×	

	논의된 개별지표	1차 안 (자문회의 검토용)	2차 안 (1차전문가 조사용)	3차 안 (2차전문가 조사용)	최종안
	행복감	○	×	×	×
	지역사회 소속감	○	○	×	×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	○	○	○	●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정도	○	×	×	×
	비노인 임금 대비 노인의 임금 수준	○	×	×	×
	사회단체 참여율	×	○	○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	○	●
시민 참여	시민의식	×	○	×	×
	정치활동 참여율(투표율)	○	×	×	×
	정치적 자기역량인식	×	○	○	●
	대인신뢰	×	○	○	×
	기관신뢰	×	○	○	×
안전 및 환경	자기보고 범죄 피해율	×	○	○	×
	노인범죄율	○	×	×	×
	도로사망률	×	○	○	×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	○	○	●
	노인자살률	×	○	○	●
	사회안전에 대한 만족률	×	○	○	●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	○	×	×
	이동 만족도	×	○	×	×
	대중교통 만족도	○	×	×	×
	주거환경 만족률	×	×	○	●
	계	38개	44개	30개	22개

- 주: 1) 영역 명칭 및 논의된 개별지표는 '최종안'을 기준으로 작성됨.
 2) 1차 전문가 조사 시까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로 논의됨.
 3) 2차 전문가 조사 시까지 '친한 친구나 이웃의 수'로 논의됨.

두 번째 영역인 '건강'에서 검토된 개별지표는 12개였으며 이 중 최종 확정된 개별지표는 4개이다. 건강행태와 관련한 '운동실천율', '영양관리 부족률', '건강검진 수검률/암검진 수검률'이 검토되었다. 검토 결과 '운동실천율'이 가장 대표적인 개별지표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운동실천율'을 포함하되, 제안된 '권장 수준 운동실천율'을 '운동실천율'로 변경하였다. 이는 권장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건강검진 수검률'의 경우는 정부의 다각적인 건강검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노인이 건강검진을 받은 바 있으며¹²⁾ 대안으로 검

토된 ‘암검진 수검률’의 경우 암검진의 내용이 변화해 왔기 때문에 시계열 비교에 제한점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2차 전문가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낮은 중요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제외하였다. 건강 수준과 관련해서는 ‘영양관리부족률’, ‘ADL(기본적 일상활동) 제한율’, ‘만성복합질환 유병률’, ‘우울증 경험률’, ‘치매유병률’, ‘건강기간 비율’이 검토되었고,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는 가장 종합적으로 건강결과를 보여 주는 ‘건강기간 비율’을 선정하였다.

또한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의 결과를 살펴보기 위한 개별지표로 ‘공적장기요양보호율’, ‘미치료율’,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검토되었다. 이 중 다른 시기에 비하여 노년기에 특별히 요구되는, 기능 상태 저하에 따른 공적 보호체계가 노인의 삶에 반영된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공적장기요양보호율’을 선정하였다. ‘미치료율’과 ‘의료서비스 만족도’의 경우는 개인적 선호와 사회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삭제했다.

이러한 객관적 지표와 더불어 노인이 실제로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주관적 건강인지율’을 포함하였다. 본 지표는 지표체계 개발 초기 단계부터 포함되었던 것으로 초기에는 ‘건강상태 만족도’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으나 실제 조작적 정의와 차이가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표 명칭을 ‘주관적 건강인지율’로 수정하였다.

세 번째 영역인 ‘교육 및 여가’의 경우 5개의 개별지표가 검토되었고 최종적으로 3개의 지표가 확정되었다. 본 영역의 경우 관련 사회적 관심과 통계자료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지표가 많지 않았으며, ‘고등교육 이수율’과 ‘평생교육 참여율’은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 여가와

12)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건강검진률은 83.8%임.

관련하여 ‘문화여가 참여율’, ‘여가참여시간’과 ‘문화여가활동 만족률’ 등이 논의되었지만 문화여가 참여율¹³⁾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 참여시간과 만족률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다.

네 번째 영역인 ‘가족 및 공동체’의 경우 10개의 개별지표가 검토되었고 이 중 4개의 개별지표가 선정되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특화된 개별지표는 초기 단계에서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초기 연구진 안에는 ‘유배우율’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있는 여부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의 경우 유대의 정도와 관계에 대한 만족도 등이 논의되었지만, 자녀와의 관계의 복합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별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족관계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가족관계 만족률’을 최종적으로 포함하였다. 개별관계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다.¹⁴⁾

‘친구·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사회소속감’의 경우는 ‘시민참여’ 영역에서 살펴볼 사회단체 참여나 자원봉사활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정도를 보여 주는 지표이기도 하므로, ‘사회단체 참여율’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지표를 통하여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친한 친구·이웃이

13) 2014년도 고령화 연구패널 자료에 의하면 노인의 문화여가 참여율은 9.7%에 불과함. 또한 지표 명칭은 통계청에서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조사에서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어 초기에는 지표 명칭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로 지칭한 바 있음.

14)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는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더불어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조사하였음.

있는 비율'은 3차 안까지는 친한 친구·이웃 수라는 명칭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로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비율이 60% 수준에 불과하며 숫자보다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친구·이웃이 있는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표명과 그에 따른 정의로 변경하였다.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는 그 사회에서의 노인의 위상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는 지표로 사회 내 노인의 지위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되었다. 한편 '행복감' 지표의 경우 삶의 질의 결과이며 종합적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지표체계와 지수화 산출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섯 번째 영역인 '시민참여'의 경우는 8개 개별지표가 검토되었고, 이 중 3개의 개별지표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 '사회단체 참여율'과 '정치적 자기역량인식'의 2개 지표는 연구진이 마련한 1차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추가된 지표이다. '사회단체 참여율'은 지역사회 소속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대안적 지표로 제시되었으며 '가족 및 공동체' 영역보다는 '시민참여' 영역을 더 잘 구현한다는 지적, 즉 적절성과 대표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시민참여' 영역으로 이동 배치하였다. 한편 '정치적 자기역량인식'은 1차 안의 '정치활동 참여율(투표율)'을 대체하는 지표이다. 이는 '정치활동 참여율(투표율)'은 다양한 정치활동 중 일부만을 파악하고 있으며, 실제 노인의 삶의 질에는 본인의 행동을 통하여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의 역량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민의식'의 경우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시민의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를 갖지만 노인에게 특화된 측면이 없으며, 단순화하여 지표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 때문에 1차 전문가 조사를 통해 삭제되었다.¹⁵⁾ 또한 '대인신뢰'와 '기관신뢰'는 사회

15) 1)투표 참여, 2)세금 납부, 3)법과 규칙 준수 4)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 5)사회 또는 정

적 자본과 근접한 개념으로 2차 전문가 조사까지 포함되었으나, ‘기관신뢰’는 전문가들로부터 그 중요도가 매우 낮은 수준(10점 만점에 5.8점)으로 평가되어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대인신뢰’의 경우는 다른 개별지표와의 개념적 중복 가능성이 있어 제외하였다. ‘시민참여’ 영역은 ‘가족 및 공동체’ 영역과 더불어 가족-지역사회-시민사회라는 노인의 생활영역을 모두 포괄하게 되며,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은 존재 유무와 주관적인 인식에, ‘시민참여’ 영역은 활동 여부와 주관적인 인식에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 영역인 ‘안전 및 환경’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삶의 질 지표체계에서는 ‘안전’과 ‘환경’의 2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노인의 경우 노인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별지표가 많지 않으므로 통합하였다. 총 10개의 지표가 검토되었고 최종적으로 4개의 지표로 확정되었다. 노인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노인범죄율’, ‘자기보고 범죄 피해율’과 ‘도로사망률’이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은 지표이다. 초기 단계에서 ‘노인범죄율’이 제시되었지만 범죄행위자로서의 노인보다는 범죄 피해자로서의 노인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기보고 범죄 피해율’로 바꾸어 검토하였다. 그러나 2차 전문가 조사에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어 최종적으로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도로사망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이동만족도’의 경우는 자문회의를 통하여 지역적 기반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논의되었다. 즉 전문가들은 이동과 관련된 개별지표는 아직은 노인의 삶의 질을 논의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인자살률’의 경우는 자문회의를 통해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치단체에서 적극적 활동, 6)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 존중, 7)윤리적이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상품 구매, 8)기꺼이 군복무의 항목에 대한 8점 척도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러한 8개 항목의 단순 평균 등으로 단순화 할 수는 있음.

포함된 지표로, 전문가 조사에서도 그 중요성이 재확인되어 최종적으로 포함하였다. 초기에는 '건강'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안전 및 환경'이 더 적절한 영역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동 배치한 바 있다. 이는 자살을 정신건강 수준이 극단적으로 낮은 현상으로 보는 관점과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작동한 결과로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으로,¹⁶⁾ 노인자살의 복합적인 원인을 감안하여 '안전 및 환경' 영역으로 배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은 한 번도 이전의 여지가 없었던 주요 지표이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을 포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에 대한 만족률'과 '주거만족률' 지표를 포함하였다. 사회적 환경과 관련해서는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와 '사회안전에 대한 만족률'을 함께 고려하였으나 사회적 환경을 좀 더 폭넓게 포괄하고 있는 '사회안전에 대한 만족률'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¹⁷⁾ '주거환경 만족률'의 경우 초기의 주거관련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즉 '최저주거기준 충족률'과 같은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에 의한 것이다.

16)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10.9%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40.4%), 건강문제(24.4%), 외로움(13.3%), 부부·자녀·친구와의 갈등을 비롯한 단절(11.5%) 등으로 나타난 바 있음(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등, 2014).

17) 단, 국제 비교에 있어 사회적 안전에 대한 국제 비교가 불가능하여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지표를 활용하였음.

제2절 노인의 삶의 질 지표 개요

1. 구성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는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이 파악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 영역은 기본적인 경제적 보장을 통해 풍요로운 노후가 구현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영역으로 빈곤 수준과 정도,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현 정도 및 주관적인 만족도를 통하여 ‘소득’과 관련된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건강’ 영역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를 하고 보호가 필요할 때는 적절한 보호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건강한 노화가 구현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영역이다. 운동 및 검진을 통한 건강관리, 기능 저하 및 질병 발생에 대응한 적절한 서비스 이용 실태, 결과적 산물로서의 건강한 노후기간, 주관적인 만족도를 통하여 ‘건강’ 영역에서의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교육 및 여가’ 영역은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역량이 개발되고 삶의 활력과 자아실현을 가져올 수 있는 여가활동 참여가 구현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영역이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수준, 여가활동 참여 및 만족도를 통하여 ‘교육 및 여가’ 영역에서의 노인의 삶의 질이 파악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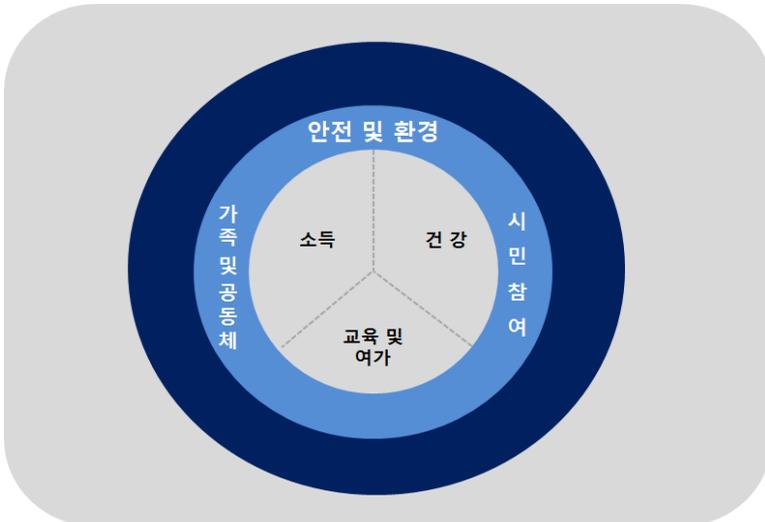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은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애정의 교환과 소속감이 부여되며 사회통합과 결속이 구현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영역으로 중요한 타자인 유배우, 가족관계, 친구·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시민참여’ 영역은 다양한 시민참여활동을 통하여 자아가 실현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역동적인 노후가 구현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영역이다.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활동

동 참여를 통한 시민적 자유의 구현 정도 및 정치적 효능감을 통하여 ‘시민참여’ 영역의 노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 영역인 ‘안전 및 환경’은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영역으로 확대 경험률, 자살률에 기초한 안전의 침해 정도, 주거환경 만족률을 통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사회안전에 대한 만족도에 기초하여 ‘안전 및 환경’ 영역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하여 Maslow의 욕구론에 언급된 요소들을 반영하고, 서로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 즉 사회통합과 결속이 이루어지고 시민참여가 활발한 공동체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물리적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3-2]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2. 개별지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는 22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로 3~4개의 개별지표를 포함하고 있어 영역 간 균형을 이루고 있다. 22개의 개별지표 중 약 27%인 6개의 지표는 주관적 지표이며 16개는 객관적 지표이다. 6개 영역 중 '교육 및 여가' 영역은 3개 지표가 모두 객관적 지표이며, '안전 및 환경' 영역의 경우 4개의 개별 지표 중 2개가 주관적 지표이다. 이는 '교육 및 여가' 영역은 아직 교육 및 여가 관련 활동을 하는가 여부가 중요한 단계이며, '안전 및 환경' 영역의 경우는 노인이 체감하는 안전감 및 환경에 대한 만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표 3-3〉 개별지표의 특징

대영역	개별지표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소득 (4개 지표)	상대빈곤율	○	
	경제적 박탈 경험률	○	
	공적연금 수급률	○	
	경제상태 만족률		○
건강 (4개 지표)	운동실천율	○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	
	건강기간 비율(건강수명과 평균수명 간 비율)	○	
	주관적 건강인지율		○
교육 및 여가 (3개 지표)	고등교육 이수율	○	
	평생교육 참여율	○	
	여가활동 참여율	○	
가족 및 공동체 (4개 지표)	유배우율	○	
	가족관계 만족률	○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비율	○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		○
시민참여 (3개 지표)	사회단체 참여율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정치적 자기역량인식		○
안전 및 환경 (4개 지표)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	
	노인자살률	○	
	사회안전에 대한 만족률		○
	주거환경 만족률		○
6개 영역	22개 지표	16개 지표	6개 지표

제3절 개별지표의 정의 및 산식

본 절에서는 개발된 22개의 개별지표에 대하여 각 지표가 제시된 배경과 구체적인 정의 및 산식, 자료원 현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개별지표에서는 노인실태조사를 비롯한 다수의 자료원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각각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단 제5장에서 이루어질 실제 시산 작업에서는 자료원 간에 특별한 우위를 가릴 수 없는 경우,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지수화 작업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노인실태조사가 노인을 조사 대상으로 특화하고 있으며, 법적인 기반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자료가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소득 영역

가. 상대빈곤율

□ 배경

- 소득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수단임. 특히 빈곤선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기준이 되므로, 노년기 삶의 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우리 사회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절대적인 빈곤감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 빈곤감과 삶의 질 간 관련성이 커지고 있음.
- 상대빈곤율은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 중의 하나인데, 본 연구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상대빈곤율이 노인의 삶을 구성하는 5가지 소득 관련 지표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소득금액과 다르게 작성 연도 물가 수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 수준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는 데 유용함.

- 한편 빈곤선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OECD 방식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가구원 수로 조정한(이하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소득의 50%임. 즉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 50% 미만이면 상대적 빈곤을 경험한다고 판정함.

□ 정의 및 산식

- 정의: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이 빈곤선(중위소득 50%) 미만인 비율
- 산식: (월평균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보다 적은 노인 수 / 65세 이상 조사자 수) × 100

□ 자료원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가계금융복지조사’,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OECD에 제출하는 상대빈곤율을 작성하는 데 활용됨. OECD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1인 가구를 포함하여 한 국가의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여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통계청, 2009, p. 68), 가계동향조사는 농어가를 제외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는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를 활용하여 상대빈곤율을 작성하고 있음.
-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상대빈곤율, 평균빈곤값 등 주요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하여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에서 공표하고 있음.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¹⁸⁾ 자료는 제공되지만, 성별과 연령별로 세분화된 자료는 포함하지 않음.

- 또한 통계청은 2012년부터 패널 방식을 적용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생활수준 정도와 변화, 자산의 규모와 구성 등 복지 및 금융 관련 정책 연구에 널리 활용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계의 소득과 지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소득분배지표 작성이 가능함. 그러나 소득분배지표는 대부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함.¹⁹⁾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매년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한 ‘빈곤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상대빈곤율을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빈곤통계연보는 성별 및 연령별로 세분화된 자료는 작성하지 않을뿐더러, 전년도의 소득 자료로 소득분배지표를 산출한 후 보고서로 발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전년도의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최대한 최근 시점 자료를 수록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직접 상대빈곤율을 산출함.
- OECD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상대빈곤율을 제공함. 노인 연령을 66~75세, 76세 이상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성별로 구분된 자료는 없음. 2003년 자료부터 제공되며, 국가별로 제공되는 시작 연도와 주기가 다름. 한국은 2006년부터 매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상대빈곤율 정보를 볼 수 있음.

18)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작성된 결과임.

19) 통계청 국가통계발전계획에 따르면 국가통계의 소득 기준은 2018년부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여 작성될 예정임.

나. 경제적 박탈 경험률

□ 배경

- 빈곤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집세 연체나 공과금 미납, 신용불량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 반대로 빈곤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소득 규모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의 소비지출 등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경험과 주관적인 인식을 통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한국복지패널은 다음과 같은 13개 생활 여건 어려움에 대해 경험 여부를 파악함.²⁰⁾ ① 2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②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③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 ④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못 준 경험, ⑤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⑥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 간 경험, ⑦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된 경험자 여부, ⑧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 자격을 정지당한 경험, ⑨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⑩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경험, ⑪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량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⑫ 경제적인

20) 한국복지패널조사는 2006년(1차) 시작되었으며, 생활 여건 어려움 관련 문항이 2006~2008년(1~3차) 8개에서 2009~2016년(4~11차) 13개로 확대됨. 생활 여건 어려움 관련 문항이 확대된 이유는 식사 관련 문항이 1개에서 5개로 보다 세분화되었기 때문임.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먹은 경험, 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는데도 먹지 못한 경험.

- 본 연구는 생활 여건의 어려움을 1개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경제적 박탈을 경험한 것으로 간주함.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조사에서는 경제적 박탈을 구성하는 요소 간 수위가 다르므로(공과금 미납, 신용불량 등)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그러나 본 연구진은 경제적 박탈의 심도보다는 경험 여부 자체가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여 구성 요소 간 동일한 가중치를 주고 분석을 실시함. 이러한 구성 요소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은 자칫 연구자의 주관에 치우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 정의 및 산식

- 정의: 65세 이상 노인 중 공과금 미납, 집세 연체, 신용불량 등 경제적 박탈을 경험한 노인의 비율
- 산식: (경제적 박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에서 생활하는 노인 수 / 65세 이상 조사자 수) × 100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다. 공적연금 수급률

□ 배경

- 공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1층을 구성함. 소득 영역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공적연금 수급률은 상대빈곤율 다음으로 높은 2순위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노후 삶의 질에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한다 할 수 있음.
- 공적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교사나 공무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으로 구분되는데, 국민연금이 가입 대상이 넓은 만큼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음. 본 연구는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공적연금의 범위를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으로 한정함.

□ 정의 및 산식

- 정의: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수급받는 노인의 비율
- 산식: $(\text{공적연금을 수급하는 노인 수} / \text{65세 이상 인구}) \times 100$

□ 자료원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보’,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내부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라. 경제상태 만족률

□ 배경

- 경제상태 만족률은 경제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으로, 노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물질적인 삶의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객관적인 경제상황과 더불어 주관적인 소득평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개인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평가가 다르기 때문임. 또한 객관적인 경제상황과 주관적인 소득평가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상태에 대해 주관적인 지표와 객관적인 지표를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가구의 경제상태는 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경제상태와 다를 수 있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는 노인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해 ① 매우 만족함, ② 만족함,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하지 않음, ⑤ 전혀 만족하지 않음으로 조사하고 있음. 따라서 ① 매우 만족함과 ② 만족함으로 응답한 노인의 비율을 산출함.
- 전문가 조사에서 경제상태 만족률에 대해 만족 비율 대신 불만족 비율로 살펴본다면 노인의 삶의 질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이는 불만족한 사람이 적은 사회(삶)가 좋은지, 만족한 사람이 많은 사회(삶)가 좋은지 등 사회정의의 담론과 연관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 사회에 이러한 사회정의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연구진은 만족도 지표를 활용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인 ‘만족 비율’을 사용함.

□ 정의 및 산식

- 정의: 65세 이상 노인 중 자신의 경제상태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노인의 비율
- 산식: (자신의 경제상태에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노인의 수 / 65세 이상 조사자 수) ×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경제상태 만족도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자료는 부재하였음.

2. 건강 영역

가. 운동실천율

□ 배경

-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활동은 건강 증진과 근력기능 향상을 통해 노인의 건강 수명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정경희 등, 2012)
 - 운동실천은 건강증진의 중요한 요소이자 사회참여의 기초요소가 되기도 함.
- 노인(65세 이상)의 신체활동 지침에 의하면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력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만성질환을 예방(보건복지부, 2013, p. 8).
 - 노인들에게 있을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이나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해야 함.

□ 정의 및 산식

- 정의: 평소 운동을 실천한 비율(예: 주 1회 이상, 연속적으로 10분 이상 운동)
- 산식: (운동실천 응답 노인 수 / 65세 이상 조사자 수) ×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에서 2011년 이후 관련 지표를 생산할 수 있는 문항이 개발됨.

-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인 국민건강통계(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는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제시됨.
- 국제 비교는 AAI의 지표를 이용할 수 있음.
 - AAI(physical exercise)의 실제 활용 자료원은 European Quality Life Survey(EQLS)임.

나.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 배경

- 기능이 저하된 노인의 적절한 보호와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적 영역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 정의 및 산식

- 정의: 신체 및 인지기능이 저하된 경우, 공적 돌봄(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
- 산식: $\frac{\text{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수} + \text{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혜자 수}}{\text{일상생활수행능력(ADL) 장애자} + \text{치매유병자}} \times 100$

□ 자료원

- 2008년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건보공단)에 매년 발표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서 재가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장애 비율 산출

- 보건복지부 치매노인 유병률 조사(2008년, 2012년)에서 치매유병자 수를 추정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혜자 수 산출
- OECD Health data에서 매년 장기요양보호수급자 비율 제시

다. 건강기간 비율(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비율)

□ 배경

- 건강수명은 생존연수와 삶의 질을 단일한척도로 통합한 인구집단의 건강 척도임. 건강수명(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는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을 의미함.

□ 정의 및 산식

- 정의: 기대여명 중 질병·사고가 없는 건강기간 비율
- 산식: {건강수명(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평균수명(기대수명)}×100

□ 자료원

- 생명표(통계청)에서 평균수명(매년)은 매년 발표되고 있으나 건강수명은 2012년 이후 격년을 주기로 생산됨.
- WHO의 World Health Statistics에서 매년 발표
 - 단, WHO 보고서 발간연도와 평균(건강)수명 공표 시기 간 시점 차이 존재

라. 주관적 건강인지율

□ 배경

-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질병 및 장애유무, 정도 등과 관련됨(정경희 등, 2013).
- 건강에 대한 자가평가는 신체적 요인과 감정적인 요인을 포함하는 건강 수준의 측정 지표로 사용됨.

□ 정의 및 산식

- 정의: 스스로 평소 건강상태를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비율(매우 건강하다 또는 건강한 편이다)
- 산식: (자신의 건강상태에 매우 건강 또는 건강한 편으로 응답한 노인 수 / 65세 이상 조사자 수) ×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
- 국민건강통계(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통계청에서 매년 ‘사회조사’에서 격년(보건 분야)으로 산출
- OECD Health data(perceived health status), OECD Better life index(self-reported health)
- World value survey(state of health)

3. 교육 및 여가 영역

가. 고등교육 이수율

□ 배경

-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5대 의무 중 하나로, 지식, 기술, 기능, 가치관 등을 배우는 활동으로 교육을 통하여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사회가 유지·발전될 수 있다는 의의를 갖고 있음.
 - 통상적으로 교육 수준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어린이를 위한 초등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등교육,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으로 구분됨.
- 그러나 한국에서 노인의 교육 수준을 구분할 때 이러한 구분을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음. 현재 노인의 7.8%만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도 16.6%에 불과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목표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제안하고자 함.

□ 정의 및 산식

- 정의: 65세 이상 노인 중 고등학교 졸업(수료) 이상 비율
- 산식: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했다고 응답한 노인 수 / 65세 이상 조사자 수) × 100

□ 자료원

- 통계청에서는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항목에 교육 수준이 포함됨.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의 교육 수준을 좀 더 상세히 조사하고 있으며, 교육연수도 함께 파악하고 있음.
- 국제 비교는 Euro stat의 EU Labour Survey(Educational attainment level)를 활용할 수 있음.
 -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Tertiary education 항목 활용

나. 평생교육 참여율

□ 배경

- 평생에 걸쳐서 행해지는 교육을 의미하는 평생교육은 기존의 학교 중심의 교육을 벗어나 고령화 시대에 요구되는 활동임. 자기주도성이 강조되며, 자신의 지속적인 인적자본 개발과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

□ 정의 및 산식

- 정의: 노인 중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
- 산식: (평생교육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노인 수 / 65세 이상 조사자 수) ×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노인 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여부가 조사되고 있음.
-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양상, 학습 장애 요인, 학습활동 패턴 이해를 통해 평생학습 참여 실태 등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매년 ‘평생학습개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단, 본 조사는 조사 대상이 만 25~64세로 제한되어 있음. 한편 유럽 국가 등에서는 관련 통계가 55~74세(55~64세, 65~74세의 2개 연령군 구분)로 산출되고 있음.
- 따라서 시계열 비교에서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국제 비교에서는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함.

다. 여가활동 참여율

□ 배경

- 여가활동은 인간의 자아실현 욕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활동임.
- Maslow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다섯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욕구 수준은 아래 단계인 생리적 욕구부터 안전적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자기존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로 구성됨.
- 사회적 발전이 진행되면서 사회적·개인적 욕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정의 및 산식

- 정의: 여가활동에 참여한 노인의 비율
- 산식: (지난 1년 동안 영화, 공연, 음악회, 전시회, 스포츠를 관람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지난 1년 동안 취미 및 오락 관련 모임이나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수 / 65세 이상 조사자 수) ×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노인 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에 대한 여가활동 관련 내용이 조사되고 있으나, 연도별로 조사한 방식에 차이가 있음.
- 통계청에서는 ‘사회조사’를 통하여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음악·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유물전시회 등 포함), 미술관(공예, 서화, 전시회 포함) 관람을 조사함. 이 조사는 노인과 비노인을 비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조사 내용이 여가활동 중 일부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음.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화 연구패널’에서는 격년으로 동일한 질문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사한 구성의 조사로 미국의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 영국의 ELSA(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ing)가 실시되고 있어 국제 비교의 가능성도 높음.

4. 가족 및 공동체

가. 유배우율

□ 배경

- 노년기에 정서 및 도구적 도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원이며, 비상시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우자 여부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

□ 정의 및 산식

- 정의: 배우자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
- 산식: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노인 수 / 65세 이상 조사자 수) ×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노인 실태조사'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모든 국민의 결혼상태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나. 가족관계 만족률

□ 배경

- 가족의 존재 자체는 가용성(availability)을 보여 주지만, 노인의 삶에서 실제로 긍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 만족률을 통하여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임.

□ 정의 및 산식

- 정의: 65세 이상 노인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약간, 매우) 만족한 비율
- 산식: $[\text{가족관계에 만족(약간 만족 및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 수} / \text{65세 이상 조사자 수}] \times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각각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더불어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노인 실태조사’에서는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 각각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다.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비율

□ 배경

- 친한 친구·이웃이 있다는 것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노년기에는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의 사망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의 규모가 축소하게 됨.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평균이 1.6명임.

□ 정의 및 산식

- 정의: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

○ 산식: (친한 친구·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수/ 65세 이상 조사자 수)×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노인 실태조사’에서는 친한 친구·이웃의 수가 조사되고 있음.

○ 유럽국가의 경우 European Social Survey를 통하여 조사되고 있음.

라.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

□ 배경

○ 노인의 사회적 위상을 높다고 느낄수록 노인의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음. 사회적 위상을 높게 판단한다는 것은 한 사회에서 노인이 배제되지 않고 존중받고 있음을 의미함.

□ 정의 및 산식

○ 정의: 노인이 평가한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균 점수

○ 산식: (노인이 평가한 노인의 사회적 위상 점수(10점 만점)/ 65세 이상 조사자 수)×100

□ 자료원

○ World value survey(wave 6:2010-2014)를 통하여 52개국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지표는 단년도(wave 6(2010-2014))에 한해서만 조사됨.

5. 시민참여

가. 사회단체 참여율

□ 배경

- 다양한 사회단체 참여를 통하여 시민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노인의 존경(자기존중)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가 동시에 구현될 수 있음.

□ 정의 및 산식

- 정의: 65세 이상 노인 중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
- 산식: (사회단체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노인 수 / 65세 이상 조사자 수) ×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노인 실태조사'
 -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연도별로 조사된 사회단체 수에 차이가 있음. 2011년과 2014년은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의 3개 단체 참여 여부가 조사되었고, 2004년에는 동호회는 문화활동과 운동단체로 구분되어 조사되었으며, 종교단체가 추가 조사되었음.
- 따라서 사회단체 참여율을 파악하는 데 이러한 연도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배경

-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자원봉사활동은, 보통 비영리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다양한 사회단체 참여와 더불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노인의 존경(자기존중)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가 동시에 구현될 수 있음.

□ 정의 및 산식

- 정의: 65세 이상 노인 중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
- 산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 수 / 65세 이상 조사자 수) ×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노인 실태조사'

다. 정치적 자기역량인식

□ 배경

-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더불어 정치적인 자기역량을 느낄 때 노인의 삶의 질은 개선될 수 있음.

- 정치활동은 자신의 참여가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와 노인의 자존감을 제고할 수 있음.

□ 정의 및 산식

- 정의: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동의(매우 동의 포함)하는 노인의 비율
- 산식: (대체로 또는 매우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65~69세 노인 수 / 65~69세 조사자 수) × 100

□ 자료원

- 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11년에 처음 실시되어 매년 조사되고 있음.
 - 70세 이상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음.

6. 안전 및 환경

가.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 배경

- 노인안전의 침해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노인학대는 노인 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됨.

□ 정의 및 산식

- 정의: 65세 이상 노인 중 학대를 경험한 비율
- 산식: (학대(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방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수 / 65세 이상 조사자 수) × 100

□ 자료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노인 실태조사'

나. 노인자살률

□ 배경

- 한국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하여 노인의 자살률이 높고,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뒤르켐은 자살을 개인적 행위의 단순 총합이 아닌 사회적 사실

(social fact)로 파악하고 있음. 노인의 높은 자살률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노인 위상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사회적 결과로 볼 수 있음.

□ 정의 및 산식

- 정의: 65세 이상 노인 중 자살로 사망한 비율
- 산식: $(65\text{세 이상 자살 사망자 수} / 65\text{세 이상 총 인구 수}) \times 100,000$

□ 자료원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국제비교시는 OECD의 ‘Health data’를 활용할 수 있음.

다. 주거환경 만족률

□ 배경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노인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정의 및 산식

- 정의: 65세 이상 노인 중 전반적인 주거환경에 대해 (매우) 만족한 비율
- 산식: $(\text{전반적인 주거환경에 대하여 만족(대체로+매우)한다고 응답한 노인 수} / 65\text{세 이상 조사자 수}) \times 100$

□ 자료원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라. 사회안전에 대한 만족률

□ 배경

- 사회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노인의 삶도 안전할 수 있고, 이는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정의 및 산식

- 정의: 65세 이상 노인 중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해 대체로 만족(매우 만족)한 비율
- 산식: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해 대체로 만족(매우 만족)한 노인 수 / 65세 이상 조사자 수) × 100

□ 자료원

- 통계청 '사회조사'
- 사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부재로 인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한 자료가 없음.
 - 따라서 국제 비교 시에는 본 지표의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야간보행에 대한 만족도(통계청, 사회조사)'를 활용함.

제 4 장

노인의 삶의 질
시산을 위한 기초 검토

제1절 개별지표별 자료원 검토

제2절 지수화 방법

4

노인의 삶의 질 << 시산을 위한 기초 검토

본 장에서는 개발된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의 시산과 그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구체적인 개별지표의 적용 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초점은 개발된 개별지표의 가용 자료원에 대한 검토에 둔다. 노인 전체의 삶의 질 지수 산출과 노인의 삶의 질 국제 비교, 인구집단별 삶의 질 지수 산출 및 노인의 삶의 질 변화 추이는 가용 자료원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각 개별지표에 대한 전문가의 가중치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1절 개별지표별 자료원 검토

본 연구는 22개 개별지표를 활용하여 노인의 삶의 질 영역별 점수와 종합점수를 산출할 것이다. 이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방법과 전문가가 부여한 가중치를 활용한 2가지 방법을 모두 시도해 볼 것이다.²¹⁾ 이러한 노인의 삶의 질 점수는 가장 완벽한 삶의 질 수준을 100점, 가장 낮은 삶의 질 수준을 0점으로 했을 때 해당하는 점수로 이해될 수 있도록 계산하였으며, 2014년을 기준으로 지수가 제시될 것이다. 개별지표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 가장 최근 자료가 2014년도이기 때문에 2014년을 기준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개발된 22개 개별지표의 가용 자료원을 정리해 보면 <표 4-1>과 같으며, ²²⁾ 활용된 자료원의 특징은 <표 4-2>와 같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국제 비교는 노인의 삶의 질 시

21) 전문가가 부여한 가중치는 제2절에서 기술할 예정이다.

22) 개별지표별 관련 분석 문항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부록 5에 제시되어 있음.

산작업이 처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정 국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국제 비교 대상 국가는 Esping-Andersen(1990)의 분류를 기반으로 하되 여유진 등(2016)의 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사민주의 복지국가 유형의 대표적인 국가로 스웨덴을 선정하였다. 조합주의 복지국가로는 독일을 선정하였으며,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는 영국과 스페인을 선정하였는데, 영국은 여유진 등(2016)에 의하면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현물-가족지출 중심 국가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스페인은 현금-노인 중심형으로 대립적인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²³⁾ 이러한 국제 비교를 통하여 국제적인 맥락에서 한국 노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 비교 역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4년을 중심으로 자료가 제공되어, 2014년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개별지표 중 ‘공적연금 수급률’, ‘가족관계 만족률’,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의 3개 지표는 비교 대상인 4개국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적연금 수급률’의 경우 국가별로 공적연금 제도설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관계 만족률’,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의 경우는 문화적 차이와 가족관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한 통계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비율’은 국내와 국외의 자료원이 상이하고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여 국제 비교에 포함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수화 작업에서 제외하였다.

연령군별 분류가 약간 상이하거나 질문이 동일하지는 않아도 유사한 경우는 주를 통하여 밝히면서 국제 비교용 시산 작업에 활용하고자 한다.

23) 여유진 등(2016)은 현금/현물 중심인가와 가족지출 중심 또는 노인 중심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2개의 기준에 의하여 사회지출 유형을 분류하고 있음. 이러한 분류에 의하면 스웨덴은 현물-가족지출 중심형, 독일은 현물-노인 중심형, 영국은 현물-가족 중심형, 독일은 현물-노인 중심형, 스페인은 현금-노인 중심형으로 분류되며, 한국은 현물-노인 중심형으로 독일과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되었음.

또한 노인자살률은 다른 지표와는 단위가 다르고 최악의 수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²⁴⁾ 따라서 국제 비교는 22개 지표 중 17개 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고자 한다.²⁵⁾

세 번째로 노인의 내적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집단별로 삶의 질 지수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성별과 연령군별 비교(전기노인(65~79세)과 후기노인(80세 이상))를 실시할 것이다. 삶의 질에 있어서의 성별 비교는 MIPAA에서 노년기의 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이며, 연령군별 비교는 한국의 압축적인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예비노인의 삶의 질은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에 대한 단초를 얻기 위함이다. 더불어 평균수명의 증대와 노인 인구의 연령 구성 변화로 인하여 연령에 따른 삶의 질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인구집단별로 삶의 질 지수화 작업을 위해서는 개별지표별로 그에 부합하는 가용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토 결과 ‘건강기간 비율’과 같이 지표의 정의상 성별·연령군별 통계산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표와 ‘정치적 자기역량인식’과 같이 조사자료의 규모상 성별·연령군별 통계산출이 안정적이지 못한 지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2개 지표의 경우는 지수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노인 전체의 통계치를 활용하고자 한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노인의 삶의 질 점수에 대해 국제 비교를 실시하고 인구집단별 비교를 함으로써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4) 추가적인 서술은 p. 123의 ‘2. 시산방법’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5장에서 보고될 지수화 작업에서는 노인자살률을 제외하고자 함. 단, 노인자살률을 다양한 관점에서 산출하여 포함한 결과는 제6장에서 산출비교될 것임.

25) 국제 비교에 활용한 통계는 부록6에 제시되어 있음. 제6장에서 이루어질 시산은 부정방향의 수치는 100에서 원통계치를 빼서 활용하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이 과거에 비하여 향상된 것인지 아니면 악화된 것인지 하는 변화 추이를 살핍으로써,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원인은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고, 향후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관심을 둔 시계열 비교는 2004~2014년으로 약 10년을 관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2년 주기로 시산을 실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년의 통계를 확보하였다.²⁶⁾ 이때 활용한 자료에 따라서 각 연도의 통계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적 장기요양보호율’은 그 근간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며, 통계 산출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기간 비율’,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나 ‘정치적 자기역량인식’과 같이 최근에 들어와 조사가 시작된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가능한 한 모든 지표에 대해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기 위하여, ‘공적 장기요양보호율’과 같은 경우 2008년 이전은 2008년 통계를 활용하거나,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나 ‘정치적 자기역량인식’과 같이 최근에 들어와 조사가 시작된 경우는 모든 연도에 동일한 통계치를 지수화 작업에 활용하였다. 또한 2년 이상의 주기로 통계 산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이 연도의 평균증가율을 반영하여 수치를 생성하였다. 더불어 가장 많은 지표의 자료원인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3년 주기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조사 연도가 2004, 2008, 2011, 2014년이다. 따라서 2011년 통계가 2012년 통계치로 활용될 것이다.

한편 활용된 자료원별로 기본적인 특징과 관련된 개별지표를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26) 연도별, 인구집단별 통계치는 부록7에 제시되어 있음.

〈표 4-1〉 개별지표별 자료원 현황

대영역	개별지표	기용 자료원	분식 단위	국제 비교 (14 기준)	성별 (14 기준)	연령 (14 기준)	시계열 (04~14)	비고
소득	상대빈곤율 (부정 방향) ¹⁾	가계동향조사	%	○	○	○	△ 2004년 자료 없음 → 2008년 자료 활용	-가계동향조사 조사 대상 가구가 2006년부터 2인 이상에서 1인 이 상으로 확대됨.
	경제적 파탄 경험률 (부정 방향) ¹⁾	한국복지패널	%	○	○	○	○	-연도별 박탈지표 수 상이
	공적연금 수급률	국민공무원 사회연금 통계연보 발령유체국민연금 단 내부자료	%	×	○	○	○	-
	경제상태 만족률	노인실태조사 ³⁾	%	○	○	○	○	-2004년은 동년배와 비교한 경제상태 문항이 조사됨.
건강	운동실천율	노인실태조사 ³⁾	%	○	○	○	○	-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치매유병률조사/ 노인실태조사 ³⁾	%	○	○	○	△ 2004년과 2006년은 2008년 자료를 활용	-제도 2008년부터 시행
	건강기간 비율 ²⁾	생명표(국내)/ WHO World Health Statistics(국제 비교)	%	○ ¹⁾	×	×	△ 2012, 2014년만 자료 있음	-건강수명: 2012, 2014년만 제시
	주관적 건강인지율	Statiscos(국제 비교) 노인실태조사 ³⁾	%	○	○	○	○	-

주: 1) 부정 방향의 수치인 경우는 지수 산출 시 100 - 원지표값으로 계산하여 활용함.

2) 건강기간 비율의 국제 비교의 경우 2013년을 중심으로 작성됨.

3)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2012년 자료에는 2011년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연도는 조사가 실시된 연도 결과의 평균증가율을 반영하였음.

대영역	개별지표	가용 자료원	분석 단위	국제 비교 (‘14 기준)	성별 (‘14 기준)	연령 (‘14 기준)	시계열 (‘04~‘14)	비고
교육 및 여가	고등교육 이수율 ¹⁾	노인실태조사(국내) ²⁾ / 노인실태조사 인구총조사(국제 비교)	%	O ¹⁾ (55~74세 대상)	O	O	O	-
		노인실태조사(국내) ²⁾ / 노인실태조사,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국제 비교)	%	O ¹⁾ (55~74세 대상)	O	O	O	-평생교육 시점 연도별 상이(전 생애/최근 1년 등) -본인 응답자를 기준으로 분석
	여기활동 참여율 유배우율	고령화 연구패널 노인실태조사 ²⁾	% %	O O	O O	O O	O O	-
		가족관계 만족률	사회조사	%	X	O	O	△ 2004년 자료 없음 → 2006년 자료 활용
가족 및 공동체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비율	노인실태조사 ²⁾	%	O	O	O	O	-본인 응답자를 기준으로 분석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	World value survey	% (10점 만점 점수, 10점을 100%로 환산)	O	O	O	X 2014년 자료만 있음 → 모든 연도 2014년 자료 활용	-해당 연도만 조사

주: 1)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교육 참여율의 국제 비교의 경우 2016년을 기준으로 작성됨.
 2)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2012년 자료에는 2011년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연도는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연도의 조사 결과의 평균값을 반영 하였음.

대영역	개별지표	가용 자료원	분석 단위	국제 비교 ('14 기준)	성별 ('14 기준)	연령 ('14 기준)	시계열 ('04~'14)	비고
시민 참여	사회단체 참여율	노인실태조사 ²⁾	%	○	○	○	○	-연도별 단계 수상이(2004년 5개, 2008년 8개, 2011년 14년 3개) -시점 상이: 2014년 이후(지난 1년간 기준) -본인 응답자를 기준으로 분석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노인실태조사 ²⁾	%	○	○	○	○	
	정치적 자기역량인식	사회통합실태 조사	%	○	○	×	×	-조사 대상: 69세 이하 -분석 대상: 65~69세
안전 및 환경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¹⁾ (부정 방형 ¹⁾)	노인실태조사 ²⁾	%	×	○	○	○	
	노인지사실 ¹⁾ (부정 방형)	사망원인통계	%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 ³⁾	(○)	(○)	(○)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지수화 작업시, 환산 방법(계6장 참조) ① 노인 하위 집단 중 가장 높은 자살률 (222.7(2010년 80세 이상 남자 자살률)을 100(최고치)으로 하여 환산 ② 시계열 비교 기간중 가장 높은 노인자살률(2010년 81.9)을 100(최고치)으로 하여 환산
	주거환경 만족률	주거실태조사	%	○ ³⁾	○	○	△	
사회인권에 대한 평가	주거환경 만족률	주거실태조사	%	○ ³⁾	○	○	△	
	사회인권에 대한 평가	사회조사	%	△	○	○	○	-국제 비교 시에는 국내의 경우도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로 비교

주: 1) 부정 방형의 수치인 경우는 지수 산출 시 100 - 원지표값으로 계산하여 활용함.
 2)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2012년 자료에는 2011년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연도는 조사가 실시된 연도 결과의 평균증가율을 반영 하였음.
 3) 노인자살률 및 주거환경 만족률 국제 비교의 경우 노인자살률은 2013년, 주거환경 만족률은 2012년 자료를 활용함.

〈표 4-2〉 자료원의 특징

활용 자료원	조사 주체	조사 대상 규모 ¹⁾ (65세 이상, 최근 연도 기준)	조사 주기	본 연구의 개별지표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2,860명('16)	분기	(소득)상대빈곤율
고령화 연구패널	한국고용정보원	4,226('14)	격년	(교육/여가)여가활동 참여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통계연보 사학연금통계연보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내부자료	국민(공무원, 사학) 연금관리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2,533천명('14)	매년	(소득)공적연금 수급률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279명('14)	3년	(소득)경제상태 만족률 (건강)운동실천율 (건강)주관적 건강인지율 (교육/여가)고등교육 이수율 (교육/여가)평생교육 참여율 (가족/공동체)유배우율 (가족/공동체)친한친구이웃비율 (시민참여)사회단체참여율 (시민참여)자원봉사활동참여율 (안전/환경)노인학대피해경험률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	격년	(안전/환경)노인자살률
사회조사	통계청	8,193명('16)	격년	(가족/공동체)가족관계 만족률 (안전/환경)사회안전에 대한 만족률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1,141명('16)	매년	(시민참여)정치적자기역량인식
생명표	통계청	-	격년	(건강)건강기간비율
장기요양통계연보	건강보험공단	443,000명('14)	매년	(건강)공적 장기요양보호율
주거실태조사	국토연구원	6,664명('16)	매년	(안전/환경)주거환경만족률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840명('15)	매년	(소득)경제적 박탈 경험률
World value survey	World value survey	109명('10~14)	비정기	(가족/공동체)노인의 사회적 위상평가

주: 1) 65세 이상 사례 수는 지표별 최근 연도 가용 자료원을 기준으로 함.

2) 가구주(배우자) 65세 이상인 사례 수임.

제2절 지수화 방법

1. 가중치

선행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지수화에는 개별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동등하게 간주하여 산출하는 방법과 가중치를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모든 개별지표가 노인의 삶의 질에 동등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1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전문가의 약 60%가 전문가 조사를 통한 가중치 부여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산출한 지수와 전문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지수를 모두 산출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단 국제 비교의 경우는 비교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중치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동일 가중치 부여 결과만을 보고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2차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영역 및 개별 지표의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표 4-3>에서 살펴보면 ‘소득’과 ‘건강’이라는 두 영역이 10점 만점에 9.3점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시민참여’는 5.8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다음이 ‘교육 및 여가’로 6.6점이다.

〈표 4-3〉 영역별 절대평가 및 우선순위

(단위: 점, 순위)

영역	절대평가	우선순위
소득	9.3(1.3)	2
건강	9.3(1.4)	1
교육 및 여가	6.6(1.5)	5
가족 및 공동체	7.9(1.5)	3
시민참여	5.8(1.8)	6
안전 및 환경	6.9(1.7)	4

주: 1) 절대평가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표준편차) 점수를 기재함.
 2) 우선순위는 영역별 우선순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경우를 1순위, 가장 낮은 경우를 6순위로 기재함.

다음으로 영역별 개별지표의 가중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 영역의 개별지표 중 전문가가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은 ‘상대빈곤율’로 8.5점이다. ‘경제적 박탈 경험률’이 7.7점으로 본 영역 중에서는 가장 점수가 낮지만 다른 영역의 개별지표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표 4-4〉 소득 영역 개별지표 절대평가 및 우선순위

(단위: 점, 순위)

소득 영역	절대평가 점수	우선순위
상대빈곤율	8.5(1.3)	1
평균빈곤갭 ³⁾	7.8(1.6)	5
경제적 박탈 경험률	7.7(1.6)	4
공적연금 수급률	8.2(1.7)	2
경제상태 만족도	8.1(1.7)	3

주: 1) 절대평가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표준편차) 점수를 기재함.
 2) 우선순위는 영역별 우선순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경우를 1순위로 기재함.
 3) 평균빈곤갭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한 통계가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서 최종 지표체계에는 포함하지 않았음. 개별지표에 대한 절대평가 점수는 본 지표의 포함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음.

‘건강’ 영역의 개별지표 중 전문가가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은 ‘건강기간 비율’로 8.8점이다. 이와 더불어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과 ‘건강상태 만족도’가 8점대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은 응답자의 자의성과 시대변화에 따른 진폭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표 4-5〉 건강 영역 개별지표 절대평가 및 우선순위

(단위: 점, 순위)

건강 영역	절대평가	우선순위
운동실천율	7.4(1.9)	5
암검진 수검률 ³⁾	6.5(2.0)	6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7.9(1.8)	4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³⁾	8.5(1.9)	2
건강기간 비율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차이)	8.8(1.4)	1
건강상태 만족도 ⁴⁾	8.3(1.6)	3

- 주: 1) 절대평가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표준편차) 점수를 기재함.
 2) 우선순위는 영역별 우선순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경우를 1순위로 기재함.
 3) '암검진 수검률'의 경우 우선순위가 가장 낮고 절대평가 점수도 6.5점으로 낮음.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은 응답자의 자의성 및 시대변화에 따른 진폭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본 지표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지표체계에 포함하지 않았음. 개별지표에 대한 절대평가 점수는 본 지표의 포함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음.
 4) 건강상태 만족도는 최종적으로 '주관적 건강인지율'로 변경됨.

‘교육 및 여가’ 영역의 개별지표 중 전문가가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은 ‘여가활동 참여율’로 8.5점이다. 이외의 지표에 대한 점수는 모두 낮은 편이다. 반면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의 3개 개별지표에 대해서는 모두 8점 이상의 점수가 부여되었다.

〈표 4-6〉 교육 및 여가 영역 개별지표 절대평가 및 우선순위

(단위: 점, 순위)

교육 및 여가 영역	절대평가	우선순위
고등교육 이수율	6.3(1.5)	4
평생교육 참여율	7.1(1.7)	3
여가활동 참여율	8.5(1.7)	1
여가활동 만족률 ³⁾	7.9(2.2)	2

- 주: 1) 절대평가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표준편차) 점수를 기재함.
 2) 우선순위는 영역별 우선순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경우를 1순위로 기재함.
 3) 여가활동 참여율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 만족률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없다는 전문가 의견과 연구진 논의에 기초하여 최종 지표체계에는 포함하지 않았음. 개별지표에 대한 절대평가 점수는 본 지표의 포함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음.

〈표 4-7〉 가족 및 공동체 영역 개별지표 절대평가 및 우선순위

(단위: 점, 순위)		
가족 및 공동체 영역	절대평가	우선순위
유배우울	8.4(1.4)	2
가족관계 만족도	8.9(1.1)	1
친한 친구나 이웃 수 ³⁾	8.4(1.4)	3

- 주: 1) 절대평가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표준편차) 점수를 기재함.
 2) 우선순위는 영역별 우선순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경우를 1순위로 기재함.
 3) 친한 친구나 이웃 수는 최종적으로 '친한 친구나 이웃이 있는 비율'로 변경됨.

‘시민참여’ 영역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으로 모든 개별지표의 중요도는 8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기관신뢰’의 경우 5.8점이 부여되었다.

〈표 4-8〉 시민참여 영역 개별지표 절대평가 및 우선순위

(단위: 점, 순위)		
시민참여 영역	절대평가	우선순위
사회단체 참여율	7.6(1.8)	3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7.7(1.9)	1
정치적 자기역량인식	6.3(1.7)	4
대인신뢰 ³⁾	7.9(2.1)	2
기관신뢰 ³⁾	5.8(1.8)	5

- 주: 1) 절대평가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표준편차) 점수를 기재함.
 2) 우선순위는 영역별 우선순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경우를 1순위로 기재함.
 3) 낮은 점수와 본 영역의 다른 개별지표와 개념적으로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최종 지표체계에는 포함하지 않았음. 개별지표에 대한 절대평가 점수는 본 지표의 포함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음.

마지막 영역인 ‘안전 및 환경’의 경우 개별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매우 다양하다. ‘노인자살률’은 9.0점으로 개별지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과 ‘주거환경만족도’도 8점대의 점수가 부여되었다. 반면 ‘자기보고 범 죄 피해율’과 ‘도로사망률’은 7점 내외로 낮다.

(표 4-9) 안전 및 환경 영역 개별지표 절대평가 및 우선순위

(단위: 점, 순위)

안전 및 환경 영역	절대평가	우선순위
자기보고 범죄 피해율 ³⁾	7.2(2.0)	6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8.5(1.8)	2
노인자살률	9.0(1.3)	1
도로사망률 ³⁾	6.5(2.0)	7
주거환경만족도	8.1(1.6)	3
사회안전에 대한 만족률	7.5(1.8)	4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 ⁴⁾	7.4(1.9)	5

- 주: 1) 절대평가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표준편차) 점수를 기재함.
 2) 우선순위는 영역별 우선순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경우를 1순위로 기재함.
 3) 낮은 점수와 노인의 삶의 질과 직접적 관련성이 작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지표체계에는 포함하지 않음. 개별지표에 대한 절대평가 점수는 본 지표의 포함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음.
 4) 본 개별지표는 최종적으로 '가족 및 공동체' 영역으로 이동 배치하였음.

2. 시산 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22개의 개별지표의 정의와 산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율(%)로 환산이 가능하며, 개별지표별로 삶의 질이 가장 낮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가 존재한다(제3장 참조). 그러나 노인자살률의 경우는 예외이다. 무엇보다 먼저 노인자살률은 10만명 당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다른 지표에 비하여 발생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자살률의 최악의 수준 설정에 필요한 경험적 근거가 부족하다. 단순한 산식으로는 모든 노인의 죽음이 자살로 이루어진다고 상정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떤 수준을 가장 최악의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지표값이 상이해진다. 즉 노인자살률의 특정 수치에 대하여 높거나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 노인자살률에 대한 지표값 산출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5장을 통하여 노인자살률을 제외하고 산출된 시산 결과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와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제6장에서는 노인자살률의 최악 수준 설정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산출된 지표값을 비교하고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산식

지수화 과정에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의 산식과 가중치를 부여한 지수화 과정을 특정 영역을 예로 들어 산식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중치는 크게 영역 가중치와 항목 가중치로 나뉜다. 앞서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집계된 영역과 지표에 대한 절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영역과 지표의 가중치가 계산된다.

〈표 4-10〉 전문가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항목별 가중치 환산 과정

(단위: 점)

건강 영역	절대평가 ¹⁾	가중치 환산식 ²⁾	가중치 환산값 ²⁾
운동실천율	7.4	7.4/32.4*100	22.84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7.9	7.9/32.4*100	24.38
건강기간 비율	8.8	8.8/32.4*100	27.16
건강상태 만족도 ⁴⁾	8.3	8.3/32.4*100	25.62
합계	32.4	-	100.0

- 주: 1) 절대평가 값은 전문가 조사 응답 결과를 기초로 하며, 〈표 4-5〉에 제시되어 있는 수치임.
- 2) 가중치 환산식은 절대평가 합(32.4) 대비 각 지표의 절대평가 비율이며, 그 결과가 가중치 환산값에 제시됨. .
- 3) 전문가 조사 결과 당시, '건강상태 만족도' 지표로 활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지표명이 '주관적 건강인지율'로 변경됨.

이렇게 환산된 가중치 값을 항목별 원자료값에 적용 시 항목별 가중치가 부여된 지표값이 도출된다. 해당 값들의 합이 항목별 가중치가 적용된 영역의 값이다.

〈표 4-11〉 항목별 가중치 적용 과정

(단위: 점)

건강 영역	원자료값	가중치 환산값	최종 지표값
운동실천율	58.1	22.84	13.3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67.4	24.38	16.4
건강기간 비율	79.4	27.16	21.6
건강상태 만족도 ³⁾	32.4	25.62	8.3
건강 영역 지수값 (항목별 가중치 적용)	-	-	59.6

주: 1) 최종지표값 = $\{\sum((원자료값 \times 가중치 환산값)/100)\}$ 으로 계산되었으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전문가 조사 결과 당시 '건강상태 만족도' 지표로 활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지표명이 '주관적 건강인지율'로 변경됨.

한편 동일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것은 실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개별지표값의 단순 합에 대한 산술평균값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영역별 가중치 적용은, 전문가들의 영역별 절대평가 값을 바탕으로 항목별 가중치 도출 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표 4-12〉 전문가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영역별 가중치 환산 과정

(단위: 점)

영역	절대평가	가중치 환산식 ²⁾	가중치 환산값 ²⁾
소득	9.3	9.3/45.8*100	20.31
건강	9.3	9.3/45.8*100	20.31
교육 및 여가	6.6	6.6/45.8*100	14.41
가족 및 공동체	7.9	7.9/45.8*100	17.25
시민참여	5.8	5.8/45.8*100	12.66
안전 및 환경	6.9	6.9/45.8*100	15.07
합계	45.8	-	100.0

주: 1) 절대평가값은 전문가 조사 응답 결과를 기초로 하며, 〈표 4-3〉에 제시되어 있는 수치임.

2) 가중치 환산식은 절대평가 합(45.8) 대비 각 영역의 절대평가 비율로, 그 결과가 가중치 환산값에 제시됨.

상기 과정을 거쳐 도출된 가중치 환산값을 영역별 원자료 값에 적용한 후, 합산한 것이 바로 〈표 5-14〉의 영역 통합지수값(46.7)이다. 이러한 과정은 아래 산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 항목별(영역별) 가중치 적용

- 항목별(영역별) 가중치(W)

$$a / \sum_{n=a}^n (a + b + \dots n) \div 100$$

주 : a, b, ... n은 개별지표(영역)에 대한 전문가가중치

- 항목별(영역별) 가중치 적용

$$\sum_{n=1}^n (P \times W) \div 100$$

P: 개별지표(영역)의 원자료 값
W: 항목별 가중치 환산값

□ 동일 가중치 적용(가중치 미부여)

$$\left(\sum_{n=1}^n P \right) \div N$$

P: 개별지표(영역)의 원자료 값

제 5 장

노인의 삶의 질 수준

제1절 노인의 삶의 질 국제 비교

제2절 인구집단별 노인의 삶의 질 현황

제3절 노인의 삶의 질 변화 추이

5

노인의 삶의 질 수준 <<

본 장에서는 제4장에서 정의한 시산용 지표체계의 구성과 방식을 실제로 적용하여 산출한 시산 결과를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노인의 삶의 질의 국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복지국가 유형별로 선정된 4개 국가와 비교하고, 한국 노인의 삶의 질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구집단별로 각 항목의 지표값과 영역 및 통합지수값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 노인의 삶의 질이 지난 10여 년간 변화되어 온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노인의 삶의 질 국제 비교

본 연구는 상이한 복지체제를 대표하는 몇 개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노인의 삶의 질이 국제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²⁷⁾ 이를 위해 선정한 국가는 스웨덴, 독일, 영국, 스페인이다. 각 국가별로 자료의 가용성과 생산 시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의 주석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개별지표값이 제공되지 않은 항목은 국가 간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함께 영역 지수값 산출에서도 지표값이 제공되지 않는 국가가 있을 경우 해당 지표값은 제외하기도 하였다.

27) 본 절은 국제 비교가 가능한 17개 지표를 중심으로 동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영역 지수값과 통합지수값을 산출하였음. 따라서 제2절과 제3절의 구체적인 수치와는 차이가 있음.

1. 소득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값

〈표 5-1〉은 소득 영역의 지표별 점수와 영역 지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해외 사례에서 공적연금 지급률의 정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개별지표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상대적 빈곤이 스웨덴, 독일, 영국, 스페인 등에 비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상대빈곤율은 역산값이기 때문에 한국 노인의 낮은 수치는 한국 노인들의 상대빈곤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박탈 경험률 관련 수치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또한 역산값이므로, 한국 노인들의 경제적 박탈 경험이 다른 국가의 노인에 비해 어느 정도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경제상태 만족률에 있어서는 한국 노인들의 수치가 외국 사례들에 비해 매우 낮다.

〈표 5-1〉 한국과 주요 국가의 소득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2014년)

(단위: %, 점)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	스페인
상대빈곤율	52.7	90.0	90.5	86.9	94.6
경제적 박탈 경험률	87.8	99.1	92.4	94.0	90.1
공적연금 지급률 ⁴⁾	(38.9)	-	-	-	-
경제상태 만족률	15.2	89.8	94.2	90.8	78.9
영역 지수(동일 가중치)	51.9	93.0	92.4	90.6	87.9

주: 1) 한국의 지표 관련 내용은 제4장 참조. 영역의 지수값에 동일 가중치(산술평균)를 적용한 값임.

2) 상대빈곤율, 경제적 박탈 경험률은 지수화 시 역산하여 활용함.

3) 소득 영역 개별지표의 국제 비교를 위한 정의는 아래와 같음.

① 상대빈곤율: 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Poverty line 50%

② 경제적 박탈 경험률: Material Deprivation(to pay rent or utility bills, keep home adequately warm, face unexpected expense, eat meat; fish; or a protein equivalent every second day, a week holiday away from home, a car, a washing³ or more these

③ 경제상태 만족률: Feeling about household's income nowadays→ (very)satisfied

4) 공적연금 지급률은 영역 지수값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았음.

자료: 1) 상대빈곤율: OECD stat(relative poverty rate)에서 2017. 9. 7. 인출.

2) 경제적 박탈 경험률: Eurostat, 2014, EU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EU-SILC). 원자료 재분석.

3) 경제상태 만족률: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2014, European social survey, 원자료 재분석

소득 영역 지표로 선정된 상대빈곤율, 경제적 박탈 경험률, 경제상태 만족률 등에 있어, 대체적으로 한국 노인들은 선정된 외국의 노인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개의 지표에 동일 가중치를 부여한 영역 지수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의 경우 소득 영역의 지수가 51.9점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낮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 노인들에게서 상대빈곤율이 높고, 경제상태 만족률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

2. 건강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값

건강 영역의 지표값 및 영역의 지수값은 다음의 <표 5-2>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한국 노인의 운동실천율은 영국과 스페인을 넘어서고 있다. 공적 장기요양보호율은 국가별 제도 운영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한국의 경우가 해외 사례에 비해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건강기간 비율에서는 한국이 해외 사례들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한국의 경우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년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의 차이는 없으나,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한국의 노인에게서 낮다고 하겠다.

〈표 5-2〉 한국과 주요 국가의 건강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2014년)²⁾

(단위 : %, 점)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	스페인
운동실천율	58.1	64.5	63.2	43.7	31.5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³⁾	6.6	16.3	13.0	16.2	8.1
건강기간 비율 ⁴⁾	89.0	87.8	87.7	87.7	88.0
주관적 건강인지율	32.4	67.6	41.1	50.8	40.5
영역 지수(동일 가중치)	46.5	59.1	51.3	49.6	42.0

- 주: 1) 한국의 지표 관련 내용은 제4장 참조. 영역의 지수값에 동일 가중치(산술평균)를 적용한 값임.
 2) 분석 시점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적 장기요양보호율의 경우 영국(2013), 건강기간 비율의 경우 2013년(가장 최근 자료)을 기준으로 함.
 3) 공적 장기요양보호율(한국)은 타 국가와 동일하게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서비스 이용률'로 조작적 정의하여 재분석함으로써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4) 건강기간 비율(한국)은 타 국가와 동일하게 WHO 자료를 활용한 수치이며, 이를 통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5) 건강 영역 개별지표의 국제 비교를 위한 정의는 아래와 같음.

- ① 운동실천율: Time spent on health-enhancing(non-work-related) aerobic physical activity → sum of ratios of exercise over 1 minute
- ②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Percentage of long-term care services among elderly people aged 65 years or older
- ③ 건강기간 비율: Health life expectancy at birth/Life expectancy at birth ratio
- ④ 주관적 건강인지율: Perceived health status → (very)satisfied

- 자료 : 1) 운동실천율: Eurostat, 2014, European Health Interview Survey(EHIS), 원자료 재분석.
 2) 공적 장기요양보호율/건강상태 만족률: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② OECD. Health data(www.oecd.ilibrary.org/health-data-en)에서 2017. 9. 7. 인출.
 3) 건강기간 비율: WHO, 2015, WHO Health Statics, 원자료 재분석.
 4) 주관적 건강인지율 :OECD. Health data(www.oecd.ilibrary.org/health-data-en)에서 2017. 9. 7. 인출.

앞에서 언급한 4개의 개별지표값에 동일 가중치를 주어 영역 지수값을 산출한 결과 한국은 스페인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스웨덴, 독일, 영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운동실천율이 한국에 비하여 낮다. 한편, 스웨덴이나 독일은 영역 점수가 50점을 넘는 국가로, 건강기간 비율을 제외한 3개 개별지표가 모두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교육 및 여가 영역 지표값과 영역 지수값

교육 및 여가 영역은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교육 참여율, 여가활동 참여율 등으로 구성된다. 단, 고등교육 이수율과 평생교육 참여율은 비교국가와의 일관성을 위하여, 55~74세를 기준으로 분석한 값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55~74세의 것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평생교육 참여율 또한 한국은 스웨덴과 함께 매우 높다. 한편, 여가활동 참여율은 한국이 스페인과 함께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영국과 스웨덴의 참여율은 약 30%대로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이상의 3개 지표로 구성된 영역 지수값은 한국이 26.5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후 스웨덴, 영국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단 한국의 영역 지수값이 높은 것은 교육 관련 지표의 통계치가 55~74세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활용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가활동 참여율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스웨덴의 31.7%에 비하여 22%p나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5-3〉 한국과 주요 국가의 교육 및 여가 영역 지표값과 지수값(2014년)²⁾³⁾

(단위 : %, 점)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	스페인
고등교육 이수율 ⁴⁾	51.5	28.2	24.1	31.0	18.2
평생교육 참여율 ⁴⁾	18.3	18.1	2.0	8.7	3.3
여가활동 참여율	9.7	31.7	17.0	30.1	3.3
영역 지수(동일 가중치)	26.5	26.0	14.4	23.3	8.3

주: 1) 한국의 지표 관련 내용은 제4장 참조. 영역의 지수값에 동일 가중치(산술평균)를 적용한 값임.

2) 분석 시점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6년(2014년 자료원 부재로 가장 최근 자료 활용)을 기준으로 함.

3) 교육 및 여가 영역 개별지표의 국제 비교를 위한 정의는 아래와 같음.

- ① 고등교육 이수율: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Tertiary education covers ISCED-11 levels 5~8 portion
- ② 평생교육 참여율: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last 4 weeks);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and training
- ③ 여가활동 참여율(스페인, 스웨덴, 독일) Active membership of art, music, educational (영국) a member of an education, arts or music group or evening class / sports clubs, gyms, exercise class.

4)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교육 참여율(한국)의 경우 국내 분석(개별지표 현황/지역별 분석 현황) 정의 및 산식과 상이함.

- ① 고등교육 이수율: 55~74세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 비율
- ② 평생교육 참여율: 55~74세 중 평생교육에 참여한 비율

자료: 1) 김환식, 최윤홍, 최진권, 안희성, 김창환, 강영혜 등. (2014). 2014 한국성인의 평생학습실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등. (2014). 2014 전국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4) 통계청. (2015). 장래인구추계.

5)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교육 참여율): Euro stat, 2016, EU Labour Force Survey, 원자료 재분석.

6) (여가활동 참여율) ① 스페인, 스웨덴, 독일 World value survey(2010-2014), World value survey(wave 6), 원자료 재분석. ② (영국)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wave7), 원자료 재분석.

4.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값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의 지표 및 지수값은 다음의 <표 5-4>와 같다. 유배우율(65세 이상)은 한국이 스페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과 스페인의 혼인 형성·유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족관계 만족률은 한국 이외 다른 나라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또한 친한 친구나 이웃이 있는 비율은 한국과 비교 대상 국가의 가용 자료원의 차이로 인하여 지수값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노인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평가에서는, 한국은 스웨덴과 더불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2개 지표값에만 기초하여 산출한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의 지수값은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특히 노인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비교 국가 중에서 가장 강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5-4> 한국과 주요 국가의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2014년)²⁾³⁾

(단위: %, 점)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	스페인
유배우율	61.4	55.1	59.1	55.9	65.0
가족관계 만족률 ⁴⁾	(47.8)	-	-	-	-
친한 친구나 이웃 비율 ⁴⁾	(62.7)	(96.9)	(97.6)	(95.1)	(95.4)
노인의 사회적 위상	42.0	45.1	58.9	59.6	49.4
영역 지수(독일 가중치)	51.7	50.1	59.0	57.8	57.2

주: 1) 한국의 지표 관련 내용은 제4장 참조. 영역의 지수값에 동일 가중치(산술평균)를 적용한 값임.
 2) 분석 시점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유배우율의 경우 독일, 영국, 스웨덴은 2011년(가장 최근 자료 활용)을 기준으로 함.
 3) 가족 및 공동체 영역 개별지표의 국제 비교를 위한 정의는 아래와 같음.
 ① 유배우율: (스웨덴, 스페인) Married / (독일, 영국) Married, party to a civil union
 ② 친한 친구나 이웃 비율(스웨덴, 독일, 영국, 스페인): How many people with whom you can discuss intimate and personal matters
 ③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 Social position: People in their 70s
 4) 가족관계 만족률과 친한 친구나 이웃 비율은 영역 지수값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았음.
 자료: 1) 유배우율: ①스웨덴, 스페인 - UN. (2015). World marriage data. ②독일 - Feder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statistical Offices of the Länder. (2011). Zensus 2011. ③ 영국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1). 2011 Census of England and Wales.
 2) 친한 친구나 이웃 비율: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2014, European social survey, 원자료 재분석.
 3)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 World value survey(2010-2014). World value survey(wave 6), 원자료 재분석.

5. 시민참여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값

시민참여를 사회단체 참여율,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정치적 자기역량인식 정도로 접근해 본 결과는 다음의 <표 5-5>와 같다. 한국은 사회단체 참여율에서 다른 나라보다 높은 참여 정도를 보인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에서는 사회단체 참여율이 10.5%에 지나지 않는 스페인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국 노인들은 사회단체 활동은 많이 하고 있으나 이것이 자원봉사활동으로는 크게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적 자기역량인식의 측면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3개 지표로 구성된 영역 지수값을 보면, 한국은 영국과 스웨덴 보다는 낮지만, 독일, 스페인보다는 높다. 이는 저조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참여율과 정치적 자기역량인식의 수치가 높기 때문이다.

<표 5-5> 한국과 주요 국가의 시민참여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2014년)

(단위 : %, 점)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	스페인
사회단체 참여율	44.4	37.2	32.3	38.3	10.5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4.5	31.0	16.5	28.2	5.5
정치적 자기역량인식	55.0	41.0	46.0	42.5	25.8
영역 지수(동일 가중치)	34.6	36.4	31.6	36.3	13.9

주: 1) 한국의 지표 관련 내용은 제4장 참조. 영역의 지수값에 동일 가중치(산술평균)를 적용한 값임.

2) 시민참여 영역 개별지표의 국제 비교를 위한 정의는 아래와 같음.

① 사회단체 참여율: (스페인~독일) Active membership of sport or recreation; Active membership of political party / (영국) member of a political party, trade union of environmental group/ a church or religious group / social clubs / other organizations,

②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스페인~독일) Active membership of charitable/humanitarian organization / (영국) how often do you any voluntary work at a last year?

③ 정치적 자기역량인식: Confident in own ability to participate in politics

자료: 1) 사회단체 참여율,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① 스페인, 스웨덴, 독일 - World value survey(2010-2014), World value survey(wave 6), 원자료 재분석. / ② 영국-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2014-2015),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wave7), 원자료 재분석.

2) 정치적 자기역량인식: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2014, European social survey, 원자료 재분석.

6. 안전 및 환경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값

안전 및 환경 영역 지표 중에서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은 관련 해외자료가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또한 앞서 언급된 것처럼 노인자살률이 다른 지표와는 단위가 다르고 최악의 수준을 설정하는 데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역 지수값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²⁸⁾

주거환경 만족률에서도 한국 노인들의 만족률은 다른 국가 노인들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또한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는 국제 비교를 위해 비교 대상 국가 모두에 대하여 가용한 자료원이 있는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스웨덴, 스페인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다. 종합할 때, 안전 및 환경 영역 지수값은 한국이 76.6점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8) 노인자살률을 포함한 안전 및 환경 영역의 지수값은 제6장에 제시되어 있음.

〈표 5-6〉 한국과 주요 국가의 안전 및 환경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2014년)²⁾³⁾

(단위: %, 점)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	스페인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⁴⁾	(9.9)	-	-	(4.0)	-
노인자살률 ⁴⁾	(55.5)	(6.7)	(16.1)	(17.9)	(21.8)
주거환경 만족률	76.8	97.3	90.7	98.1	90.6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⁵⁾	76.3	81.9	74.1	71.7	77.0
영역 지수(동일 가중치)⁶⁾	76.6	89.6	82.4	84.9	83.8

- 주: 1) 한국의 지표 관련 내용은 제4장 참조. 영역의 지수값에 동일 가중치(산술평균)를 적용한 값임.
 2) 분석 시점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노인자살률은 2013년, 주거환경 만족률은 2012년(가장 최근 자료 활용)을 기준으로 함.
 3) 안전 및 환경 영역 개별지표의 국제 비교를 위한 정의는 아래와 같음.
 ① 노인자살률: 인구십만명당 65세 이상 사망자 수(원 지표)를 의미함.(국제자료의 경우, 연령 구간별 인구구성비를 적용하여 계산함. 스웨덴 2013 센서스, 독일·스페인·영국 2011 센서스 활용).
 ② 주거환경 만족률: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dwelling → (very) satisfied
 ③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Feeling of safety of walking alone in local area after dark
 4) 원자료로, 수치가 클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을 의미함.
 5)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한국)의 경우, 국내 분석(개별지표 현황/ 지역별 분석 현황) 정의 및 산식과 상이함. 본 표에서는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통계청, 사회조사)'로 재분석됨.
 6)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과 노인자살률은 영역 지수값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은 결과임.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은 국제비교가 가능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며, 노인자살률은 다른 지표와는 단위가 다르고 최악의 수준을 설정하는 데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노인자살률을 포함한 결과는 제6장에서 제시·비교될 것임.

- 자료: 1) 노인자살률: OECD. Health data(www.oecd.ilibrary.org/health-data-en.)에서 2017. 9. 7. 인출.(원자료: WHO Mortality database)
 2) 주거환경 만족률: Eurostat, 2012, EU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원자료 재분석.
 3)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① 통계청, 2014, 사회조사, 원자료 재분석. ②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2014, European social survey, 원자료 재분석.

7. 영역 및 통합지수

다음의 〈표 5-7〉은 각 영역의 지수값을 재정리하고, 영역 지수값에 동일 가중치를 주어 통합지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이 표에 의하면 한국 노인의 삶의 질은 영국, 독일, 스웨덴, 스페인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득 영역과 안전 및 환경 영역의 지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에서 특히 낮은 점에 기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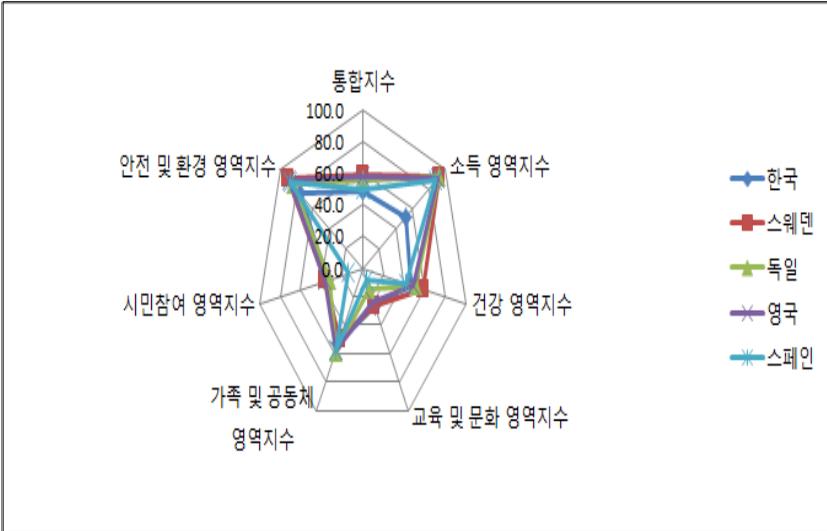
〈표 5-7〉 한국과 주요 국가의 영역 및 통합지수값(2014년)

(단위: 점)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	스페인
소득 영역 지수	51.9	93.0	92.4	90.6	87.9
건강 영역 지수	46.5	59.1	51.3	49.6	42.0
교육 및 여가 영역 지수	26.5	26.0	14.4	23.3	8.3
가족 및 공동체 영역 지수	51.7	50.1	59.0	57.8	57.2
시민참여 영역 지수	34.6	36.4	31.6	36.3	13.9
안전 및 환경 영역 지수 ¹⁾	76.6	89.6	82.4	84.9	83.8
통합지수(영역 간 동일 가중치)¹⁾	48.0	59.0	55.2	57.1	48.8

주: 1) 노인 학대 피해 경험률과 노인자살률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노인자살률을 포함한 지수산출 관련은 제6장에서 다루어질 것임.

[그림 5-1] 한국과 주요 국가의 영역별 통합지수(2014년)



주: 〈표 5-7〉의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제2절 인구집단별 노인의 삶의 질 현황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지표체계에 따라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한 노인의 삶의 질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성별 및 연령별 인구집단 간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영역 지수값과 통합지수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동일 가중치를 적용한 국제 비교와는 달리, 전문가 조사에서 산출된 지표별 가중치와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비추어 한국적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일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또한 비교를 위해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1. 소득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값(2014년)

다음의 <표 5-8>은 소득 영역의 개별지표값과 영역 지수값을 성별과 연령집단별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전체 인구의 관점에서 보면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한 소득 영역 지수값은 48.2점이며, 이 값은 경제상태 만족률이 매우 낮은 점에 기인한다. 성별로 보면 소득 영역 지수값은 여자에게서는 39.4점, 남자에게서는 56.8점으로 남자가 월등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소득의 모든 개별지표에서 남자의 지표값이 더 높으며, 특히 상대빈곤율, 공적연금 수급률의 남녀 간 차이가 두드러진다. 한편 연령군별로 보면 역시 80세 이상에 비해 65~79세 연령층의 소득 영역 지수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후기노인에 비해 전기노인의 소득 상황이 보다 유리한 위치임을 보여 준다. 연령집단 간의 이러한 차이는 특히 상대빈곤율과 공적연금 수급률의 차이에 기인한 바가 크다.

〈표 5-8〉 성과 연령별 소득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값(2014년)

(단위: 점)

	상대 빈곤율	경제적 박탈 경험률	공적연금 수급률	경제상태 만족률	영역 지수	
					항목별 가중치	동일 가중치
전체	52.7	87.8	38.7	15.2	48.2	48.7
성별						
남자	62.1	90.3	57.8	18.2	56.8	57.1
여자	35.8	86.1	25.2	13.1	39.4	40.1
연령군별						
65~79세	55.5	88.6	46.0	16.0	51.1	51.5
80세 이상	37.6	84.6	10.1	12.2	35.5	36.1

주: 1) 전문가 가중치 비중: 상대빈곤율 26.15, 경제적 박탈 경험률 23.69, 공적연금 수급률 25.23, 경제상태만족도 24.92(총 100점 만점).

2) 개별지표의 정의 및 관련 문항은 부표 참고.

자료: 1) 공무원연금공단. (각 연도). 공무원연금통계연보.

2) 국민연금공단. (각 연도). 국민연금통계연보.

3)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2017).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내부 자료.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5) 사학연금관리공단. (각 연도). 사학연금통계연보.

6)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mdis.kostat.go.kr>에서 2017. 8. 8. 인출.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8) 행정안전부.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 <http://www.mois.go.kr>에서 2017. 8. 6. 인출.

2. 건강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값(2014년)

다음의 〈표 5-9〉는 건강 영역에 있어서 성별·연령군별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항목별 가중치가 부여된 건강 영역의 지수값은 59.6점인데, 낮은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큰 요인이다. 앞서 살펴본 소득 영역과 마찬가지로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그리고 후기노인보다는 전기노인에게서 건강 영역의 지수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의 경우 공적 장기요양보호율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여자보다 유리한 위치를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주관적 건강인지율의 성별 차이는 매우 뚜렷하다. 한편 연령대별 차이에서는 운동실천율, 주관적 건강인지율 등이 전기노인에게서 더 높기 때문에 건강 영역 지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42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표 5-9〉 성과 연령별 건강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값(2014년)

(단위: 점)

	운동 실천율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²⁾	건강기간 비율 ³⁾	주관적 건강인지율	영역 지수	
					항목별 가중치	동일 가중치
전체	58.1	67.4	79.4	32.4	59.6	59.3
성별		-				
남자	63.2	62.5	82.2	42.1	62.8	62.5
여자	54.4	69.4	77.1	25.5	56.8	56.6
연령군별						
65~79세	61.3	70.6	79.4	34.6	61.6	61.5
80세 이상	45.2	65.6	79.4	23.4	53.9	53.4

주: 1) 전문가 가중치 비중: 운동실천율 22.84,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24.83, 건강기간 비율 27.16, 건강상태 만족도 25.62(총 100점 만점)

2) 국제 비교 시와는 다른 자료원(장기요양통계연보, 치매유병률조사)을 활용하였음.

3) 국제 비교 시와는 다른 자료원(통계청 e-나라지표(건강기간 비율))을 활용하였음.

4) 개별지표의 정의 및 관련 문항은 부표 참고.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연도). 장기요양통계연보.

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노인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 (2012). 2012 치매유병률 조사.

4) 보건복지부. (2016).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

5)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에서 2017. 8. 1. 인출.

3. 교육 및 여가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값(2014년)

교육 및 여가 영역에 있어 성별·연령집단별 지표값과 영역 지수값은 다음의 〈표 5-10〉과 같다. 여자들에 비해 남자들은 고등교육 이수율에 있어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참여율은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현재 노인세대 중 청년기까지 정규 교육을 받은 노인 비율이 남자들에게서 월등히 높은 점을 반영한다. 또한 청년기까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제한되었던 여자 노인들이 노년기에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갖고 이러한 욕구가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여가활동 참여율은 남녀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이들을 종합한 영역 지수값은 남자에게서 역시 높게 나타난다.

연령집단별로도 지표상의 차이는 분명하다.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교육 참여율, 여가활동 참여율 모두에서 전기노인층이 후기노인층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준다. 따라서 연령대별 교육 및 여가 영역 지수값 또한 전기노인층에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0〉 성과 연령별 교육 및 여가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값(2014년)

(단위: 점)

	고등교육 이수율 ²⁾	평생교육 참여율 ²⁾	여가활동 참여율	영역 지수	
				항목별 가중치	동일 가중치
전체	24.3	13.7	9.7	15.2	15.9
성별					
남자	40.4	8.5	10.0	18.3	19.6
여자	12.8	17.3	9.4	12.9	13.2
연령군별					
65~79세	27.3	14.6	11.4	17.0	17.8
80세 이상	13.1	9.9	3.0	8.1	8.7

주: 1) 전문가 가중치 비중: 고등교육 이수율 28.77, 평생교육 참여율 32.42, 여가활동 참여율 38.81(총 100점 만점)

2) 국제 비교 시와는 다른 자료원(노인실태조사)을 활용하였음.

3) 개별지표의 정의 및 관련 문항은 부표 참고.

자료: 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노인실태조사.

2) 한국고용정보원, 각 연도, 고령화 연구패널, 원자료 재분석.

4.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값(2014년)

다음의 〈표 5-11〉은 가족 및 공동체 영역에 있어 남녀 및 연령대 간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성별로 보면 유배우율에서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 여자에 비해 남자에게서 유배우율은 거의 두 배에 이른다. 가족관계 만족률, 친한 친구나 이웃이 있는 비율, 노인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평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큰 차이라 볼 수는 없다. 각 지표에 전문가 조사로부터 도출한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남자가 높게 나타난다.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유배우율 역시 전기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또한 친한 친구나 이웃이 있는 비율도 전기노인에게서 더 높다. 그러나 가족관계 만족률에 있어서는 연령대 간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에서는 전기노인에 비해 오히려 후기노인들에게서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의 지표들은 연령대에 따라 일관적이기보다는 지표별로 상이한 현상이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종합한 영역의 지수값은 전기노인에게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11〉 성과 연령별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값(2014년)

(단위: 점)

	유배우율	가족관계 만족률	친한 친구 이웃 비율	노인의 사회적위상평가	영역 지수	
					항목별 가중치	동일 가중치
전체	61.4	47.8	62.7	42.0	53.7	53.5
성별						
남자	86.4	49.6	63.1	44.0	61.1	60.8
여자	43.6	46.5	62.4	41.0	48.6	48.4
연령군별						
65~79세	68.1	48.0	65.4	41.0	56.0	55.6
80세 이상	35.8	47.0	52.0	54.0	47.0	47.2

주: 1) 전문가 가중치 비중: 유배우율 25.38, 가족관계 만족도 26.89, 친한 친구나 이웃 비율 25.38,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 22.36(총 100점 만점)

2) 개별지표의 정의 및 관련 문항은 부표 참고.

자료: 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노인실태조사.

2)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DB, 원자료 재분석.

3) World value survey, World value survey(wave 6: 2010-2014) DB 원자료 재분석.

5. 시민참여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값(2014년)

다음의 〈표 5-12〉는 시민참여 영역에 있어 성 및 연령대별 차이를 보여 준다. 성별의 경우, 사회단체 참여율에 있어 여자에 비해 남자가 높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낮은

수치에 그치고 있다. 한편 정치적 자기역량인식은 남자보다는 오히려 여자가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한 지수값을 보면, 사회단체 참여율의 성별 차이에서와 같이 남자에게서 그 값이 크다.

연령집단별 뚜렷한 차이는 사회단체 참여율에서 발견된다. 후기노인에 비해 전기노인에게서 사회단체 참여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그 수치가 워낙 낮기는 하지만 역시 전기노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집단별 시민참여 영역 지수값은 사회단체 참여율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의 차이를 반영하면서 전기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났다.²⁹⁾

(표 5-12) 성과 연령별 시민참여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값(2014년)

(단위: 점)

	사회단체 참여율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정치적 자기역량인식	영역 지수	
				항목별 가중치	동일 가중치
전체	44.4	4.5	55.0	33.3	34.6
성별					
남자	53.4	5.2	52.5	36.0	37.0
여자	37.9	4.0	57.3	31.5	33.1
연령군별			-		
65~79세	50.5	5.2	55.0	35.7	36.9
80세 이상	19.9	1.8	55.0	23.7	25.6

주: 1) 전문가 가중치 비중: 사회단체참여율 35.19,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35.65,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29.17(총 100점 만점)

2) 개별지표의 정의 및 관련 문항은 부표 참고.

자료: 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노인실태조사.

2) 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DB, 원자료 재분석.

29) 정치적 자기역량인식은 원자료의 한계로 인해 연령군별 자료의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논의하지 않음.

6. 안전 및 환경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값(2014년)

안전 및 환경 영역에서의 성 및 연령대별 차이는 다음의 <표 5-13>과 같다. 해당 영역의 세부 지표 중에서 남녀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노인자살률이다. <표 5-13>에 제시된 노인자살률은 별도의 변환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자료값으로 남자의 경우 인구십만명당 87.9명으로 여자의 32.4명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외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역산값), 주거환경 만족도,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등에서는 성별 차이가 크게 관찰되지 않는다. 노인자살률을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 및 환경 영역의 지수값을 살펴보면,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나 부여하지 않은 경우 모두 성별 차이가 매우 적다.

연령대별 또한 노인자살률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며 나머지 지표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노인자살률을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 및 환경 영역의 지수값을 살펴보면,³⁰⁾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나 부여하지 않은 경우 모두 연령군별 차이가 매우 적다.

30) 노인자살률을 포함한 안전 및 환경 영역의 지수값은 제6장에 제시되어 있음.

〈표 5-13〉 성과 연령별 안전 및 환경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값(2014년)

(단위: 점)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노인 자살률 ²⁾	주거환경 만족률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³⁾	항목별 가중치 ⁴⁾⁵⁾	동일 가중치 ⁴⁾
전체	90.1	(55.5)	76.8	10.4	60.8	59.1
성별						
남자	91.1	(87.9)	77.3	11.2	61.6	59.9
여자	89.4	(32.4)	76.5	9.9	60.3	58.6
연령군별				-		
65-79세	90.0	(50.3)	77.1	10.2	60.8	59.1
80세 이상	90.4	(78.6)	75.7	11.5	60.9	59.2

주: 1) 개별지표의 정의 및 관련 문항은 부표 참고.

- 2) 노인자살률은 원 지표값(인구십만명당 사망자 수)으로, 별도의 변환과정을 거치지 않은 값임.
- 3) 국제 비교 시와 동일 자료원이나 타 문항(전반적 사회 안전도 평가)을 활용하였음(*국제 비교 시에는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문항을 활용함).
- 4) 다른 지표와는 단위가 다르고 최악의 수준을 설정하는 데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 노인자살률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노인자살률을 포함한 지수산출 관련은 제6장에서 다루어질 것임.
- 5) 전문가 가중치 비중: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35.27, 주거환경만족도 33.61,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33.12(총 100점 만점)

- 자료: 1) 국토연구원,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DB, 원자료 재분석.
 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노인실태조사.
 3) 통계청. (각 연도). 고령자통계.
 4) 통계청. (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5)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DB, 원자료 재분석.
 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www.kosis.kr에서 2017. 8. 7. 인출.

7. 인구집단별 영역 및 통합지수(2014년)

앞에서 언급한 총 6개 영역의 지수값과 이를 합한 통합지수값에 항목별 및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는 〈표 5-14〉 및 [그림 5-2]와 같으며,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결과(동일 가중치)는 〈표 5-15〉와 같다.

항목별 및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한 통합지수의 경우와 동일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 모두 남자들의 점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다. 한편, 연령별 통합지수를 보면 모든 영역에서 전기노인의 점수가 더 높다. 특히 교육 및 여가의 경우는 전기노인과 후기노인간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14〉 성과 연령별 영역 및 통합지수값(2014년): 항목별 및 영역별 가중치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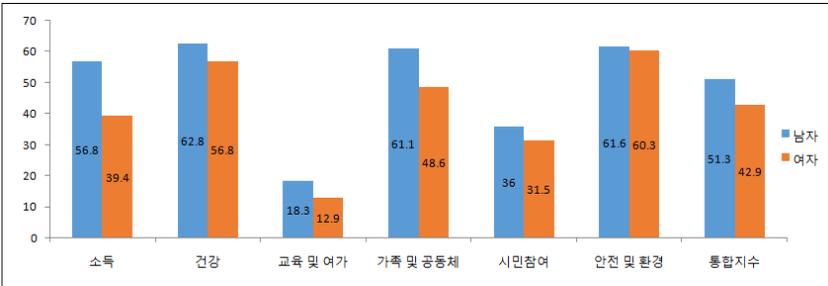
(단위: 점)

	소득	건강	교육 및 여가	가족 및 공동체	시민 참여	안전 및 환경 ¹⁾	통합지수 ²⁾
전체	48.2	59.6	15.2	53.7	33.3	60.8	46.7
성별							
남자	56.8	62.8	18.3	61.1	36.0	61.6	51.3
여자	39.4	56.8	12.9	48.6	31.5	60.3	42.9
연령군별							
65-79세	51.1	61.6	17.0	56.0	35.7	60.8	48.7
80세이상	35.5	53.9	8.1	47.0	23.7	60.9	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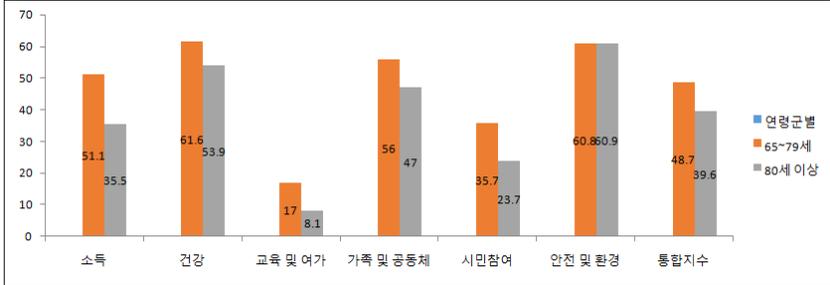
주: 1) 다른 지표와는 단위가 다르고 최악의 수준을 설정하는 데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 노인자살률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2) 전문가 가중치 비중: 소득 20.31, 건강 20.31, 교육 및 여가 14.41, 가족 및 공동체 17.25, 시민참여 12.66, 안전 및 환경 15.07(총 100점 만점).

〔그림 5-2〕 성과 연령별 영역 및 통합지수값(2014년): 항목별 및 영역별 가중치 부여

① 성별



② 연령별



주: <표 5-14>의 결과를 도식화하여 표현함.

<표 5-15> 성과 연령별 영역 및 통합지수값(2014년): 동일 가중치 부여

(단위: 점)

	소득	건강	교육 및 여가	가족 및 공동체	시민 참여	안전 및 환경 ¹⁾	통합지수
전체	48.7	59.3	15.9	53.5	34.6	59.1	45.2
성별							
남자	57.1	62.5	19.6	60.8	37.0	59.9	49.5
여자	40.1	56.6	13.2	48.4	33.1	58.6	41.6
연령군별							
65-79세	51.5	61.5	17.8	55.6	36.9	59.1	47.1
80세 이상	36.1	53.4	8.7	47.2	25.6	59.2	38.4

주: 1) 노인자살률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제3절 노인의 삶의 질 변화 추이

본 절에서는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와 지수들이 지난 10여년 간 변화한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성과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별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 전체 인구로 논의를 한정하기로 한다. 또한 시계열적 자료가 부족한 시점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 이전, 이후 등의 자료로 대체하였음을 밝혀 둔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전개하면서 상술하고자 한다.

1. 소득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의 변화

다음의 <표 5-16>은 2004년에서 2014년까지 소득의 개별지표와 지수값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상대빈곤율(역산값)은 해당 기간 동안 조금씩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대적 빈곤이 최근 10년간 근소하게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박탈 경험률(역산값)의 경우 대체로 80% 이상이며, 어느 정도 오르내림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2006년도의 높은 점수를 예외적으로 본다면, 경제적 박탈 경험률(역산값)은 점차 그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띤다. 이는 경제적 박탈경험이 점차 감소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한편, 공적연금 수급률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지속적으로 그리고 큰 폭으로 그 수치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상태 만족률은 2008년에 높은 수치가 도달한 이후, 최근으로 올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개별지표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득 영역의 지수값을 보면 대체로 꾸준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16〉 소득 영역의 지표값 및 지수값 변화(2004~2014년)

(단위: 점)

	'04	'06	'08	'10	'12	'14
상대빈곤율	55.1	55.1	54.0	52.8	52.0	52.7
경제적 박탈 경험률	81.4	88.3	81.0	82.4	85.4	87.8
공적연금 수급률	13.2	19.0	25.0	30.0	34.8	38.9
경제상태 만족률	11.3	18.0	24.7	21.4	18.1	15.2
항목별 가중치 적용	39.8	44.6	45.8	46.2	47.1	48.2
동일 가중치 적용	40.3	45.1	46.2	46.7	47.6	48.7

주: 1) 지표별 주요 특이 사항은 아래와 같음.

- ① 상대빈곤율: 2004년 자료원 부재로 2006년 값을 이기하였으며, 긍정 방향으로 환산을 위해 (100 - 원지표값)으로 계산함.
- ② 경제적 박탈 경험률: 긍정 방향으로 환산을 위해 (100 - 원지표값)으로 계산함.
- ③ 공적연금 수급률: 원자료의 한계로 시계열 수급자 수의 특성이 상이함.
 - 2004~2012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급자의 합
 - 2014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의 합
- ④ 경제상태 만족률: 2004년은 동년배와 비교한 경제상태 문항이 조사됨. 2006, 2010년은 원자료 부재로 사이 연도의 평균값을 계산함. 2012년은 2011년 조사 결과를 기입함.

- 자료: 1) 공무원연금공단. (각 연도). 공무원연금통계연보.
 2) 국민연금공단. (각 연도). 국민연금통계연보.
 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4)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2017).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내부 자료.
 5) 사학연금관리공단. (각 연도). 사학연금통계연보.
 6)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mdis.kostat.go.kr>에서 2017. 8. 8. 인출.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8) 행정안전부.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 <http://www.mois.go.kr>에서. 2017. 8. 6. 인출.

2. 건강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의 변화

건강 영역에서의 변화는 〈표 5-17〉과 같다. 각 지표값의 근거자료와 가용 연도의 차이는 해당 표의 하단에 주를 추가하여 설명하였다. 운동실천율은 자료가 가용가능한 2004, 2012, 2014년 비교시 대체로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공적 장기요양보호율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약간의 등락을 보이나 어느 정도 일관된 흐름을 보인다. 건강기간 비율의 경우 2004~2010년 사이의 자료가 부재하여, 2012년 자료를 이전 연도에 그 대로 이용했다. 그 결과 건강기간 비율은 2012년에 비해 2014년에 다소

하락한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주관적 건강인지율 또한 2004년과 2006년 자료는 2008년의 것으로 대체하는 한편, 2010년은 2008년과 2012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자료가 가용한 2008년, 2012년, 2014년을 비교해 보면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다소 높아지다가 정체 혹은 감소하는 경향을 띠다고 할 수 있다. 대체된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연도별 건강지수 값을 보면(대체자료를 감안하더라도), 건강 영역의 지수값은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7〉 건강 영역의 지표값 및 지수값 변화(2004~2014년)

(단위: 점)

	'04	'06	'08	'10	'12	'14
운동실천율	39.6	42.3	45.0	47.6	50.3	58.1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33.5	33.5	33.5	69.2	64.0	67.4
건강기간 비율	81.0	81.0	81.0	81.0	81.0	79.4
주관적 건강인지율	24.4	24.4	24.4	29.3	34.1	32.4
항목별 가중치 적용	45.5	46.1	46.7	57.2	57.8	59.6
동일 가중치 적용	44.6	45.3	46.0	56.8	57.4	59.3

주: 1) 지표별 주요 특이 사항은 아래와 같음.

- ① 운동실천율: 2004년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로, 운동을 가끔, 자주한다는 비율의 합임. 2008년은 중등도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주에 1회 이상 하는 비율로, 타 연도와 개념이 상이하여 제외함. 2011년과 2014년은 평소 운동을 한다는 비율임. 이에 2006, 2008, 2010년은 2004년과 2012년의 증가율(2012년의 값-2004년의 값)/4을 반영하여 재계산함.
- ②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수)/(65세 이상 ADL 1개 이상 제한 노인 +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 *100를 의미함.
 - (장기요양이용자 수)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함.
 - (ADL 제한자) 2010, 2012년의 경우 ADL 1개 이상 제한 노인은 노인실태조사(2011년)를 활용함.
 - 2004, 2006년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으로 2008년 값을 이기함.
- ③ 건강기간 비율: 건강수명의 경우 원자료(통계청 생명표) 2012, 2014년만 제시됨. 이에 2004~2010년은 2012년의 값을 이기함.
- ④ 주관적 건강인지율: 2004, 2006년은 2008년 값을 이기함 / 2010년은 사이 연도의 평균값을 기입함.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연도). 장기요양통계연보.

- 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노인실태조사.
- 3) 보건복지부. (2012). 2012 치매유병률 조사.
- 4) 보건복지부. (2016).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
- 5)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에서 2017. 8. 1. 인출.

3. 교육 및 여가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의 변화

〈표 5-18〉은 교육 및 여가 영역에서의 지표값과 지수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고등교육 이수율과 평생교육 참여율의 경우 2006년 자료는 2004년과 2008년의 평균값을, 그리고 2010년 자료는 2008년과 2012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자료가 가용한 2004, 2008, 2012, 2014년을 기준으로 볼 때 고등교육 이수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평생교육 참여율의 경우 2004년 이후 높아진 점은 사실이나, 2008, 2012, 2014년에 걸쳐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여가활동 참여율의 경우 2004년과 2006년은 2008년의 자료로 대체하였다. 2008년 이후 여가활동 참여율의 변화를 보면 잠시 주춤하다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증가 폭이 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치에 머무르고 있다.

교육 및 여가 영역의 지수값을 자료가 제공된 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그 값이 향상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고등교육 이수율의 급속한 증가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이해된다.

〈표 5-18〉 교육 및 여가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 변화(2004-2014년)

(단위: 점)

	'04	'06	'08	'10	'12	'14
고등교육 이수율	15.4	16.3	17.2	18.4	19.5	24.3
평생교육 참여율	4.8	9.1	13.4	10.1	6.7	13.7
여가활동 참여율	4.6	4.6	4.6	3.8	5.3	9.7
항목별 가중치 적용	7.8	9.4	11.1	10.0	9.8	15.2
동일 가중치 적용	8.3	10.0	11.7	10.7	10.5	15.9

주: 1) 지표별 주요 특이 사항은 아래와 같음.

- ① 고등교육 이수율: 2006, 2010년은 사이 연도의 평균값을 계산함.
- ② 평생교육 참여율: 2006, 2010년은 사이 연도의 평균값을 계산함.
- ③ 여가활동 참여율: 2004, 2006년은 2008년의 값을 이기함.

자료: 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노인실태조사.

2) 한국고용정보원, 각 연도, 고령화 연구패널원자료, 재분석.

4.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의 변화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의 추이 변화는 다음의 <표 5-19>와 같다. 유배우울의 경우 지표값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4년에는 다소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가족관계 만족률 지표값은 2014년에 다소 하락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최근에 올수록 그 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친한 친구나 이웃이 있는 비율 또한 2014년에 어느 정도 하락하지만 2004년에서 2012년에 이르기까지 높아지고 있다.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의 지표값은 2014년만 가용하였으며 이를 그 이외 연도에 대체하여 사용하였기에 시계열 변화를 살펴볼 수 없음을 밝혀 둔다. 유배우울, 가족관계 만족률, 친한 친구나 이웃이 있는 비율 등은 2012년까지 증가한 이후 2014년에 감소하는 패턴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의 지수값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표 5-19>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 변화(2004~2014년)

	'04	'06	'08	'10	'12	'14
유배우울	54.8	59.7	64.5	66.0	67.5	61.4
가족관계 만족률	41.3	41.3	46.0	47.7	48.6	47.8
친한친구 이웃비율	65.2	70.2	75.1	75.5	75.9	62.7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	42.0	42.0	42.0	42.0	42.0	42.0
항목별 가중치 적용	51.0	53.4	57.2	58.1	58.9	53.7
동일 가중치 적용	50.8	53.3	56.9	57.8	58.5	53.5

(단위: 점)

주: 1) 지표별 주요 특이 사항은 아래와 같음.

- ① 유배우울: 2006, 2010년은 사이 연도의 평균값을 계산함.
- ② 가족관계 만족률: 2004년은 2006년의 값을 이기함.
- ③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비율: 2006, 2010년은 사이 연도의 평균값을 계산함.
- ④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 원자료는 노인의 사회적 위상에 대하여 10점 척도로 물어보았으나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위상). 본 연구에서는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계산함. 2014년 값을 전체 연도에 이기함.

자료: 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노인실태조사.

2)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DB, 원자료 재분석.

3) World value survey, World value survey(wave 6: 2010-2014) DB, 원자료 재분석.

5. 시민참여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의 변화

다음의 <표 5-20>은 시민참여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단체 참여율의 경우, 연도에 따라 조사된 사회단체 수에 차이가 있다. 또한 2006~2010년 사이의 자료가 부재하여, 2004년과 2012년 사이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가공한 점수로 이를 대체하였다. 자료가 가용한 2004, 2012, 2014년의 사회단체 참여율만 본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지표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는 증가, 그리고 이후부터는 낮은 수준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패턴이다. 정치적 자기역량인식은 2014년 자료만 가용하며, 다른 연도는 2014년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시민참여 영역의 지수는 사회단체 참여율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주어진 기간 동안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20> 시민참여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 변화(2004~2014년)

(단위: 점)

	'04	'06	'08	'10	'12	'14
사회단체 참여율	37.1	37.4	37.7	38.0	38.3	44.4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4.0	7.1	10.1	7.0	3.9	4.5
정치적 자기역량인식	55.0	55.0	55.0	55.0	55.0	55.0
항목별 가중치 적용	30.5	31.7	32.9	31.9	30.9	33.3
동일 가중치 적용	32.0	33.2	34.3	33.3	32.4	34.6

주: 1) 지표별 주요 특이 사항은 아래와 같음.

- ① 사회단체참여율: 조사된 사회단체 수가 2008년은 5개, 2008년은 8개, 2011과 2014년은 3개로 차이가 있음. 2006~2010년은 2004~2012년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재계산함.
- ②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2006, 2010년은 사이 연도의 평균값을 기재함.
- ③ 정치적 자기역량인식: 해당 원자료는 만 19세~69세 이하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10세 군별로 원데이터가 제공됨. 2004~2012년의 값은 2014년도 값을 이기함.

자료: 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노인실태조사.

2) 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DB, 원자료 재분석.

6. 안전 및 환경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의 변화

안전 및 환경 영역의 추이변화는 다음의 <표 5-21>과 같다.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역산값)의 경우 2004년과 2006년 수치는 2008년 값을 대체하는 한편, 2010년은 2008년과 2012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원자료가 가용한 2008, 2012, 2014년 세 시점을 두고 보면,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은 어느 정도 일관된 추이를 보인다. 노인자살률(원자료)은 최근 들어 소폭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환경 만족률의 경우 2004년은 2006년 자료로 대체하는 한편 2012년 자료는 2010년과 2014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주거환경 만족률에 있어서도 지표값은 소폭의 증감을 반복해 보여 준다.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항목의 경우, 2004년과 2006년은 2008년의 값으로 대체하였다.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항목을 2008년을 기점으로 보면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2014년에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며 다른 지표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개별 지표별로 상이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인자살률을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 및 환경 영역의 지수는 이상에서 언급한 개별 지표의 패턴을 반영하여 2010년 이후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다.³¹⁾

31)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수치와 동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수치에는 큰 차이가 없음. 단 노인자살률을 제외한 경우와 포함한 경우 산출된 수치에는 큰 차이가 있음. 이러한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제6장에서 서술하고자 함.

〈표 5-21〉 안전 및 환경 영역의 지표값과 지수값 변화(2004~2014년)

	'04	'06	'08	'10	'12	'14
노인학대피해 경험률	89.8	89.8	89.8	88.6	87.3	90.1
노인자살률	(79.0)	(72.0)	(71.7)	(81.9)	(69.8)	(55.5)
주거환경만족률	80.4	80.4	73.7	83.4	80.1	76.8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9.2	9.2	9.2	11.3	13.5	10.4
항목별 가중치 적용 ²⁾	61.6	61.6	59.3	62.8	61.9	60.8
동일 가중치 적용 ²⁾³⁾	59.8	59.8	57.6	61.1	60.3	59.1

(단위: 점)

주: 1) 지표별 주요 특이 사항은 아래와 같음.

- ① 노인학대피해 경험률: 긍정 환산을 위해 (100-원지표값)을 이용함. 2010년은 사이 연도의 평균값 기입함. 2004, 2006년은 2008년의 값을 이기함.
 - ② 노인자살률 : 인구십만명당 사망자 수로, 별도의 변환과정을 거치지 않은 값임.
 - ③ 주거환경 만족률: 2004년은 2006년 값을 이기함. 2012년은 응답 대상(가구주)이 상이함에 따라 2010년과 2014년의 평균값을 기입함.
 - ④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2004, 2006년은 2008년 값을 이기함.
- 2) 노인자살률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3) 전문가 가중치 비중: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35.27, 주거환경만족도 33.61,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33.12(총 100점 만점)

자료: 1) 국토연구원,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DB, 원자료 재분석.

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노인실태조사.

3) 통계청. (각 연도). 고령자통계.

4) 통계청. (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5)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DB, 원자료 재분석.

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www.kosis.kr에서 2017. 8. 7. 인출.

7. 영역 및 통합지수의 변화

노인의 삶의 질을 보여 주는 6개 영역의 지수값을 재정리하고 해당 연도별 통합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22〉 및 [그림 5-3]은 항목별 및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이며 〈표 5-23〉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결과(동일 가중치)이다. 가중치를 부여한 수치를 중심으로 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 영역의 지수값은 어느 정도 상향하고 있다. 건강 영역의 지수값은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눈에 띄게 상승한 후, 완만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 및 여가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수치가 낮지만 2012년 이후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은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다 2012년 이후, 안전 및 환경 영역은 2010년 이후 하향하고 있다. 한편 시민참여 영역은 대체로 일정 수준에서 머문 후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들을 합한 통합지수는 최근의 상승 경향을 보이는 지표들을 반영하듯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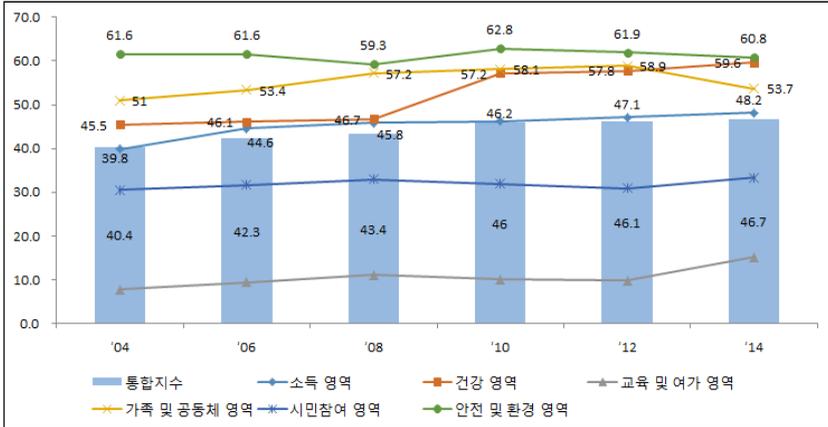
〈표 5-22〉 영역 지수값과 통합지수값 변화(2004-2014년): 항목별 및 영역별 가중치 부여

(단위: 점)

	'04	'06	'08	'10	'12	'14
소득 영역	39.8	44.6	45.8	46.2	47.1	48.2
건강 영역	45.5	46.1	46.7	57.2	57.8	59.6
교육 및 여가 영역	7.8	9.4	11.1	10.0	9.8	15.2
가족 및 공동체 영역	51.0	53.4	57.2	58.1	58.9	53.7
시민참여 영역	30.5	31.7	32.9	31.9	30.9	33.3
안전 및 환경 영역 ¹⁾	61.6	61.6	59.3	62.8	61.9	60.8
통합지수(가중치부여)²⁾	40.4	42.3	43.4	46.0	46.1	46.7

주: 1) 노인자살률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2) 전문가 가중치 비중: 소득 20.31, 건강 20.31, 교육 및 여가 14.41, 가족 및 공동체 17.25, 시민참여 12.66, 안전 및 환경 15.07(총점 100점).

[그림 5-3] 영역 및 통합지수의 변화(2004~2014년):항목별 및 영역별 가중치 부여



주: <표 5-22>의 결과를 도식화하여 표현함.

<표 5-23> 영역 지수값과 통합지수값 변화(2004~2014년): 동일 가중치 부여

(단위: 점)

	'04	'06	'08	'10	'12	'14
소득 영역	40.3	45.1	46.2	46.7	47.6	48.7
건강 영역	44.6	45.3	46.0	56.8	57.4	59.3
교육 및 여가 영역	8.3	10.0	11.7	10.7	10.5	15.9
가족 및 공동체 영역	50.8	53.3	56.9	57.8	58.5	53.5
시민참여 영역	32.0	33.2	34.3	33.3	32.4	34.6
안전 및 환경 영역 ¹⁾	44.8	44.8	41.5	47.4	46.8	59.1
통합지수(동일가중치)	39.3	41.1	42.1	44.4	44.5	45.2

주: 1) 노인사살률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제 6 장 결론

제1절 주요 결과 종합

제2절 정책적 함의

제3절 지속적인 지표체계의 보완

제4절 데이터베이스 구축

본 장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를 통하여 산출한 지수화 결과를 정리해보고, 그에 기초하여 도출된 정책적 함의와 향후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고도화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1절 주요 결과 종합

본 연구에서는 6개 영역 및 22개 개별지표를 포함하는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였다. 노인의 삶의 질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되었다.³²⁾ 첫째, 한국 노인의 삶의 질은 48.0점으로 스웨덴(59.0점), 영국(57.1점), 독일(55.2점)에 비하여 월등히 낮으며 스페인(48.8점)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삶의 질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은 주요 원인은 ‘소득’ 영역과 ‘안전과 환경’ 영역의 삶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소득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지표인 상대빈곤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 지표인 경제만족률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자살률이 매우 높고³³⁾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

둘째, 노인 내부에서도 성과 연령에 따른 삶의 질 수준 차이가 크다.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 성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점수가

32) 노인자살률을 제외하고 항목별 및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음.

33) 원자료에 기초한 비교임.

51.3점으로 여자의 42.9점보다 높으며, 모든 영역에서 남자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연령군별로 비교해 보면 전기노인(65~79세)은 48.7점으로 후기노인(80세 이상)의 39.6점에 비하여 높다. 이러한 연령군별 차이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발견된다.

세 번째로, 노인의 삶의 질은 큰 폭은 아니지만 지난 10년간 높아져왔다. 2004년의 삶의 질 점수는 40.4점이었으나 2014년에는 46.7점으로 약 6점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증가 추이에 있어 구체적인 양상은 영역별로 상이하다. ‘소득’ 영역의 경우는 상향 추이가 분명하다. ‘건강’ 영역의 경우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발견된다. 반면 ‘교육 및 여가’ 영역의 경우는 2012년 이후 급속히 높아지는 경향이다. ‘가족 및 공동체’의 경우 상승세였으나 최근에 들어와 하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 ‘안전 및 환경’ 영역의 경우도 유사하다. 한편 ‘시민참여’ 영역은 정체 상태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영역별 삶의 질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안전 및 환경’ 영역이 60.8점이며 ‘건강’ 영역이 59.6점으로 그 수준이 유사하게 높고,³⁴⁾³⁵⁾ 다음으로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이 53.7점, ‘소득’ 영역이 48.2점, ‘시민참여’ 영역이 33.3점 순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여가’ 영역이 15.2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본 연구의 시산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도출된 바 있다. 즉, 정경희 등(2013)에서도 가족사회관계, 경제상태, 건강상태, 사회참여의 4개 영역 중 사회참여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바 있다.³⁶⁾ 또한

34) 동일가중치를 부여한 경우는 ‘건강’ 영역이 59.3점이며 ‘안전 및 환경’ 영역이 59.1점임.

35) 단, 분석 기간 중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점(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값에 기초할 경우는 ‘가족 및 공동체’ 영역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표 6-3)과 <표 6-4> 참조.

EU 국가들의 2014년 AAI의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과 소득 영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노인의 독립적 생활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사회참여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다(UNECE, 2014). 단, 본 연구와 비교하여 안전과 환경 관련 영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결과를 본 지표체계 구성의 지향성을 제공하였던 Maslow의 욕구단계론과 WHO의 활동적 노화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aslow의 욕구단계론과 관련해서는 복합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의 경우 ‘건강’의 충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기본적인 ‘소득’의 확보는 미흡하여 동일한 단계에 속하는 욕구 간에도 충족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욕구와 관련해서는 중간 수준, 자기존중 욕구나 자아실현 욕구와 관련된 영역의 삶의 질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의 정책적 관심과 투입의 특징에 따라서 동일한 단계의 욕구 충족 정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상위 욕구의 충족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WHO의 활동적 노화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3개 요소 중 건강의 구현 정도가 높은 반면 참여와 관련된 삶의 질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제2절 정책적 함의

노인의 삶의 질 현황과 변화 추이를 측정해 본 결과 비교 대상 국가에

36) 중년층(50~64세, 61.2점)에 비하여 노년층(65세 이상, 47.5점)의 삶의 질 수준이 낮으며, 무위와 관련된 사회참여 영역의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가족사회관계 65.1점, 건강상태 64.0점, 경제상태 38.8점, 사회참여 25.0점).

비하여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수준 자체가 낮고 영역별 차이와 하위 집단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여 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먼저,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어 '소득' 영역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비교에 의하면 '소득' 영역의 경우 비교 대상 국가들 간에는 차이가 크지 않으나 한국만은 그 점수가 유난히 낮다. '소득' 영역은 비교 대상 국가에 비하여 30점 이상의 차이가 있는 51.9점이다. 따라서 국제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더불어 유난히 높은 노인자살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노인자살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외로움, 부부·자녀·친구와의 갈등을 비롯한 단절 등 그 이유가 다양하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소득' 영역의 개선은 노인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노인자살의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빈곤 문제의 해결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와 더불어 노년기의 다양한 고립과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로 중앙자살예방센터,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노년기의 신체적·정서적 기능 약화에 따른 적응의 문제, 중요한 타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실감 등과 같은 노년기의 특성이 반영된 특화된 서비스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우리 사회는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인 요소인 생리적 욕구 및 안전의 욕구와 관련된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존중 및 자아실현 욕구 충족을 제고해야 하는 숙제에 당면해 있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각 영역별 삶의 질 수준의 균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없다면 상위 욕

구 충족이 갖는 의미가 퇴색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동시에 삶의 질의 절대적인 수준이 낮은 ‘교육 및 여가’와 ‘시민참여’에 대한 관심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보다 노인의 삶의 질이 높은 국가에서도 다른 영역에 비하여 사회참여 영역의 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해볼 때 단기간에 변화가 발생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경우 노인의 교육 수준 변화 등이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관심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상호배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여년 간 상향되어 왔지만 여전히 50점 미만인 ‘소득’ 영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지속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효과적이어야 할 것이다. 추진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더불어 실질적인 절대빈곤의 완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정책 목표로 절대빈곤 완화를 우선순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³⁷⁾ 특히 상대빈곤율의 완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 하겠다.

반면 ‘교육 및 여가’와 ‘시민참여’ 영역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더불어 시민사회 및 기업 등과 같은 다양한 민간 영역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미 전문가들이 이들 영역에서의 시민 사회(NGO)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정경희 등, 2016). 그런데 현재 노인들의 교육 및 여가, 시민참여와 관련된 욕구는 잠재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 시민사회 및 기업 등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 영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37) 더불어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률이 매우 낮다는 점과 국제 비교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유난히 경제상태 만족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객관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주관적인 측면에서 낮은 만족률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되는 물질적 충족률이 낮기 때문인지, 아니면 문화적 요인이 작동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교육 및 여가’와 ‘시민참여’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시민사회 및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시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하향하는 추세인 가족 및 공동체 연대의식을 강화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 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감소하고 있고,³⁸⁾ 이는 노인의 가족 관계와 실질적인 부양의 제공에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 변화와 정합성을 갖는 가족관계의 변화 및 사회적 연대 모색 등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 성별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령군별 차이도 있지만 이는 사회적 변화와 예비노인의 노년기 진입에 따라 절대적인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성별 차이가 크다는 사실³⁹⁾은 노년기의 성별 차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의 성별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향후 여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성차별 완화 노력은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개입과 동시에 노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설계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고 성차별적인 관행을 완화시켜 가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8) 1994년부터 2014년까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비교해보면 자녀동거율이 1994년의 54.7%에서 2014년 28.4%로 감소하였음. 또한 2014년도 조사에 의하면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도 경제생활을 자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는 64.6%에 불과하고, 일상생활의 경우도 자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는 31.1%이며, 45.6%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등 생활양상에 있어서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음.

39) the Global gender gap index에 의하면 한국은 2016년 기준 144개국 중 116위로, 2006년의 115개국 중 92위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ap Report 2006, 2016 참고).

제3절 지속적인 지표체계의 보완

1. 정책적 함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수화 방법의 모색

다양한 지수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정책적 활용도와 그에 따른 함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경우 개별지표 중 '노인자살률'을 통하여 시범적으로 모색해 보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인자살률은 다른 지표와는 단위가 다르고 최악의 수준을 설정하는 데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 기술된 결과와 노인자살률을 포함하되, 최악의 수준을 다양하게 설정한 결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국제 비교의 경우 안전 및 환경 영역 지수나 통합지수에서 노인자살률 포함 여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 6-1 참조). 그러나 비교 대상 국가들은 노인자살률을 포함하면 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는 반면, 한국만은 낮아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노인의 자살률이 타 국가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다.

한편 안전과 환경 영역의 점수를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면 노인자살률은 분석 기간(2004~2014)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인구집단의 자살률(80세 이상의 남자, 222.7)을 기준으로 하여 역산한 경우는 75.1점이며, 분석 기간 중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점(2010년, 81.9)을 기준으로 하여 역산한 경우는 32.2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현실적으로 어떠한 수준의 노인자살률을 최악의 경우로 상정하고 지표값을 산출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큰 것이다. 이는 노인자살률 수준 저하 목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정할수록 지수값이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노인자살률을 포함하지 않은 안전과 환경 영역의 지수값은 60.8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노인 하위집단의 자살률을 기준으로 한 경우는 64.7점,

170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는 53.0점으로 3개의 방법별 차이가 크다(표 6-3 참조). 이는 동일 가중치를 부여한 방법의 경우도 동일하다(표 6-4 참조).

〈표 6-1〉 한국과 주요 국가의 영역 및 통합지수값(2014년)

(단위: 점)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	스페인
노인 자살률 ¹⁾	환산점수(2)	75.6	97.0	92.9	92.1	90.4
	환산점수(3)	32.2	91.8	80.3	78.1	73.4
안전 및 환경 영역 지수 ²⁾	영역지수(1)	76.6	89.6	82.4	84.9	83.8
	영역지수(2)	76.1	90.4	85.1	88.9	86.8
	영역지수(3)	61.8	90.3	81.7	82.6	80.3
통합지수 ²⁾ (영역 간 동일 가중치)	통합지수(1)	48.0	59.0	55.2	57.1	48.8
	통합지수(2)	47.9	59.2	55.6	57.7	49.4
	통합지수(3)	45.5	59.1	55.0	56.7	48.3

- 주: 1) (2)는 분석 기간(2004~2014)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인구집단의 자살률을 기준(100점)으로 하여 역산한 값임. (3)은 분석 기간(2004~2014) 중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점을 기준(100점)으로 하여 역산한 값임.
 2) (1)은 노인자살률을 포함하지 않은 결과이며, (2)는 분석 기간(2004~2014)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인구집단의 자살률을 기준(100점)으로 하여 역산한 값임. (3)은 분석기간(2004~2014)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점의 자살률을 기준(100점)으로 하여 역산한 값임. 국제자료의 경우, 국내의 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함.

〈표 6-2〉 안전 및 환경 영역의 지표값과 영역 지수값(2014년)¹⁾

(단위: %, 점)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노인 자살률 ²⁾		주거환경 만족률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영역지수(1) ³⁾		영역 지수(2) ⁴⁾		영역 지수(3) ⁵⁾		
	환산 점수(2)	환산 점수(3)			항목별 가중치	동일 가중치	항목별 가중치	동일 가중치	항목별 가중치	동일 가중치	
전체	90.1	75.1	32.2	76.8	10.4	60.8	59.1	64.7	63.1	53.0	52.4

- 주: 1) 전문가 가중치 비중: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25.68, 노인자살률 27.19, 주거환경만족도 24.47,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22.66(총 100점 만점. *단, 노인자살률 가중치는 영역지수 2와 3에 적용됨).
 2) 노인자살률의 경우, (2)는 분석 기간(2004~2014)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인구집단의 자살률을 기준(100점)으로 하여 역산한 값임. (3)은 분석 기간(2004~2014) 중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점을 기준(100점)으로 하여 역산한 값임.
 3) 다른 지표와는 단위가 다른 노인자살률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수로, 전문가 가중치 비중은 -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35.27, 주거환경만족도 33.61,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33.12(총 100점 만점)임.
 4) 노인자살률을 포함하되, 분석 기간(2004~2014)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인구집단의 자살률을 기준(100점)으로 하여 역산한 값임.
 5) 노인자살률을 포함하되, 분석 기간(2004~2014) 중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점을 기준(100점)으로 하여 역산한 값임.
 자료: 1) 국토연구원,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DB, 원자료 재분석.
 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노인태조사.
 3) 통계청, (각 연도), 고령자통계.
 4) 통계청, (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5)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DB, 원자료 재분석.
 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www.kosis.kr에서 2017. 8. 7. 인출.

〈표 6-3〉 영역 및 통합지수값(2014년): 항목별 및 영역별 가중치 부여¹⁾

(단위: 점)

	소득	건강	교육 및 여가	가족 및 공동체	시민 참여	안전 및 환경 ²⁾			통합지수 ³⁾		
						(1)	(2)	(3)	(1)	(2)	(3)
전체	48.2	59.6	15.2	53.7	33.3	60.8	64.7	53.0	46.7	47.3	45.5

주: 1) 전문가 가중치 비중: 소득 20.31, 건강 20.31, 교육 및 여가 14.41, 가족 및 공동체 17.25, 시민참여 12.66, 안전 및 환경 15.07(총 100점 만점).

2) 안전 및 환경 영역 지수(1)은 노인자살률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이며, (2)는 노인자살률을 포함 하되 분석 기간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인구집단의 자살률(80세 이상 남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값임. (3)은 노인자살률을 포함하되 분석 기간 중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점(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값임.

- 전문가 가중치 비중: (1)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35.27, 주거환경만족도 33.61,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33.12(총 100점 만점)임. /(2)~(3)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25.68, 노인자살률 27.19, 주거환경만족도 24.47,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22.66(총 100점 만점)

3) 통합지수(1)~(3)은 안전 및 환경 영역(1)~(3)과 같은 기준이며, 가중치는 (주 1)을 적용함.

〈표 6-4〉 영역 및 통합지수값(2014년): 동일 가중치 부여

(단위: 점)

	소득	건강	교육 및 여가	가족 및 공동체	시민 참여	안전 및 환경 ¹⁾			통합지수 ²⁾		
						(1)	(2)	(3)	(1)	(2)	(3)
전체	48.7	59.3	15.9	53.5	34.6	59.1	63.1	52.4	45.2	45.8	44.1

주: 1) 안전 및 환경 영역 지수(1)은 노인자살률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이며, (2)는 노인자살률을 포함 하되 분석 기간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인구집단의 자살률(80세 이상 남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값임. (3)은 노인자살률을 포함하되 분석 기간 중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점(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값임.

2) 통합지수(1)~(3)은 안전 및 환경 영역(1)~(3)과 같은 기준임.

이러한 비교가 함의하는 바는, 정책적 활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는가에 따라 지수의 구체적인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목표 설정에는 개별지표별로 정책적 개입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 용이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향후 연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지표체계의 포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는 이와 관련한 초기 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수행할 수 없었던 과제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노인의 삶의 질 지수화 작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먼저, 사회문화제도적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예를 들어 3년 또는 5년)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의 특성 및 사회적 변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개별지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연령통합, 사회적 배제의 경험, 존엄한 죽음, 영적인 삶에 대한 욕구, 정신적 충족감, 새로운 정보전달 수단에 대한 학습 능력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책임 주체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 선행 작업 검토에 의하면 성공적으로 주기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표체계와 지수화 작업의 경우 대부분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책임 주체가 주기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 마련과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와 더불어 노인의 삶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통계목록과 관련된 거시지표 등(예: 노인인구비, 노인복지지출 규모)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감으로써 본 지수화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영역별 또는 개별지표별로 100점이라는 수준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의 난이도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정책적 개입이라고 하는 사회지표의 기능에 비추어볼 때, 삶의 질 개선의 용이성은 큰 의미

를 갖는다. 향후 작업에서는 이러한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의 용이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이를 위해서는 가용한 통계자료가 필요할 것이다.⁴⁰⁾

넷째, 노인의 관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그 일환으로 무엇보다 먼저 다양한 가중치 부여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지수화 작업과, 전문가가 부여한 가중치를 반영한 지수화 작업을 함께 실시하였다. 향후에는 이에 더하여 노인이 부여하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경우는 현재 노인의 교육 수준이나 정보 접근성 등을 고려해볼 때 중립적인 가중치 부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인하여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노인의 특성이 변화한 시점에서는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개별지표 선정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문가와의 회의와 조사를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회의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하여 노인의 관점이 반영된 개별지표 선정과 가중치 부여 작업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가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성 확보를 우선순위로 한 작업이었다면, 노인의 관점에서 사회적 적절성이나 정책적 관점과 무관하게 주관적으로 체감되고 있는 삶의 질을 파악하는 것도 삶의 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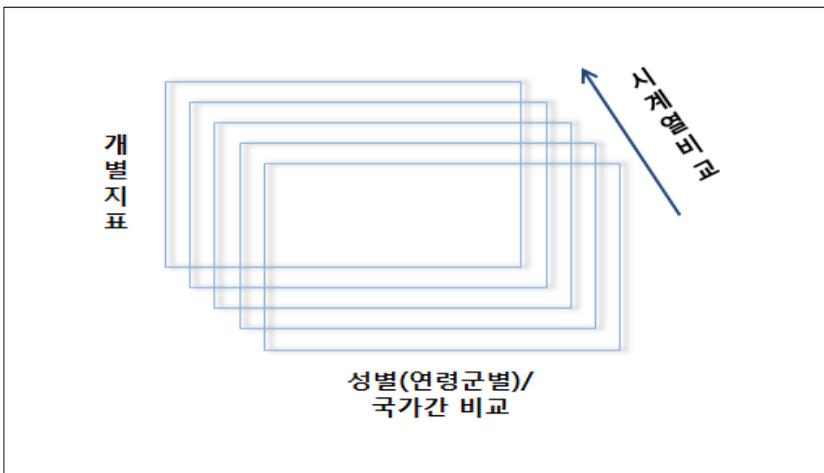
40) 이러한 맥락에서 개별지표별 지역별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이러한 용이성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개별지표의 지역별 현황은 부록 4에 제시하였음.

제4절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인의 삶의 질 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향후 개선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지표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성별로 구분 지어 성인지 통계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연령군별 비교를 통한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간의 차이 확인뿐 아니라 OECD 등의 국제 비교도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DB)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선행연구 검토 등에 기초하여 도출한 노인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의 삶의 질 지수 DB는 시계열 비교와 성별, 연령군별,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노인의 삶 지수 DB 구축을 위한 다차원 개념은 [그림 6-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6-1] 노인의 삶의 질 지수 DB 구축을 위한 다차원 개념



노인의 삶의 질 지수 DB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이용하여 구축할 수 있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연구DB, Data Bank, 사회보장통계, 공간정보통계, 해외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포그래픽스와 통계시각화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 지수 DB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주요 지표를 분야별,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소관 부처별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보장통계와 같은 레벨로, 사회보장통계와 공간정보통계 사이에 한 섹션으로 개발하여 관리할 수 있다.

[그림 6-2] 노인의 삶의 질 지수 DB section



주: 보건복지데이터포털(<http://data.kihasa.re.kr>)을 활용하여 연구진이 재구성함.

노인의 삶의 질 지수 섹션의 메인 페이지에서는 통계청의 삶의 질 지표 메인 페이지와 같이 전반적인 지표 영역 및 구성에 대한 설명과 통계시각화 그림을 제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세부 영역으로 들어가면 각 영역별 세부 지표들을 나열하여 관련 지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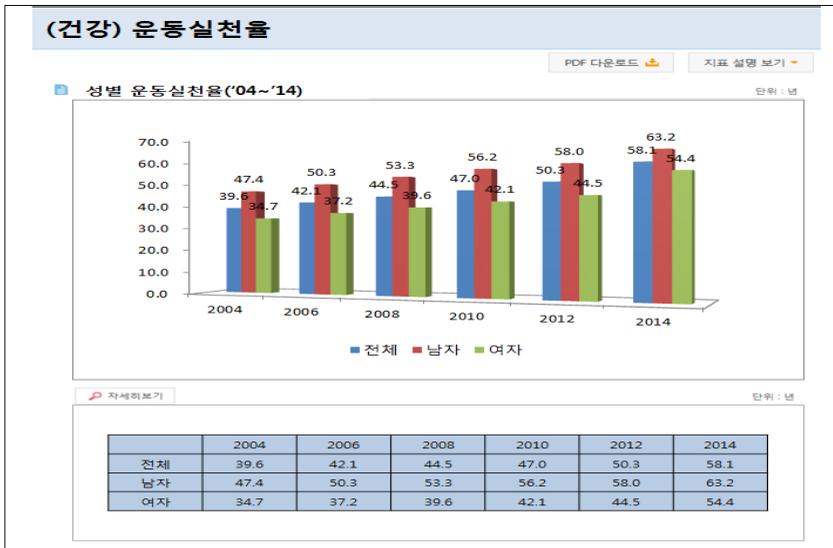
176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그림 6-3] 노인의 삶의 질 지수 DB 구축 틀 예시(안)

노인의 삶의 질	
영역별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건강 교육 및 문화 가족 및 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및 환경 </div>
번호	지표명
1	(소득) 상대적 빈곤율
2	(소득) 경제적 박탈 경험률
3	(소득) 공적연금 수급률
4	(소득) 경제상태 만족률
5	(건강) 운동실천율
6	(건강)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7	(건강) 간헐기간 비율
8	(건강) 주관적 건강인지를
9	(교육 및 문화) 고등교육 이수율
10	(교육 및 문화) 평생교육 참여율

주: 보건복지데이터포털(<http://data.kihasa.re.kr>)을 활용하여 연구진이 재구성함.

[그림 6-4] 노인의 삶의 질 지수 세부 지표 구축 틀 시각화 예시(안)



주: 보건복지데이터포털(<http://data.kihasa.re.kr>)을 활용하여 연구진이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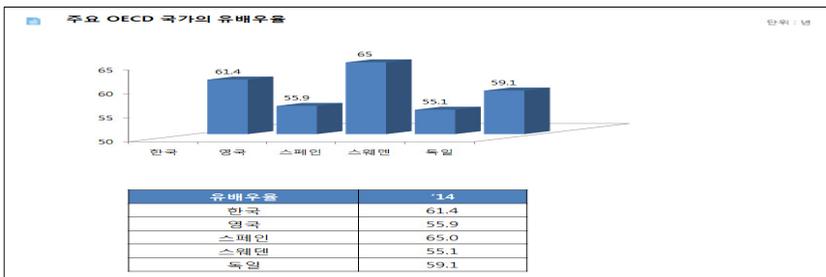
[그림 6-4]는 성별에 따른 운동실천율을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나타낸 통계표 및 그래프이다. 여기에 연령대 구분(65~79세, 80세 이상)도 통계표로 제시하려면 성별 구분과 연령대 구분을 포함한 엑셀표가 구성되어야 한다(표 6-5). 그리고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와 부여하지 않을 경우를 나누어서 시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치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어야 한다.

〈표 6-5〉 노인의 삶의 질 지수 DB 세부 지표 구축 틀 예시

개별지표	가중치	구분		연도						
				'04	'06	'08	'10	'12	'14	
운동실천율	적용	전체	성별	남자						
			성별	여자						
		연령군별	65~79세							
			80세 이상							
	미적용	전체	성별	남자						
			성별	여자						
연령군별		65~79세								
		80세 이상								

노인의 삶의 질 지수의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국가별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된다. 국가별 시계열 변화 추이는 아래 그림에서 성별 레벨과 같은 수준으로 국가를 입력하면 된다.

〈그림 6-5〉 노인의 삶의 질 지수 DB 세부 지표 국제 비교 구축 틀 예시



주: 보건복지데이터포털(<http://data.kihasa.re.kr>)을 활용하여 연구진이 재구성함.

[그림 6-6] 노인의 삶의 질 지수 DB 세부 지표 국제 비교 map 구축 틀 예시



자료: 보건복지데이터포털(<http://data.kihasa.re.kr>)에서 2017. 9. 21. 인출.

현재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는 공간정보통계 섹션에 맞춤형 통계시각화 파트를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시·도 또는 시·군·구 통계를 지도 위에서 색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인의 삶의 질 지수 DB에서 이 부분을 고도화한다면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 지도에서 국가별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삶의 질 지수 DB 구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메인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냐이다. 통계청의 삶의 질 지표와 GAWI는 다양한 구성과 색상을 사용하여 시각화 표현을 극대화하였다. 노인의 삶의 질 지수 역시 단순하면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시각화 표현을 개발하는 것이 첫 단계일 것이다. 그리고 영역별 세부 지표들에 대한 설명 및 성별 또는 연령대와 같은 세부 단위의 확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는 생산되고 있지 않지만 추후 필요에 의해 생산되는 통계지표들도 염두에 두고, DB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표별 가중치를 전문가들이 부여한 값과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부여한 값

을 적용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국제 비교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노인의 삶의 질 지수 DB의 국제 비교는 GWAI를 벤치마킹하여 구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비교 파트를 따로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역별 지표값이 국가별로 수집되어 있어야 한다. 노인의 삶의 질 지수 DB는 지속적이고 확장 가능성 있도록 설계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강소량, 문상호. (2011). 근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의료정책 경로분석: 중, 고령자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011(4), 235-261.
- 김환식, 최윤희, 최진권, 안희성, 김창환, 강영혜 등. (2014). 2014 한국성인의 평생학습실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고용정보원. 고령화 연구패널 원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각 연도). 공무원연금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 국민연금공단. (각 연도). 국민연금통계연보.
- 국토연구원.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 김상호, 정해식, 임성은, 김성아. (2016). OECD 국가의 복지 수준비교 연구.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석호. (2016).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결과. 국민 삶의 질(웰빙) 지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경영전략연구
실, 대한건강학회.
- 김승권, 장영식, 조홍식, 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
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주하, 김상봉. (2016). 한국의 국민행복지수 산출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시
장경제연구**, 45(3), 119-143.
- 박대식, 마상진. (2007).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 **농촌경
제**, 30(4), 31-55.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2017).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내부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2012 치매유병률 조사.
- 보건복지부. (2013).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
- 보건복지부. (2016).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노인실태조사.

사학연금관리공단. (각 연도). 사학연금통계연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시민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2). 서울여성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

석현호, 우천식, 이재열, 윤순진, 홍기석, 김태중 등. (2013). 국가주요지표 연구
1.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심재현, 성주인, 노승철, 송미령, 김광선, 권인혜. (2014). 2014 지역발전지수
(RDI)를 통해서 본 농어촌 삶의 질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영희, 석재은, 권중돈, 김정석, 박영란, 임정기. (200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여성농어촌-거노인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외교부 주오이시디대표부. (2016). 2016년 OECD Better Life Index 주요 내용.

이가옥, 이현송, 김정석. (2000). 노년기의 삶의 질: 지표개발과 평가. 성공회대
학교, 유한킴벌리.

이세형, 장훈, 노진아. (2011). 수도권 삶의 질 지수 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측량
학회지**, 29(1), 29-37.

이희길, 심수진. (2010). 사회지표 개편 방향 탐색. **한국사회**, 11(1), 47-77.

이희길, 심수진, 박주연, 배현혜. (2013). 국민 삶의 질 측정 2013. 통계개발원
하반기 연구보고서.

여유진, 김영순, 강병구, 김수정, 김수완, 이승윤 등. (2016). 한국형 복지모형 구
축: 복지레짐 비교를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현좌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김미혜, 정순돌. (2002). 한국의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이윤경, 이소정, 이은진, 조혜현 등. (20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
대응 현황과 과제: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PA를 중심으
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박보미. (2012).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염주희, 황남희, 김정석, 이금룡, 오신휘. (2013).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황남희, 신현구, 남효정(2013). 미래 고령사회 대응 베이비 붐 세대 및 전·후 세대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 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김경래, 오영희, 이윤경, 황남희, 이선희. (201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강은나, 이윤경, 황남희, 양찬미. (2016).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이윤경, 김경래, 최해지, 김주현, 이주연 등(2017). 고령화 시대의 노인의 역할 모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 정도채, 심재현, 유은영. (2016).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순돌, 이현희. (2012).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 1998년과 2008년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55, 105-131.
- 정해식, 김성아. (2015). OECD BLI 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삶의 질. **보건복지포럼**, 75-88.
- 정홍원, 남상호, 이윤경, 정경희, 박보미, 김세진 등. (2012).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남훈, 변용찬, 최병호, 정경희, 사은령, 손숙자. (1995).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중앙치매센터. (2015). 2014년 연차보고서.
- 최수정. (2002). 한국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측정도구 개발. **성인간호학회지**, 14(3), 401-410.
- 최아름, 정홍주. (2013). 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한일비교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33, 29-57.
-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통계청. (각 연도). 고령자통계.

- 통계청. (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원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2009).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
- _____. (2013).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
- _____. (2016).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 통계청, 한국 삶의 질 학회. (2017. 3.). GDP plus Beyond 쟁점의 이행실태와
도전과제. 콘퍼런스 자료.
- 하정화, 김정란, 이해주. (2010). 부산 아동청소년 행복지표 개발 연구 II.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 한국고용정보원. (각 연도). 고령화 연구패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 한형수. (2008). 노인의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
인복지연구**, 39, 347-372.
- 행정연구원. (각 연도). 사회통합실태조사 DB.
- 황명진, 심수진. (2007). 행복지수의 개발. 통계개발원.
- Berg, A. I., Hassing, L. B., McClearn, G. E., & Johanson, B. (2006).
What matters for life satisfaction in the oldest-old? *Aging &
Mental Health*, 10(3), 257-264.
- Biderman, A. D. (1966). Social Indicators and Goals, in Bauer, S. (Ed.),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IT Press, 63-77.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n-Recent
Patterns and Trends*. NY: McGraw Hill, Co..
- Campbell, A. and Converse, P. E. (1972).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NY: RUssell Sage Foundation.
-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2014/2015).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wave7)*.
-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2014). *European social survey*.

- Eurostat. (각 연도). *EU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 Eurostat. (2014). *European Health Interview Survey(EHIS)*.
- Eurostat. (2015). *Quality of Life: Facts and Views*.
- Eurostat. (2016). *EU Labour Force Survey*.
- Feder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statistical Offices of the Länder. (2011). *Zensus 2011*.
- Gøsta Esping-Andersen.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elpAge International. (2015). *Global AgeWatch Index 2015 - Methodology update*.
- Global AgeWatch. (2015). *Global AgeWatch Index 2015* Insight report.
- Goebel, B. L., & Brown, D. R. (1981). Age differences in motivation related to Maslow's need hierarchy. *Developmental Psychology*, 17(6), 809-815.
- Kohli, M. (2007). Institutionalization of the Life Course: Looking Back to Look Ahead.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4:3-4. 253-271.
- _____. (1988). Ageing as a Challenge for Sociological Theory. *Ageing and Society*. 8, 367-394.
- Jackson, R., Howe, N. & Nakashima, K. (2010).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CSIS.
- Jackson, R., Howe, N. & Peter, T. (2013).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Second Edition)*. CSIS.
-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The Royal Society, August*, 1435-1446.
- Kenrick, D. (2010). "Rebuilding Maslow's pyramid on an evolutionary foundation". psychologytoday.com.

- Kenrick, D. T., Griskevicius, V., Neuberg, S. L. & Schaller, M. (2010). "Renovating the pyramid of needs: Contemporary extensions built upon ancient foundation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 292.
- Land, K. C. (1983). Social Indicators in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1-26.
- Maslow.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ition)*, Harper & Row.
- OECD. (1982).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 Paris.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1). *2011 Ceensus of England and Wales*.
- The Australian Unity Wellbeing Research Team. (2016). *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 Survey 33.0*.
- The Commission on Measuring Well-being, Japan. (2011). *Measuring National Well-being-Proposed well-being Indicators*.
- The New Economics Foundation. (2016). *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 bringing real wealth onto the balance sheet*.
- UN. (2015). *World marriage data*.
- UNDP. (2015). *HDI Technical notes*.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015). *Active Ageing Index 2014 Analytic Report*.
- University of Waterloo. (2016). *How are Canadians really doing?*
- WHO. *Mortality database*.
- WHO. (2015). *WHO Health Statics*.
- WHO. (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 World value survey. (2010-2014). *World value survey(wave 6) DB*.
- World Forum(2006). *The Global Gap Report*.
- _____ (2016). *The Global Gap Report*.

주요 기관 홈페이지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홈페이지 <http://data.kihasa.re.kr>(2017. 9. 21. 인출)
- 워털루대학교 홈페이지 <http://uwaterloo.ca/canadian-index-wellbeing>(2017. 3. 23. 인출)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 <http://mdis.kostat.go.kr>(2017. 8. 8. 인출)
- 통계청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index.go.kr>(2017. 8. 1. 인출)
- 통계청 삶의 질 홈페이지 <http://qol.kostat.go.kr>(2017. 8. 31./2017. 9. 21. 인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홈페이지 <http://www.mois.go.kr>(2017. 8. 6. 인출)
- 헬프페이지 홈페이지 <http://www.helpage.org>(2017. 8. 31. 인출)
- 호주 연합 홈페이지 <https://www.australianunity.com.au/>
- OECD Better Life Index 홈페이지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 OECD Health data 홈페이지 www.oecd.ilibrary.org/health-data-en(2017. 9. 7. 인출)
- OECD Statistics <http://stat.oecd.org>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홈페이지 <http://hdr.undp.org>

부록 1. 제1차 전문가 조사 조사표

□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2017. 6. 30.~7. 9.
- 조사 대상: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등 관련 전문가 총 20명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조사
- 조사 내용: 지표체계 구성틀, 영역 및 하위 영역 구성, 개별지표의 적절성, 지수화 방법 등
- 응답 결과: 총 17명(85.0%) 회신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관련 전문가 델파이

기간 : 2017년 6월 30일 ~ 2017년 7월 9일
대상 : 전문가 패널
연구진 : 정경희, 오미애, 오영희, 황남희, 이선희, 김정석
연락처 : 이선희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일반과제로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본 연구는 노인의 현황·욕구의 체계적 파악 및 제도적 보완과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한 계량적 자료의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을 경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그에 기초하여 지수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진이 개발한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6개 영역의 44개 개별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귀한 시간 할애하여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본 설문은 7월 9일(일)까지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정경희

* 응답을 끝내신 후 설문은 'CCQ(원인성함).hwp'로 저장하시어 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자 하오니 함께 첨부해드리는 '수당영수증' 파일에 각 필서명하시어 함께 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7. 연구진이 파악한 자료원 외에 가용한 자료원이 있으면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8. 기타 본 연구와 관련한 제언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성실성의것 작성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계자리를 위한 귀하의 일반사항에 대해 맞가지 여쭙겠습니다.

- 1. 소속 및 직위: _____
- 2. 성 명 : _____
- 3. 성별: 남 (), 여 ()

부록 2. 제2차 전문가 조사 조사표

□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2017. 7. 22.~2017. 7. 31.
- 조사 대상: 노인(사회)복지 및 지수화 관련 전문가 50명
 - 노인복지 전반, 건강, 경제, 사회참여 및 가족, 지수화 관련
- 조사 내용: 영역별, 지표 간 중요도 및 우선순위 조사 등
- 조사 결과: 총 36명(72.0%) 회신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관련 가중치 산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기간 : 2017년 7월 22일 ~ 2017년 7월 31일
 대상 : 전문가 패널
 연구진 : 정경희, 오미애, 오영희, 황남희, 이선희, 김정석
 연락처 : 이선희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일반과제로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본 연구는 노인의 현황측구의 체계적 파악 및 제도적 보완, 자원배분의 우선 순위 결정에 필요한 계량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을 경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그에 기초하여 지수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문가 회의와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총 6개 영역과 총 30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된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영역과 하위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연구 일정상 설문회신이 7월 31일(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정경희

※ 응답을 끝내신 후 설문은 ‘OOO(본인성함).wp’로 저장하시어 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자 하오니 함께 첨부해드리는 ‘수당영수증 파일’에 각
 필서명하시어 함께 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 A. 다음은 노인의 삶의 질을 6개 영역으로 나눈 것입니다. 각각의 영역이 노인의 삶의 질 측정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각 10점 만점으로(0점=전혀 중요하지 않음에서 10점에 우 중요함사이의 10점 척도로) < >안에 응답해주시시오. 또한 영역의 우선 순위도 기입 부탁드립니다.

영역	결과평가	우선 순위
소득	< >점/10점	()순위
건강	< >점/10점	()순위
교육 및 여가	< >점/10점	()순위
가족 및 공동체	< >점/10점	()순위
시민참여	< >점/10점	()순위
안전 및 환경	< >점/10점	()순위

(※ 참고 : 영역별 조차적 정의)

영역	조차적 정의
소득	- 기본적인 경제적 보장이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노후가 구현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영역 - 빈곤 수준과 정도, 공공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현 정도 및 주관적인 만족도 파악을 통하여 「소득」영역을 파악하고자 함.
건강	-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를 하고 보호가 필요할 때는 적절한 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장한 노후가 구현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영역 - 운동 및 금연을 통한 건강행위, 기능 저하 및 질병발생에 대응한 적절한 서비스 이용 실태, 결과적 산물로서의 건강한 노후시간, 주관적인 만족도를 통하여 「건강」영역을 파악하고자 함.
교육 및 여가	-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역량이 개발되고 삶의 활력과 자아실현을 가져올 수 있는 여가활동 참여가 구현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영역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수준 및 문화활동 참여 및 만족도를 통하여 「교육 및 여가」영역을 파악하고자 함.
가족 및 공동체	-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애정의 교환과 소속감이 부여되며 사회통합과 결속이 구현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영역 - 중요한 타자인 유배우, 가족관계,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가족 및 공동체」영역을 파악하고자 함.
시민참여	- 다양한 시민참여활동을 통하여 자아가 실현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역동적인 노후가 구현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영역 -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시민적 자유의 구현 정도 및 정치적 효능감,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를 통하여 「시민참여」영역을 파악하고자 함.
안전 및 환경	-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노후의 구현과 안전화 노후 구현을 위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영역 - 범죄경험률, 화재경험률, 자살률에 기초한 안전의 심해 정도, 도로사정률 및 주거환경 만족도를 통한 물리적 환경, 사회안전감 및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를 통한 문화적인 환경의 수준에 기초하여 「안전 및 환경」영역을 파악하고자 함.

■ B. 다음과 같이 30개 개별지표의 절대적인 중요도를 아래와 같이 평가해주시시오.

B-1. 앞서 말씀드렸던 「소득」 영역은 다음과 같이 5개의 하위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표들이 노년기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각 10점 만점으로(0점=전혀 중요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중요함)사이의 10점 척도로 < >안에 응답해주시시오. 또한 영역 내 지표간 우선순위도 기입 부탁드립니다.

소득 영역	절대평가	우선 순위
상대빈곤율	< >점/10점	()순위
평균빈곤율	< >점/10점	()순위
경제적 박탈 경험율	< >점/10점	()순위
공적연금 수급률	< >점/10점	()순위
경제상태 만족도	< >점/10점	()순위

※ 참고 : 소득 영역 개별지표의 조작적 정의

소득 영역	조작적 정의
상대빈곤율	-65세 이상 중 가처분소득 수준이 빈곤선(중위소득 50%) 미만인 비율
평균빈곤율	-65세 이상 중 빈곤인구의 평균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빈곤선으로 나눈 값
경제적 박탈 경험율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중 김계연세, 풍과금 미납, 자녀의 종교육비 미납, 난방, 신용불량 등 경험이 있는 비율
공적연금 수급률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사립연금, 공무원연금 수급한 비율
경제상태 만족도	-65세 이상 노인 중 본인의 경제상태에 대해 족(매우만족+만족)한 비율

B-1-1. 이의 소득 영역의 지표와 관련해 계인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

.....

.....

B-2 앞서 말씀드렸던 「건강」 영역은 다음과 같이 6개의 하위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표들이 노년기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각 10점 만점으로(0점(전혀 중요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중요함)사이의 10점 척도로) < >안에 응답해주시시오. 또한 영역 내 지표간 우선순위도 기입 부탁드립니다.

건강 영역	권대평가	우선 순위
운동실천율	< >점/10점	()순위
입원진수검률	< >점/10점	()순위
공적장기요양보호율	< >점/10점	()순위
필요 의료서비스 미지료율	< >점/10점	()순위
건강기간 비율(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차이)	< >점/10점	()순위
건강상태 만족도	< >점/10점	()순위

(※ 참고 : 건강 영역 개별지표의 조작적 정의)

건강 영역	조작적 정의
운동실천율	-85세 이상 노인 중 평소 1주간 150분 이상 운동을 실천한 비율
입원진수검률	-85세 이상 노인 중 5대 입원진 수검을 받은 비율 -5대안: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위경부암
공적장기요양보호율	-85세 이상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장애 또는 치매유형과 중, 노인장기요양서비스(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한 비율
필요 의료서비스 미지료율	-85세 이상 노인 중 최근 1년간 병의원(치과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비율
건강기간 비율(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차이)	-85세 이상 건강수명(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평균수명(기대수명)간 차이의 비율
건강상태 만족도	-85세 이상 노인 중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만족한 비율

B-2-1. 이의 「건강 영역의 지표」와 관련해 제안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B-3.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 및 여가」 영역은 다음과 같이 4개의 하위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표들이 노년기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각 10점 만점으로(전혀 중요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중요함)사이의 10점 척도로) < >안에 응답해주세요. 또한 영역 내 지표간 우선순위도 기입 부탁드립니다.

교육 및 여가 영역	질대평가	우선 순위
고등교육 이수율	< >점/10점	()순위
평생교육 참여율	< >점/10점	()순위
여가활동 참여율	< >점/10점	()순위
여가활동 만족율	< >점/10점	()순위

※ 참고 : 교육 및 여가 영역 개별지표의 조작적 정의

교육 및 여가 영역	조작적 정의
고등교육 이수율	-85세 이상 노인 중 고등학교 졸업(수료)이상 비율
평생교육 참여율	-85세 이상 노인 중 정규교육과정 이외 학습교육(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한 비율
여가활동 참여율	-85세 이상 노인 중 여가활동에 참여한 비율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 민방활동, 취미오락활동
여가활동 만족율	-85세 이상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

B-3-1. 이의 「교육 및 여가 영역」의 지표와 관련해 제언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B-4. 앞서 말씀드렸던,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은 다음과 같이 3개의 하위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표들이 노년기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각 10점 만점으로(0점(전혀 중요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중요함)사이의 10점 척도로) < >안에 응답해주시시오. 또한 영역 내 지표간 우선순위도 기입 부탁드립니다.

가족 및 공동체 영역	질대평가	우선 순위
유배우율	< >점/10점	()순위
가족관계 만족도	< >점/10점	()순위
친한 친구나 이웃 수	< >점/10점	()순위

※ 참고 : 가족 및 공동체 영역 개발지표의 조작적 정의

가족 및 공동체 영역	조작적 정의
유배우율	-85세 이상 노인 중 배우자 있는 비율
가족관계 만족도	-85세 이상 노인 중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에 만족한 비율
친한 친구나 이웃 수	-85세 이상 노인 중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의 수(평균)

B-4-1. 이의 「가족 및 공동체」 영역의 지표와 관련해 제한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B-5. 앞서 말씀드렸던 「시민참여」 영역은 다음과 같이 5개의 하위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표들이 노년기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각 10점 만점으로(0점(전혀 중요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중요함)사이의 10점 척도로) < >안에 응답해주십시오. 또한 영역 내 지표간 우선순위도 기입 부탁드립니다.

시민참여 영역	절대평가	우선 순위
사회단체참여율	< >점/10점	()순위
자원봉사활동참여율	< >점/10점	()순위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 >점/10점	()순위
대인신뢰	< >점/10점	()순위
기관신뢰	< >점/10점	()순위

※ 참고 : 시민참여 영역 개별지표의 조작적 정의

시민참여 영역	조작적 정의
사회단체참여율	-65세 이상 노인 중 주요 사회단체인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에 참여한 비율
자원봉사활동참여율	-65세 이상 노인 중 무료(유료)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65세 이상 노인 중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는 비율
대인신뢰	-65세 이상 노인 중 일반적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도
기관신뢰	-65세 이상 노인 중 14개 대표기관(국회, 경찰, 언론사 등)에 대한 신뢰 정도의 평균

B-5-1. 이의 「시민참여 영역」의 지표와 관련해 제안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B-6. 앞서 말씀드렸던, 「안전 및 환경」 영역은 다음과 같이 7개의 하위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표들이 노년기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각 10점 만점으로(0점=전혀 중요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중요함)사이의 10점 척도로) < >안에 응답해주시시오. 또한 영역 내 지표간 우선순위도 기입 부탁드립니다.

안전 및 환경 영역	권대평가	우선 순위
자기보고 별과파해출	< >점/10점	()순위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 >점/10점	()순위
노인자살률	< >점/10점	()순위
도르사망률	< >점/10점	()순위
주거환경만족도	< >점/10점	()순위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 >점/10점	()순위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	< >점/10점	()순위

[※ 참고 : 안전 및 환경 영역 개별지표의 조작적 정의]

안전 및 환경 영역	조작적 정의
자기보고 별과파해출	-65세 이상 노인 중 인구 10만명당 개인 대상 별과파해 출견수(강도, 성폭행, 폭행 및 상해)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65세 이상 노인 중 신체, 경사, 성, 경제, 망인(자기), 유기 등 학대피해경험률
노인자살률	-65세 이상 노인 중 인구 10만명당 고의적 자해(자살)사망률
도르사망률	-65세 이상 노인 중 인구 10만명당 도르포통사망자수
주거환경만족도	-65세 이상 노인 중 편의시설, 공공시설, 지역유대 등 (13개항목) 전반적 주거환경 만족도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65세 이상 노인 중 전반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	-노인(70세이상)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평가

B-6-1. 이의 「안전 및 환경」 영역의 지표와 관련해 계안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기타 본 연구와 관련한 제안이 있으면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 성실성의것 작성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계차리를 위한 귀하의 일반사항에 대해 맞가지 여쭙겠습니다.

1. 소속 및 직위: _____
2. 성 명 : _____
3. 성별: 남 (), 여()

부록 3. 전문가 리스트

□ 전문가 회의 및 조사 참여자 리스트

연번	이름	소속	연번	이름	소속
1	강성호	보험연구원	21	석재은	한림대학교
2	강인	서울사이버대	22	손병돈	평택대학교
3	구인회	서울대학교	23	신현구	노동연구원
4	김경혜	서울연구원	24	엄기욱	군산대학교
5	김근홍	강남대학교	25	염지혜	증원대학교
6	김석호	서울대학교	26	윤소영	문화관광연구원
7	김수영	경성대학교	27	이금룡	상명대학교
8	김수완	강남대학교	28	이내찬	한성대학교
9	김영선	경희대학교	29	이석구	충남대학교
10	김욱	경기대학교	30	이성국	대구대학교
11	김재호	직업능력개발원	31	이윤환	아주대학교
12	김정석	동국대학교	32	이인정	덕성여대
13	김주현	충남대학교	33	임병우	성결대학교
14	김찬우	가톨릭대	34	전승훈	대구대학교
15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35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16	남현주	가천대학교	36	최인희	여성정책연구원
17	모선희	국립공주대학교	37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18	박대식	농촌경제연구원	38	한정란	한서대학교
19	변미리	서울연구원	39	홍송이	동국대학교
20	서동민	백석대학교	-	-	-

부록 4. 개별지표의 지역별 현황

□ 분석 개요

○ 분석 시점 : 2014년

○ 분석 대상: 65세 이상 지표별 해당 인구

○ 분석 단위 : %(비율)

○ 분석 지역

- 가용 자료원에 따라 분석 지역 차이 존재.

• 1) 전국 및 16개 시·도(단, 일부 세종 제외): 여가활동 참여율을 제외한 모든 지표

• 2) 전국 및 15개 시·도(제주 제외): 여가활동 참여율

- 분석 가능 지표: 총 18개 지표(전체 22개 지표 중)

• 제외: 상대빈곤율, 경제적 박탈 경험률, 건강기간 비율,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

210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부표 4-1〉 지역별 분석: 소득 영역(공적연금 수급률/경제상태 만족률)

지역	공적연금 수급률(%)	경제상태 만족률(%)
전국	38.4	15.2
서울	37.9	15.5
부산	38.6	11.5
대구	39.4	17.9
인천	34.7	8.4
광주	41.7	21.4
대전	38.0	26.5
울산	39.2	13.7
세종	40.8	na
경기	35.8	14.7
강원	36.8	10.0
충북	37.3	22.7
충남	36.5	22.3
전북	40.8	14.6
전남	43.7	13.2
경북	42.1	15.3
경남	38.7	10.6
제주	42.6	24.1

주: 1) 공적연금 수급률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함(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시·도 통계 부재).

자료: 1) 국민연금공단. (2014). 국민연금통계연보.

2) 공무원연금공단. (2014). 공무원연금통계연보.

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부표 4-2〉 지역별 분석: 건강 영역

지역	운동실천율(%)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¹⁾	주관적 건강인식율(%)
전국	58.1	70.9	32.4
서울	69.0	74.7	38.1
부산	59.9	54.7	22.8
대구	64.3	71.2	29.3
인천	66.1	89.0	26.6
광주	68.1	79.4	37.7
대전	54.6	90.2	46.4
울산	59.9	64.6	32.2
경기	56.0	79.1	34.9
강원	51.7	78.2	39.9
충북	42.9	63.5	40.6
충남	45.3	63.6	35.2
전북	56.8	62.2	26.6
전남	49.8	62.2	33.6
경북	58.4	64.1	27.0
경남	53.6	61.8	23.9
제주	46.4	77.1	30.4

주: 1) 공적 장기요양보호율의 경우 개별지표 현황과 지역별 분석 현황의 가용 자료원이 다름.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원자료 재분석.

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3) 중앙치매센터. (2015). 2014년 연차보고서.

212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부표 4-3〉 지역별 분석: 교육 및 여가 영역

지역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교육 참여율(%)	여가활동 참여율(%)
전국	24.4	13.7	9.7
서울	35.9	15.2	13.4
부산	21.1	11.6	7.3
대구	25.4	17.2	16.4
인천	17.3	16.3	4.8
광주	32.9	12.2	12.9
대전	26.3	13.9	9.6
울산	17.0	14.8	15.9
경기	29.4	13.0	11.8
강원	21.6	12.0	12.1
충북	16.6	21.1	7.3
충남	14.7	10.1	5.8
전북	21.4	16.5	10.5
전남	11.8	9.3	1.3
경북	22.3	13.4	5.0
경남	15.7	12.2	7.8
제주	18.1	10.2	na ¹⁾

주: 1) 여가활동 참여율의 경우, 원자료(고령화 연구패널) 조사 시 제주 지역 제외하고 조사됨.

자료: 1) 고용정보원(2014), 고령화 연구패널, 원자료 재분석.

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부표 4-4〉 지역별 분석: 가족 및 공동체 영역

지역	유배우율(%)	가족관계 만족률(%)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비율(%)
전국	61.4	47.8	62.7
서울	63.1	49.6	65.7
부산	58.8	45.3	37.6
대구	64.5	43.3	50.0
인천	57.6	42.0	69.9
광주	64.7	41.9	78.8
대전	63.0	47.1	60.2
울산	56.0	30.7	95.2
경기	61.4	43.8	59.7
강원	59.5	51.1	73.5
충북	60.9	57.4	67.9
충남	61.2	55.5	67.6
전북	61.5	42.5	71.1
전남	60.8	63.6	71.4
경북	64.3	43.6	77.3
경남	58.2	50.6	41.2
제주	65.6	52.5	50.4

자료: 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2) 통계청(2014), 사회조사, 원자료 재분석.

214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부표 4-5〉 지역별 분석: 시민참여 영역

지역	사회단체 참여율(%)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정치적 자기역량인식(%) ¹⁾
전국	48.7	4.5	55.0
서울	53.5	6.4	58.1
부산	59.0	4.0	56.8
대구	55.5	5.0	59.6
인천	39.7	2.4	42.6
광주	55.3	5.3	33.3
대전	55.1	4.8	48.0
울산	49.9	5.2	68.4
경기	44.3	5.1	53.4
강원	45.4	4.2	43.8
충북	45.5	2.6	33.3
충남	47.2	2.1	59.5
전북	52.5	5.4	60.0
전남	33.6	1.8	62.8
경북	53.5	4.9	59.3
경남	45.1	3.2	58.7
제주	49.2	4.3	54.5

주: 1) 정치적 자기역량인식의 경우, 원자료(사회통합실태조사)의 한계로 60세 이상의 결과임.

자료: 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2) 행정연구원(2014),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부표 4-6〉 지역별 분석: 안전 및 환경 영역

지역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노인 자살률(10만명당)	사회안전에 대한 만족률(%)	주거환경 만족률(%)
전국	9.9	55.5	10.4	76.8
서울	13.4	50.3	7.5	81.2
부산	20.4	49.0	14.5	77.2
대구	4.8	46.0	7.5	71.9
인천	10.9	60.0	11.2	77.8
광주	2.9	48.6	5.6	74.0
대전	4.8	56.8	11.7	90.3
울산	4.0	53.4	8.6	71.6
경기	7.6	61.3	9.0	78.7
강원	15.9	75.3	12.5	88.4
충북	7.7	65.7	15.6	79.9
충남	8.1	76.2	9.2	64.6
전북	14.8	45.7	5.5	70.6
전남	4.3	52.0	15.3	74.5
경북	5.7	51.9	17.0	62.0
경남	10.2	50.1	10.0	82.4
제주	7.8	46.2	10.3	94.7

자료: 1) 국토연구원(2014).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3) 통계청(2014). 사회조사, 원자료 재분석.

부록 5. 지표별 국내의 관련 분석 문항

<부표 5-1> 지표별 국내외 관련 분석 문항

대영역	개별지표	정의	분석 단위		가용 자료원		분석 문항(2014년 기준)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소득	상대빈곤율 (부정 방향)	-65세 이상 중 가처분소득 수준이 빈곤선(중위소득 50%) 미만인 비율	가계동향조사	OECD Stat	-	-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Poverty line 50%		
	경제적 박탈 경험률 (부정 방향)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중 짐세 연체, 공공요금 미납, 자녀의 교육비용 부담, 난방 못함, 신용불량 등 박탈 경험이 있는 비율	한국복지패널 (가구용)	EU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지난 1년간 짐세 미납, 공공요금 미납, 공공요금 미납, 난방 못함, 의료서비스 이용 못함, 신용불량 경험, 건강보험 미납 경험이 있으십니까? (2014)	-Has your household been in arrears at any time in the last 12 months that is unable to pay any of the following items on time? (rent for accommodation, mortgage, electricity bill, gas bill, other fuel bills like oil or coal, water rates, hire purchase instalments or other loan payments, etc.)		
	공적연금 수급률 (긍정 방향)	-65세 이상 중, 각 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수급률의 합	국민 (공무원, 사학) 연금 통계연보 발령채우연금 내부자료	부재	-			
	경제상태 만족률 (긍정 방향)	-65세 이상 중 경제상태에 만족(매우 만족+만족)한 비율	노인실태조사	European social survey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느낀다고 느낀다고 만족하십니까?	-Feeling about household's income nowadays?		

대영역	개별지표	정의	분석 단위	기용 자료원		분석 문항(2014년 기준)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건강	운동실천율 (긍정 방향)	-65세 이상 중 1주일간 150분 이상 운동을 실천한 비율	%	노인실태조사	European Health Interview Survey; EHIS	-귀하께서는 평소 운동을 하십니까?	-During the past 7 days, on how many days did you do moderate physical activities? (physical activities that you did for at least 10 minutes at a time)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65세 이상 중 신체 및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의 보호를 위한 공적 돌봄(노인장기요양 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치매유병률조사/노인실태조사	OECD, Health data	-	-65 years over people are institution, at home receipts
	건강기간 비율	-기대여명 중 질병이나 사고가 없는 건강기간 비율	%	생명표	WHO, World Health Statistics	-	-
	주관적 건강인지율 (긍정 방향)	-65세 이상 중 건강상태에 만족(매우 만족+만족)한 비율	%	노인실태조사	OECD, Health data	-귀하의 평소 건강 상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ow in your health general?

대영역	개별지표	정의	분석 단위	가용 자료원		분석 문항(2014년 기준)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교육 및 여가	고등교육 이수율 (금정 방향)	-65세 이상 인구 중 고등학 교 졸업 이상자의 비율	%	EU Labour Force Survey; EU-LFS	국외	-What class was your (first) degree? (first/ upper(lower) second, third, pass, etc.)	
	평생교육 참여율 (금정 방향)	-65세 이상 중 정규교육과 정 이외 학습교육(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	EU Labour Force Survey; EU-LFS	국내	-귀하의 교육 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무학~대학교 이상)	-Did you take part in any of that education or training in the 4weeks ending Sunday the date? -could you tell me whether you are an active member, an inactive member or not a member of Art, music or educational organization? (영국)are you a member of any of these organisations, clubs or societies? (education, arts of music groups or evening class; social clubs, sports clubs, or other organisations)
	여기활동 참여율 (금정 방향)	-65세 이상 노인 중 여가활동(영화, 공연, 음악, 전시회, 스포츠 관람 및 취미나 오락 관련 모임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	%	고령화 연구패널 -World value survey -ELSA(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국외	-귀하는 지난 1년간 영화, 공연, 음악회, 전시회, 스포츠 경기 등을 관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귀하는 지난 1년간 취미 및 오락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하신 적이 있으니까?	

대영역	개별지표	정의	분석 단위	기용 자료원		분석 문항(2014년 기준)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가족 및 공동체	유배우율 (긍정 방향)	-65세 이상 기혼자 중 배우자 있는 비율(별거, 기혼 후 이혼, 사별 등 제외)	%	노인실태조사	스웨덴, 스페인/ UN(2015). World marriage data. 독일/ Feder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statistical Offices of the Länder(2011). Zensus 2011. 영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1). 2011 Ceensus of England and Wales.	국외의 혼인상태는 어떠한가요?	-Married or party to a civil union
	가족관계 만족률 (긍정 방향)	-65세 이상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가족생활 전반)에 만족(매우 만족 포함)한 비율	%	사회조사	부재	귀하는 전반적인 가족 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친한 친구 이웃이 있는 비율 (긍정 방향)	-65세 이상 중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있는 비율	% (명에 기초해 산출)	노인실태조사	European social survey	귀하는 지난 1년간 친구, 이웃, 지인과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How many people, if any, are there with whom you can discuss intimate and personal matters?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 (긍정 방향)	-65세 이상 중 노인(70세 이상)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평가	점	World value survey	과동	please tell me where most people would place the social position of people over 70?	-과동

대영역	개별지표	정의	분석 단위		가용 자료원		국내	분석 문항(2014년 기준)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시민 참여	사회단체 참여율 (금정 방향)	-65세 이상 중 주요 사회단체인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참여비율(합)	%		-World value survey -ELSA(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노인실태조사	-귀하는 지난 1년간 동호회(클럽), 친목단체, 정치사회 단체활동에 참여하셨습니다습니까?	-could you tell me whether you are an active member, an inactive member or not a member of that 1) sport or recreation, 2) political party organization? (영국)are you a member of any of these organisations clubs or societies? (political party, trade union or environmental groups, church of other religious groups, charitable associations)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금정 방향)	-65세 이상 중 전 생애 자원봉사활동 경험 비율	%		-World value survey -ELSA(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노인실태조사	-귀하께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could you tell me whether you are an active member, an inactive member or not a member of charitable/humanitarian organization? (영국)in the last 12months, have you given any unpaid help to any groups, clubs or organisations in any of the ways shown on this card?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금정 방향)	-65세 이상 중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치효능감에 대해 동의(매우 동의 포함)하는 비율	%		사회통합실태조사	European social survey	사회통합실태조사	-How confident are in your own ability to participation in politics?

대영역	개별지표	정의	분석 단위	가용 자료원		분석 문항(2014년 기준)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안전 및 환경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부정 방향)	-65세 이상 중 신체, 정서, 성, 경제, 방임(자해), 유기 등 학대 피해 경험에 있는 비율	%	노인실태조사	부재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방임 등) 경험이 있으십니까?	-
	노인자살률 (부정 방향)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사망원인통계	OECD, Health data WHO, Mortality database	-	-
	사회안전에 대한 만족률 (긍정 방향)	-65세 이상 중 전반적으로 사회가 안전(매우 안전 포함)하다고 응답한 비율	%	사회조사	European social survey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How safe do you - or would you - feel walking alone in this area ³¹ after dark?
	주거환경 만족률	-65세 이상 중 주거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매우 만족 포함)한 비율	%	주거실태조사	EU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귀댁이 현재 거주하는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해주시시오.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dwelling?

부록 6. 개별지표의 국가별(한국, 영국, 스웨덴, 독일) 현황

〈부표 6-1〉 개별지표의 국가별 현황: 소득 영역

영역	개별지표	분석 단위	분석 대상 (국제)	분석 시점 (국제)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	스페인	지표 정의(국제)
소득	상대빈곤율	%	65세 이상	2014	47.3	10.0	9.5	13.1	5.4	-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Poverty line 50%
	경제적 박탈 경험률	%	65세 이상	2014	12.2	0.9	7.6	6.0	9.9	-Material Deprivation(to pay rent or utility bills, keep home adequately warm, face unexpected expense, eat meat; fish; or a protein equivalent every second day, a week holiday away from home, a car, a washing or more these
	공적연금 수급률	%	na	-	38.9	na	na	na	na	-
	경제상태 만족률	%	65세 이상	2014	15.2	89.8	94.2	90.8	78.9	-Feeling about household's income nowadays → (very) satisfied

자료: 1) 상대빈곤율: OECD stat의 relative poverty rate (www.stat.oecd.org(2017. 9. 7. 인출))

2) 경제적 박탈 경험률: Eurostat, 2014, EU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EU-SILC) 원자료 재분석.

3) 경제상태 만족률: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2014, European social survey 원자료 재분석.

(부표 6-2) 개별지표의 국가별 현황: 건강 영역

영역	개별지표	분석 단위	분석 대상 (국제)	분석 시점 (국제)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 스페인	지표 정의(국제)
건강	운동실천율	%	65세 이상	2014	58.1 64.5 63.2 43.7 31.5	-Time spent on health-enhancing(non-work-related) aerobic physical activity → sum of ratios of exercise over 1 minute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	65세 이상	2014 (영국:2011)	6.6 ¹⁾ 16.3 13.0 16.2 8.1	-Percentage of long-term care services among elderly people aged 65 years or older
	건강기간 비율	%	전체	2013	89.0 87.8 87.7 87.7 88.0	-Health life/Average life ratio
	주관적 건강인지율	%	65세 이상	2014	32.4 67.6 41.1 50.8 40.5	-Perceived health status → (very) satisfied

주: 1) 국제 비교의 경우, 국내 분석(개별지표 현황/ 지역별 분석 현황) 정의 및 산식과 상이함. 공적 장기요양보호율(한국)은 국제 비교와 동일하게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서비스 이용률'로 조작적 정의하여 재분석함.

자료: 1) 운동실천율: Eurostat, 2014. European Health Interview Survey(EHIS) 원자료 재분석.

2) 공적 장기요양보호율/건강상태 만족률: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제연보 ②OECD. Health data(www.oecd.ilibrary.org/health-data-en)에서 2017. 9. 7. 인출.

3) 건강기간 비율: WHO, 2015, WHO Health Statistics 원자료 재분석.

4) 주관적 건강인지율: OECD. Health data(www.oecd.ilibrary.org/health-data-en)에서 2017. 9. 7. 인출.

〈부표 6-3〉 개별지표의 국가별 현황: 교육 및 여가 영역

영역	개별지표	분석 단위	분석 대상 (국제)	분석 시점 (국제)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	스페인	지표 정의(국제)
교육 및 여가	고등교육 이수율	%	55~74세	2016	51.5 ¹⁾	28.2	24.1	31.0	18.2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Tertiary education covers ISCED-11 levels 5~8 portion
	평생교육 참여율	%	55~74세	2016	18.3 ¹⁾	18.1	2.0	8.7	3.3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last 4 weeks);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and training
	여가활동 참여율	%	65세 이상	2010~2014 (영국: '14~15)	9.7	31.7	17.0	30.1	3.3	(스페인, 스웨덴, 독일) -Active membership of art, music, educational (영국) -a member of an education, arts or music group or evening class / sports clubs, gyms, exercise class.

주: 1)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교육 참여율(한국의 경우, 국내 분석(개별지표 현황/ 지역별 분석 현황) 정의 및 산식과 상이함.

① 고등교육 이수율: 55~74세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 비율

② 평생교육 참여율: 55~74세 중 평생교육에 참여한 비율

자료: 1)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교육 참여율: Euro stat, 2016, EU Labour Force Survey 원자료 재분석.

2) 여가활동 참여율: (스페인, 스웨덴, 독일) World value survey(2010~2014), World value survey(wave 6), 원자료 재분석.

(영국)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2014/2015),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wave7), 원자료 재분석.

〈부표 6-4〉 개별지표의 국가별 현황: 가족 및 공동체 영역

영역	개별지표	분석 단위	분석 대상 (국제)	분석 시점 (국제)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	스페인	지표 정의(국제)
가족 및 공동체	유배우울	%	65세 이상	2014 (독일, 영국, 스웨덴: 2011)	61.4	55.1	59.1	55.9	65.0	(스웨덴, 스페인) Married / (독일, 영국) Married, party to a civil union
	가족관계 만족률	%	65세 이상	na	47.8	na	na	na	na	-
	친한 친구-이웃 비율	%	65세 이상	2014	62.7	96.9	97.6	95.1	95.4	-How many people with whom you can discuss intimate and personal matters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	%	65세 이상	2010~2014	42.0	45.1	58.9	59.6	49.4	-Social position: People in their 70s

자료: 1) 유배우울: ① 스웨덴, 스페인 - UN. (2015). World marriage data. ② 독일 - Feder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statistical Offices of the Länder. (2011). Zensus 2011. ③ 영국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1). 2011 Ceunus of England and Wales.
 2) 친한 친구나 이웃 비율: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2014, European social survey 원자료 재분석.
 3)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 World value survey(2010-2014). World value survey(wave 6). 원자료 재분석.

〈부표 6-5〉 개별지표의 국가별 현황: 시민참여 영역

영역	개별지표	분석 대상 단위	분석 대상 (국제)	분석 시점 (국제)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	스페인	지표 정의(국제)
시민 참여	사회단체 참여율	%	65세 이상	2010~2014 (영국: '14~15)	44.4	37.2	32.3	38.3	10.5	(스페인, 스웨덴, 독일) -Active membership of sport or recreation: Active membership of political party (영국) -member of a political party, trade union of environmental group/ a church or religious group / social clubs / other organizations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65세 이상	2010~2014 (영국: '14~15)	4.5	31.0	16.5	28.2	5.5	(스페인, 스웨덴, 독일) -Active membership of charitable/ humanitarian organization (영국) -how often do you any voluntary work at a last year?
	정치적 자기역량인식	%	65세 이상	2014	55.0	41.0	46.0	42.5	25.8	-Confident in own ability to participate in politics

자료: 1) 사회단체 참여율,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스페인, 스웨덴, 독일) World value survey(2010-2014). World value survey(wave 6)원자료 재분석.
(영국)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2014/2015).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wave7) 원자료 재분석.

2) 정치적 자기역량인식: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2014, European social survey 원자료 재분석.

〈부표 6-6〉 개별지표의 국가별 현황: 안전 및 환경 영역

영역	개별지표	분석 단위	분석 대상 (국제)	분석 시점 (국제)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	스페인	지표 정의(국제)
안전 및 환경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	65세 이상	na	9.9	na	na	na	na	-
	노인자살률 ¹⁾	인구 10만 명당	65세 이상	2013 (2011)	55.5	6.7	16.1	17.9	21.8	-Suicide rate per 100,000 persons(* 연령구간별 인구 구성비 적용하여 계산, 독일, 스페인, 영국 2011 센서스, 스웨덴 2013 센서스 활용)
	주거환경 만족률	%	65세 이상	2012	76.8	97.3	90.7	98.1	90.6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dwelling → (very) satisfied
	사회안전에 대한 만족률 ²⁾	%	65세 이상	2014	23.7 ²⁾	81.9	74.1	71.7	77.0	-Feeling of safety of walking alone in local area after dark

주: 1) 자살률은 인구십만명당 65세 이상 사망자 수(원지표) 값임. 국외자료의 경우 연령구간별 인구구성비를 적용하여 재계산된 사망률임.
 2) 사회안전에 대한 만족률(한국)의 경우, 국내 분석(개별지표 현황/ 지역별 분석 현황) 정의 및 산식과 상이함. 본 표에서는 '아간보행에 대한 안전도(동계정, 사회조사)'로 재분석됨.
 자료: 1) 노인자살률: OECD, Health data, 2017, 9, 7, 인출. (원자료: WHO Mortality database)
 2) 주거환경 만족률: Eurostat, 2012, EU Survey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원자료 재분석.
 3) 사회안전에 대한 만족률: ① 동계정, 2014, 사회조사 원자료 재분석, ②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2014, European social survey 원자료 재분석.

부록 7. 개별지표 관련 연도별, 성·연령별 통계

〈부표 7-1〉 소득 영역: 상대빈곤율¹⁾²⁾

대영역	개별지표	구분	시계열					
			'04	'06	'08	'10	'12 ³⁾	'14
소득	상대빈곤율 (%)	전체	-	44.9	46.0	47.2	48.0	47.3
		성별						
		남자	-	37.6	37.7	37.4	38.9	37.9
		여자	-	59.2	61.1	66.1	64.6	64.2
		연령군별						
		65~79세	-	44.7	46.2	46.6	47.3	44.5
		80세 이상	-	46.1	44.8	50.4	52.3	62.4

주: 1) 빈곤선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임.

2) 가계동향조사 조사 대상 가구가 2006년부터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됨.

3) 가계동향조사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2012년부터 기타수입에서 경상소득(재산소득)으로 분류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http://mdis.kostat.go.kr>))에서 2017. 8. 8. 반출. 각연도.

〈부표 7-2〉 소득 영여: 경제적 박탈 경험률

대영역	개별지표	구분	시계열					
			'04	'06	'08	'10	'12	'14
소득	경제적 박탈 경험률(%)	전체	18.6	11.7	19.0	17.6	14.6	12.2
		성별						
		남자	16.9	9.1	15.2	15.1	11.9	9.7
		여자	19.8	13.5	21.5	19.4	16.4	13.9
		연령군별						
		65~79세	19.1	11.9	18.7	17.6	13.7	11.4
80세 이상	15.8	10.8	20.4	17.8	18.3	15.4		

주: 1) 생활 여건 속에서 경험한 경제적 어려움 13가지는 다음과 같고, 1개 이상 경험한 비율을 의미함.

- ① 2달 이상 짐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짐을 옮긴 경험, ②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③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 ④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못 준 경험, ⑤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⑥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 간 경험, ⑦ 기구원 증신용 불량자가 된 경험자 여부, ⑧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 ⑨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⑩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경험, ⑪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⑫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먹은 경험, 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게도 먹지 못한 경험 2) (경제적 박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에서 생활하는 노인 수 / 65세 이상 조사자 수) × 100

2) 2004년은 한국복지패널조사 2005년 결과, 2016년은 한국복지패널조사 2015년 결과임.

3) 생활 여건 어려움 문항이 2004년과 2006년은 8개, 2008년 이후는 13개로 확대됨(조사 대상 연도 기준)이며, 식사관련 문항이 1개에서 5개로 증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각연도.

〈부표 7-3〉 소득 영역: 공적연금 수급률

대영역	개별지표	구분	시계열					
			'04	'06	'08	'10	'12	'14
소득	공적연금 수급률 (%)	전체	13.2	19.0	25.0	30.0	34.8	38.9
		성별	-	-	-	-	-	-
		남자	-	-	-	-	-	57.9
		여자	-	-	-	-	-	25.2
		연령군별	-	-	-	-	-	-
		65~79세	-	-	-	-	-	46.0
		80세 이상	-	-	-	-	-	10.1

주: 1) 각 연금수급자의 합계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는 비율로, 원자료의 한계로 인해 연도별 연금 수급자 수의 기준 상이함.

① 2004~2012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급자 수의 합

② 2014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학연금 수급자 수의 합

2) 2004~2012년 원자료 DB에서 하위 집단별 정보 부재함.

자료: 1)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보, 각연도.

2)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연도.

3)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2017).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내부 자료.

4)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연도.

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각연도. (<http://www.mois.go.kr>)에서 2017. 8. 6. 인출.

〈부표 7-4〉 소득 영역: 경제상태 민족률

대영역	개별지표	구분	시계열					
			'04 ¹⁾	'06	'08	'10	'12 ¹⁾	'14
소득	경제상태 민족률(%)	전체	11.3	-	24.7	-	18.1	15.2
		성별						
		남자	14.4	-	28.6	-	21.8	18.2
		여자	9.4	-	22.1	-	15.3	13.1
		연령군별						
		65~79세	11.5	-	24.9	-	18.4	16.0
80세 이상	10.1	-	24.0	-	16.6	12.2		

주: 1) 2004년은 동년배와 비교한 경제상태 문항이 조사됨. 2012년은 2011년 조사 결과를 기입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각연도, 원자료 재분석.

〈부표 7-5〉 건강 영역: 운동실천율

대영역	개별지표	구분	시계열					
			'04 ²⁾	'06	'08 ³⁾	'10	'12 ¹⁾	'14 ¹⁾
건강	운동실천율 (%)	진체	39.6	-	-	-	50.3	58.1
		성별						
		남자	47.4	-	-	-	58.0	63.2
		여자	34.7	-	-	-	44.5	54.4
		연령군별						
		65~79세	41.3	-	-	-	53.0	61.3
		80세 이상	27.5	-	-	-	37.3	45.2

주: 1) 2011년 조사 결과를 기입한 값임.
 2) 2004년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로, 운동을 가끔, 자주한다는 비율의 합임.
 3) 2008년은 중등도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주에 1회 이상 하는 비율로, 타 연도와 개념이 상이하야 제외함.
 4) 2011년과 2014년은 평소 운동을 한다는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연도, 원자료 재분석.

〈부표 7-6〉 건강 영역: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대영역	개별지표	구분	시계열					
			'04	'06	'08	'10 ²⁾	'12 ³⁾	'14
건강	공적 장기요양 보호율(%)	전체	-	-	33.5	69.2	64.0	67.4
		성별						
		남자	-	-	22.5	49.2	60.0	62.5
		여자	-	-	40.5	82.1	65.6	69.4
	연령군별							
		65~79세	-	-	29.5	59.8	74.5	70.6
		80세 이상	-	-	38.8	80.9	57.5	65.6

주: 1)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수)/(65세 이상 ADL 1개 이상 제한 노인 +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 *100로 계산하였으며, 장기요양이용자 수의 경우,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함.

2) 2010년, 2012년 값의 경우, ADL 1개 이상 제한 노인은 노인실태조사 결과(2011년)를 활용함.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통계연보, 각연도.

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연도. 원자료 재분석.

3) 보건복지부. (2012). 2012 치매유병률 조사.

4) 보건복지부. (2016).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

〈부표 7-7〉 건강 영역: 건강기간 비율

대영역	개별지표	구분	시계열					
			'04	'06	'08	'10	'12	'14
건강	건강기간 비율(%)	전체	-	-	-	-	81.0	79.4
		성별						
		남자	-	-	-	-	83.7	82.2
		여자	-	-	-	-	78.8	77.1
		연령군별						
		65~79세	-	-	-	-	-	-
80세 이상	-	-	-	-	-	-		

주: 1) 통계청 생명표(건강수명): 2012, 2014년만 제시됨.
 자료: 1) 통계청, e-나라지표(www.index.go.kr(2017.8.1. 인출)).

〈부표 7-8〉 건강 영역: 주관적 건강인지율

대영역	개별지표	구분	시계열						
			'04	'06	'08	'10	'12 ¹⁾	'14	
건강	주관적 건강인지율(%)	전체	-	-	24.4	-	-	34.1	32.4
		성별							
		남자	-	-	35.4	-	-	44.0	42.1
		여자	-	-	17.0	-	-	26.7	25.5
		연령군별							
		65~79세	-	-	25.9	-	-	35.5	34.6
80세 이상	-	-	16.5	-	-	27.4	23.4		

주: 1) 2011년 조사 결과를 기입한 값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각연도, 원자료 재분석.

〈부표 7-9〉 교육 및 여가 영역: 고등교육 이수율²⁾

대영역	개별지표	구분	시계열						
			'04	'06	'08	'10	'12 ¹⁾	'14	
교육 및 여가	고등교육 이수율(%)	전체	15.4	-	17.2	-	-	19.5	24.3
		성별							
		남자	30.9	-	30.4	-	-	33.8	40.4
		여자	5.8	-	8.3	-	-	8.6	12.8
		연령군별							
		65~79세	17.1	-	19.1	-	21.1	27.3	
		80세 이상	6.3	-	7.3	-	11.7	13.1	

주: 1) 2011년 조사 결과임.

2) 조사 대상 노인 모두 포함한 분석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연도, 원자료 재분석.

〈부표 7-10〉 교육 및 여가 영역: 평생교육 참여율²⁾

대영역	개별지표	구분	시계열					
			'04	'06	'08	'10	'12) ¹⁾	'14
교육 및 여가	평생교육 참여율(%)	전체	4.8	-	13.4	-	6.7	13.7
		성별						
		남자	4.6	-	11.8	-	5.5	8.5
		여자	4.8	-	14.5	-	7.6	17.3
		연령군별						
		65~79세	4.9	-	13.6	-	7.3	14.6
80세 이상	3.5	-	12.4	-	3.7	9.9		

주: 1) 2011년 조사 결과임.

2) 조사 대상 중 본인 응답만 포함한 분석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각연도, 원자료 재분석.

〈부표 7-11〉 교육 및 여가 영역: 여가활동 참여율¹⁾

대영역	개별지표	구분	시계열					
			'04	'06	'08	'10	'12	'14
교육 및 여가	여가활동 참여율(%)	진체	-	-	4.6	3.8	5.3	9.7
		성별						
		남자	-	-	4.7	3.9	4.9	10.0
		여자	-	-	4.5	3.7	5.7	9.4
		연령군별						
		65~79세	-	-	5.1	4.4	6.3	11.4
		80세 이상	-	-	2.1	1.0	2.0	3.0

주: 1) 지난 1년 동안 영화, 공연, 음악회, 전시회, 스포츠를 관람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지난 1년 동안 취미 및 오락 관련 모임이나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 연구패널. 각연도. 원자료 재분석.

〈부표 7-12〉 가족 및 공동체 영역: 유배우율²⁾

대영역	개별지표	구분	시계열					
			'04	'06	'08	'10	'12 ¹⁾	'14
가족 및 공동체	유배우율(%)	전체	54.8	-	64.5	-	67.5	61.4
		성별						
		남자	88.4	-	90.4	-	90.6	86.4
		여자	33.9	-	47.1	-	49.9	43.6
		연령군별						
		65~79세	60.3	-	70.6	-	73.3	68.1
80세 이상	26.0	-	33.1	-	39.6	35.8		

주: 1) 2011년 조사 결과임.

2) 조사 대상 노인 모두 포함한 분석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각연도, 원자료 재분석.

〈부표 7-13〉 가족 및 공동체 영역: 가족관계 만족률¹⁾²⁾

대영역	개별지표	구분	시계열					
			'04	'06	'08	'10	'12	'14
가족 및 공동체	가족관계 만족률(%)	전체	-	41.3	46.0	47.7	48.6	47.8
		성별						
		남자	-	44.4	48.1	49.2	50.9	49.6
		여자	-	39.2	44.6	46.7	47.0	46.5
		연령군별						
		65~79세	-	41.4	46.6	47.9	48.3	48.0
		80세 이상	-	40.9	42.3	46.9	50.3	47.0

주: 1)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약간 만족 포함)한 비율임.

2) 성별, 연령군별 만족도의 경우 원데이터(기구원 승수 적용)를 통하여 재분석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DB. 각연도, 원자료 재분석.

〈부표 7-14〉 가족 및 공동체 영역: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비율²⁾

대영역	개별지표	구분	시계열					
			'04	'06	'08	'10	'12 ¹⁾	'14
가족 및 공동체	친한 친구· 이웃이 있는 비율(%)	전체	65.2	-	75.1	-	75.9	62.7
		성별						
		남자	68.8	-	76.1	-	75.6	63.1
		여자	62.9	-	74.3	-	76.1	62.4
		연령군별						
		65~79세	66.3	-	75.0	-	77.8	65.4
80세 이상	56.1	-	60.2	-	66.3	52.0		

주: 1) 2011년 조사 결과임.

2) 조사 대상 중 본인 응답만 포함한 분석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각연도, 원자료 재분석.

〈부표 7-15〉 가족 및 공동체 영역: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¹⁾

대영역	개별지표	구분	시계열						
			'04	'06	'08	'10	'12	'14	
가족 및 공동체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 (%)	전체	-	-	-	4.2	(42.0) ¹⁾	-	-
		성별							
		남자	-	-	-	4.4	(44.0)	-	-
		여자	-	-	-	4.1	(41.0)	-	-
		연령군별							
65~79세	-	-	-	4.1	(41.0)	-	-		
80세 이상	-	-	-	5.4	(54.0)	-	-		

주: 1) 원자료는 노인의 사회적 위상에 대하여 10점 척도로 물어보았으나(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위상) 시산 시에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계산하여 활용함. 원자료는 단년도(wave 6(2010-2014))에 한해 조사됨.

자료: World value survey(2010-2014), World value survey(wave 6). 원자료 재분석.

(부표 7-16) 시민참여 영역: 사회단체 참여율¹⁾

대영역	개별지표	구분	시계열					
			'04	'06	'08	'10	'12 ²⁾	'14
시민참여	사회단체 참여율(%)	전체	37.1	-	-	-	38.3	44.4
		성별						
		남자	53.4	-	-	-	48.6	53.4
		여자	26.9	-	-	-	30.4	37.9
		연령군별						
65~79세	41.1	-	-	-	42.6	50.5		
80세 이상	9.2	-	-	-	16.6	19.9		

주: 1) 조사된 사회단체 수에 연도별 차이가 있음. 2011년과 2014년은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의 3개 단계 참여 여부가 조사되었음, 2004년에는 동호회는 문화활동과 운동단체로 구분되어 조사되었고, 종교단체가 추가 조사되었음. 이에 2004년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 3개 단계(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에 대한 참여 여부를 파악하였음. 이때 동호회 활동 여부는 문화활동단체나 운동단체 중 1개 이상 참여했으면 활동한 것으로 간주하였음. 단 2008년의 경우는 8개 단계에 대하여 조사되어, 비교하기에 제한점이 있어서 시산 시에는 2004년과 2011년간의 평균한 변화율을 반영하여 수치를 산출하고자 함. 각 연도는 본인응답만 포함하여 분석함.

2) 2011년 조사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연도. 원자료 재분석.

〈부표 7-17〉 시민참여 영역: 자원봉사활동 참여율¹⁾

대영역	개별지표	구분	시계열					
			'04	'06	'08	'10	'12 ²⁾	'14
시민참여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전체	4.0	-	10.1	-	3.9	4.5
		성별						
		남자	5.8	-	11.8	-	5.2	5.2
		여자	2.8	-	9.1	-	2.9	4.0
		연령군별						
		65~79세	4.4	-	10.9	-	4.3	5.2
80세 이상	0.9	-	6.2	-	1.5	1.8		

주: 1) 조사 대상 중 본인응답만 포함한 분석 결과임.

2) 2011년 조사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연도, 원자료 재분석.

〈부표 7-18〉 시민참여 영역: 정치적 자기역량인식¹⁾²⁾

대영역	개별지표	구분	시계열					
			'04	'06	'08	'10	'12	'14
시민참여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전체	-	-	-	-	-	55.0
		성별						
		남자	-	-	-	-	-	52.5
		여자	-	-	-	-	-	57.3
		연령군별						
		65~79세	-	-	-	-	-	-
80세 이상	-	-	-	-	-	-		

주: 1) 정치적 자기역량인식(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치효능감)에 대해 동의(매우 동의 포함)하는 비율(%)

2) 해당 원자료는 만 19세~69세 이하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10세군별로 분석됨. 이에 본 지표의 '전체' 값은 만 60세~69세 이하의 결과값을 의미함.
자료: 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연도, 원자료 재분석.

〈부표 7-19〉 안전 및 환경 영역: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¹⁾

대영역	개별지표	구분	시계열					
			'04	'06	'08	'10	'12 ²⁾	'14
안전 및 환경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	전체	-	-	10.2	-	12.7	9.9
		성별						
		남자	-	-	11.8	-	11.7	8.9
		여자	-	-	9.1	-	13.4	10.6
		연령군별						
		65~79세	-	-	9.8	-	12.9	10.0
		80세 이상	-	-	12.4	-	11.7	9.6

주: 1) 조사 대상 중 본인 응답만 포함한 분석 결과임.

2) 2011년 조사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노인학대조사, 각연도, 원자료 재분석.

〈부표 7-20〉 안전 및 환경 영역: 노인자살률¹⁾

대영역	개별지표	구분	시계열					
			'04	'06	'08	'10	'12	'14
안전 및 환경	노인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전체	79.0	72.0	71.7	81.9	69.8	55.5
		성별						
		남자	122.3	111.4	112.0	128.5	107.7	87.9
		여자	51.5	46.3	44.7	50.1	43.5	32.4
		연령군별						
		65~79세	68.0	63.3	63.8	73.3	62.3	50.3
80세 이상	125.3	112.7	112.9	123.3	104.5	78.6		

주: 1) (성별, 연령별 사망자 수 / 성별, 연령별 총 인구 수) x 100,000

자료: 1) 통계청, 고령자통계, 각연도.

2)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연도.

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www.kosis.kr)에서 2017. 8. 7. 인출.

〈부표 7-21〉 안전 및 환경 영역: 주거환경 만족률¹⁾

대영역	개별지표	구분	시계열					
			'04	'06	'08	'10	'12 ²⁾	'14
안전 및 환경	주거환경 만족률(%)	전체	-	80.4	73.7	83.4	-	76.8
		성별						
		남자	-	80.6	75.8	84.0	-	77.3
		여자	-	80.1	72.1	82.7	-	76.5
		연령군별						
		65~79세	-	80.6	74.4	83.4	-	77.1
80세 이상	-	78.2	69.2	83.1	-	75.7		

주: 1) 2008~2010년, 2014~2016년 - [가구주(혹은 가구주의 배우자)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전반적인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대체로+매우)한 비율(%)

2) 2012년 -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조사되어,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각연도. 원자료 재분석.

〈부표 7-22〉 안전 및 환경 영역: 사회안전에 대한 만족률¹⁾

대영역	개별지표	구분	시계열					
			'04	'06	'08 ²⁾	'10	'12	'14
안전 및 환경 대한 만족률(%)	사회안전에 대한 만족률(%)	전체	-	-	9.2	11.3	13.5	10.4
		성별						
		남자	-	-	10.7	12.9	14.4	11.2
		여자	-	-	8.3	10.2	12.9	9.9
		연령군별						
		65~79세	-	-	9.0	11.2	13.6	10.2
80세 이상	-	-	10.6	12.0	12.9	11.5		

주: 1)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해 안전(매우 안전 포함)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성별, 연령군별 만족도의 경우 원데이터(가구원 승수 적용)를 통하여 재분석함.

2) 2008년부터 원자료원 공개.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원자료 재분석.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